2014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남북·조선족의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 –

일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소 ▌ 연변대학교 도서관청사 801호

주최 ▌ 국립국어원

주관 ▌ 연변대학교

▌▌ 2014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일정 ▐▐

– 남북·조선족의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 –

≫ 1부 사회: 이관복 (연변대)　　≫ 2부 사회: 이대성 (국어원)

1부	09:00~09:30	참가자 등록		
	09:30~09:40	개 회 사	박영호	연변대학교 총장
	09:40~09:50	축　　사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09:50~10:00	장내 정리		
	10:00~10:40	발　표 1	민현식	통일시대 남북 언어통합의 전망과 과제
	10:40~10:50	휴　식		
	10:50~11:30	발　표 2	김영수	중국 조선족 언어와 언어문화의 전망과 과제
	11:30~13:30	점심식사		
2부	13:30~14:00	발　표 3	이관규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
	14:00~14:30	발　표 4	윤윤진	민족 자치에 따른 중국 조선족 교육 현황과 중국 조선어 교육
	14:30~14:50	휴　식		
	14:50~15:20	발　표 5	이길재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
	15:20~15:50	발　표 6	최희수	중국 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
	15:50~16:10	휴　식		
	16:10~16:50	종합토론	마금선, 이보라미, 김일, 이대성, 발표자	
	16:50~17:00	폐 회 사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17:00~19:00	저녁식사		

개 회 사

연변대학교 총장 박 영 호(朴永浩)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 , 국내외 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 저희 연변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 분들에게 저 개인과 연변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점검하는 이때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남북 및 재중동포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연변대학교에서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올해로 중국과 한국은 수교가 된지 스물두해가 됩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한국을 상호 방문하여 중한 두 나라 국민들의 교류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7월 4일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에서《共创中韩合作未来同襄亚洲振兴繁荣 : 아시아의 진흥과 번영을 위해 한중이 협력해 나가자!》는 주제로 연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양국 간 교류는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례 없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후 속에서 연변대학교와 국립국어원도 10여 년간의 교분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십여 년간 연변대학교는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과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민족 언어의 어휘 구성, 말뭉치 구축, 방언 조사, 우리말 정보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조선의 우리 민족 간의 보다 원활한 언어소통과 더불어 실현가능한 언어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모체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세계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집합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리의 문자를 한글이라 부르고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어라 부르고 조선은 조선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 모두는 나라의 명칭은 달라도 모두가 한 민족이고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통합 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결합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한글의 정체성 아래에서 남북을 포함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각기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삶을 누리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주 국가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연변대학교는 “진리, 선행, 융합”이라는 건학이념을 좇아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역점을 두고 한국학을 중심으로 하는 21세기 동북아학의 이론연구와 두만강 개발연구 기지로,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중국 일류의 종합성 민족대학교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변대학교의 한국학 연구는 국제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프로젝트의 개발과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 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의 상호소통 기제를 건립하고 보편적인 참여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리게 되는 남북 언어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꾀하는 연변대학교의 성장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세종학당” 건립, 교사연수 파견,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 다년간 연변대학교를 성원해주시고 이번 학술회의가 성사되도록 기획하신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학술회의를 주관하신 연변대학교 및 조선-한국학학원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립국어원장 민 현 식(閔賢植)

올해는 추석이 좀 이르다 싶었는데 그만큼 가을이 빨리 온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인 것을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안팎으로 바쁜 이즈음에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연변대학 박영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 시대의 중심 대학인 연변대학에서 작년에 이어 이렇게 한국어를 연구하시는 학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남북한 언어문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52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되고 어느덧 6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선족 사회의 발전과 한중 교류 협력의 기초를 놓고자 힘써 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20세기는 동북 지역을 개척해 온 조선족에게는 수많은 격랑을 힘겹게 헤쳐 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은 지금까지도 한민족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는데 다행히 오랜 시간 갈라져 살아오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남과 북의 언어와 언어문화는 각기 다른 발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이는 언어와 언어문화에서 일정한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차이가 별 것 아니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언어문화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조선족 사회는 남북한의 소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지역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비로소 이 지역의 진정한 화합과 소통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언어는 민족의 화합과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언어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생각을 나누고 행동을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자음과 모음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언어는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고, 그것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곧 그 사회의 언어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술회의가 남과 북, 그리고 조선족 사회의 언어문화의 변화 양상과 현재의 모습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은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어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한중 교류 활성화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조선족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자치주 내의 조선족 인구가 줄어들면서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과 북, 그리고 조선족 사회가 더욱 자주 만나서 남북한은 물론 조선족 언어문화의 보전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그러한 과정의 작은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립국어원은 남북한 언어의 통합 발전을 도모하고 조선족 사회가 한중 교류에서 귀중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번 학술회의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달 전부터 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를 도맡음으로써 오늘 이렇게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이관복 원장님, 마금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과 중국의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남북한 및 조선족의 언어 보전과 언어문화의 교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주제발표

통일시대 남북 언어통합의 전망과 과제 1/
민 현 식 (국립국어원)

중국 조선족 언어와 언어문화의 전망과 과제 13
김 영 수 (연변대학교)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 15
이 관 규 (고려대학교)

민족 자치에 따른 중국 조선족 교육 현황과 중국 조선어 교육 37
윤 윤 진 (길림대학교)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 39
이 길 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중국 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 /3
최 희 수 (청도 빈해학원)

종합토론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하여 / 76
마금선 (연변대학교)

<민족 자치에 따른 중국 조선족 교육 현황과 중국 조선어 교육>에 대하여 / 169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에 대하여 / 171
김 일 (연변대학교)

<중국 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에 대하여 / 371
이대성 (국립국어원)

주 제 발 표

통일시대 남북 언어통합의 전망과 과제

민 현 식

국립국어원

통일시대 남북 언어통합의 전망과 과제

민 현 식 (국립국어원)

1. 2015년, 광복 70주년을 바라보며

2015년은 한민족과 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일제 식민지 침략의 사슬에서 벗어난 지 70돌이 되는 해이다. 냉전으로 인해 발생한 분단은 중국, 베트남, 한국, 예멘 등에서 나타났는데 중국과 한국만이 아직 분단의 현실에서 통일을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민족의 분단이 지속됨은 언제까지인가 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안 활발히 진행되던 남북 교류는 2008년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침체 상태에 있었다. 최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2009년 중단 이래 5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다른 남북 교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으로도 한, 중, 일, 미의 4대국 외교가 복잡하게 얽혀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진 형국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남북 평화 통일의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남북 분단과 긴장은 동북아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동북 3성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통일은 이런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이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거나 중국 서역 지방 및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서역로(西域路)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경제 개발의 기대가 더 없이 크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세계 경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동북 3성의 경제권과 러시아 연해주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중국 내륙 경제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주변부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유럽 3억 경

제, 미국 3억 경제보다도 더 큰 경제권을 형성시킬 것이라고 한다. 남북한 8천만, 동북 3성 및 중국 13억, 일본 1억 2천의 동북아 경제가 훨씬 더 역동적 경제권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대 경제권의 태동을 막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분단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지원을 선도해야 한다.

흔히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는 논리가 횡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에게까지 통일 거부감이 확산되었고 아직도 그런 통일 비용 논리는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통일 비용보다 통일로써 얻는 이득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문학자들이 어문연구를 하거나 어문교류를 하는 것도 그런 남북통일의 정확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그동안의 민족 분단의 고통을 역발상으로 민족 화합의 환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 가령, 생물학자들이라면 60년간 자연 보존된 DMZ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므로 경제 문화적 가치도 엄청날 것으로 보아 통일시대에 보전 및 개발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어 분단이 남긴 상처와 갈등의 언어 현상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한국을 언어 연구와 언어 문제 치유의 종합기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남북 언어학자들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염돈재(2010)에서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었다.

하나, 통일은 민족적 책무다.
둘,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셋, 통일은 민족 자부심 고양의 계기가 된다.
넷,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다섯, 세계 강대국이 되어 후손들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여섯, 분단에 따른 각종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곱, 한반도 통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남북 교류의 경과와 언어 통합의 방향

남북 언어 통합 문제는 1980년대부터 점차 다루어지면서 어느새 진부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남북 통합의 첫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해 우리는 여전히 통합을 위해 고민을 하고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 통합의 전 단계는 왕래 교류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왕래 교류조차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양안(兩岸) 왕래로 경제 교류, 인적 교류가 활발해 어떤 형식으로든 낙관적 통일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북한도 그동안 여러 모습의 교류 협력이 있어 왔고 지금도 개성공단 가동 사례처럼 부분적 경제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은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가 통일의 단계를 인도적 교류 - 정치 교류 - 스포츠, 관광 교류 - 학술, 학생 교류 - 경제 무역 교류 - 의회 교류 - 행정 제도적 교류(체제 선택, 체제 혼합) - 정치 최고 책임자 교류(정상회담) - 제도 통합(총선거)의 단계로[1] 구분한다면, 중국의 교류는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 정치 제도적 통합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반면에 남북 관계는 2008년 이후 뚜렷한 개선 조짐이 없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도적 교류: 남북 적십자 회담, 자연재해에 대한 물자 지원(곡물, 의약품, 장비류 지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인도적 교류의 가장 기본적 교류인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 왕래와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정치 교류: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 남북 고위급회담 등 통일 담론 형성의 초기 단계로 남북 권력자의 정치적 교류가 있어 왔다. 그 결과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1

1) 물론 이 순서는 절대적, 결정적이지 않다. 이들의 어떤 단계는 두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뒤바뀔 수도 있어 혼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은 경제 교류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이라 경제 교류가 앞서 시도된 긍정적 현상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단계의 무리한 선행은 잡음과 파행과 더 깊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런 예로는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남북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은 충분한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무리하게 시도한 결과로 파행도 자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992)가 가장 합리적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2000),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2007)도 이루어졌다.

(3) 스포츠, 관광 교류: 남북 친선 경기, 국제 경기 단일 대표단 구성, 관광 교류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8년 박왕자 씨 사건으로 남북 관광은 중단되었다.

(4) 학술, 학생 교류: 인문(언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분야, 남북 사회 학술 분야(인구, 지리 정보 등), 경제 경영 분야, 전자 공업 기술 분야 등의 교류가 시도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대표적이고, 문화재 역사 자료 관심 분야 협력, 평양과학기술대학 지원 사업 등이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경제 무역 교류: 2000년 6.15 선언 이래 개성공단 공동 운영 사업 외에도 북한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직항 거래되는 교역이 상당히 활발했으나 최근에는 교역량이나 교역 금액 모두 급감한 상태이다.

(6) 의회 교류: 남북 정치 제도적 통합에 앞서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원들이 교류 협력하여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동안 의원 개별적인 교류는 간혹 있어 왔으나 의회 차원의 교류는 없었다.

(7) 행정 제도적 교류: 남북 통합에 앞서 서로 좋은 제도나 정책을 상호 제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교육 부문의 통합을 위해 6-3-3 학년제의 한국과 4-6-2(4) 학년제의 북한 학제의 통일, 경제 무역 농수산, 축산업 등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8) 정치 최고 책임자 교류: 남북 정상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최후에는 결정적 시기에 남북통일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이후 핵 개발 문제 등으로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 제도 통합: 남북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제도의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남북 교류 협력의 내용들과 달리 1972년부터 본격 교류가 시작된 독일의 교류 협력과 통일은 우리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모습도 보인다.[2)]

(1) 스포츠 교류: 1956년 겨울올림픽부터 동서독 단일팀 출전을 해 왔다.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가 1972년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래 스포츠 교류가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2) 청소년 교류: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헬싱키 의정서 타결, 1981년 10월 동서독 정상회담에서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합의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졌다. 서독 정부는 민족의 동질성 유지, 동서독 청소년 간의 개인적 친분 조성, 동독에 대한 선입감 및 적대감의 완화에 목표를 두고 동독 단체여행 경비를 지원했다.

(3) 인적 교류: 동서독 주민 간의 인적 교류는 이주(移住)와 방문·여행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49년 분단 이후 1989년까지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은 480만 명에 이르고, 동독으로 이주한 서독 주민은 47만 명이라 한다. 방문 및 여행도 1965년부터 본격화하여 1년에 수백만 명이 자유롭게 방문과 여행을 하였다고 한다.

(4) 도시 간 교류: 1985년 호네커의 고향인 서독 자를란트 주지사의 동독 방문을 계기로 동서독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후 62개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었으며, 700개의 서독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희망했다고 한다. 자매결연 도시 간의 교류는 교통, 주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에 관한 정보 교환과 체육·문화행사에서의 교환 방문이 주류를 이루어 주민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외에 우리는 다음을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독일어 사전 편찬: 독일은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던 19세기 초에 1838년 철학자 모리츠 하웁트(Moriz Haupt)와 출판업자 칼 라이머(Karl Reimer)가

2) 1990년부터 3년 동안 현지에서 독일 통일을 직접 목도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 박사의 '올바른 통일 준비를 위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2010) 참고.

야콥 그림과 빌헬름 그림(Jacob und Wilhelm Grimm) 형제와 함께 새로운 독일어 사전(Deutsche Deutsches Wörterbuch, DWB)를 편찬하여 120년이 걸려 1961년도에 총 32권 규모의 초판을 완성했는데 동서독 학자들이 사전 편찬 사업에는 상호 협력하였다.[3)]

동서독은 이주, 방문, 여행을 자유롭게 하였기에 통일의 토양이 상당히 비옥하게 형성되어 갔다. 우리도 이런 왕래 교류가 활발하기를 바라는데 독일의 사전 편찬사업처럼 언어 교류 사업이 교류의 상징으로 기능하므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의 교류 협력은 긍정적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언어 교류 사업의 추진은 모든 교류 사업에서 언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 다룬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아두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통일 어문 규범 연구: 남북 간에 이질적으로 비치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4대 표기법 통일을 위한 사업으로 가장 기본적인 어문 통일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어문정책기관이나 어문학자들이 만나 통일 어문규범 정비를 추진하면 된다. 특히 이 경우 동북3성 지역의 어문 규범 사업 기구가 중간 조정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특별히 어휘 이질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남북 간에 대등하게 통용되는 많은 어휘들은 통일이 되더라도 일방적 표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복수 표준어 개념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남한어에서 '참견, 귀여겨듣다, 대님, 곡예, 개인위생'은 북한어에서는 '간참, 강구다, 고매끼, 교예, 개체위생'이 쓰여 서로 대등하므로(최경봉 2012:228) 전문어 차원에서의 통일이 긴요한 것을 빼면 고유어나 일반어에서는 두 단어의 통용을 용인하여 복수 표준어로 수용하면 되며 장기적으로 자연적 단어 경쟁을 통해 생존과 소멸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일 문법 연구: 남북 간에 학교 규범 문법의 체계도 이질적 요소가 많아 통일 문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당연히 문법 용어의 통일로 이어진다. 통일 문법은 음운, 어휘(품사), 문장(성분), 담화 차원의 연구

3) 성경숙(2010), 독일어 사전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 쉼표, 마침표 제52호(2010년 3월).

로 확대되는데 특히 남북 간에는 품사 및 성분 분류의 체계와 용어가 가장 이질적이라 이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의 높은 장벽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제 한국어의 표준을 정하려면 품사, 성분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 체계의 통일 방안을 남북 학자들이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세계 표준 한국어>의 개념을 수립하는 일과 통한다.

(3) 통일 표준 한국어 구축 연구: 한국어는 이미 한국어와 북한어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 미주 지역처럼 이민자들의 한국어 이질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표준을 정하여 세계인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목적으로 표준 한국어를 표준 발음, 표준 표기, 표준 문법, 표준 화법 등의 차원에서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하나로 '한국어'의 명칭도 통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국어/한국어가 통용되고 북한, 중국에서는 '조선어'가 통용되는데 러시아 지역에서는 '고려말', 일본에서는 '조선어, 한글어, 코리아어' 등도 통용된다. 문자에 대해서도 '한글'을 북한에서는 '조선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통일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4) 방언 및 지명 연구: 남북 간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언 현상을 조사하여 상호 제공하고 지명 현황과 변천사를 추적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방언 연구는 어휘 차원에 머물렀는데 각 지역 방언의 인사말, 감사, 사죄, 요청, 거절 등의 화행 표현, 지역 속담의 양상 등과 같은 담화 차원의 방언 연구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남북 간에 공동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5) 통일 한국어 사전 편찬과 국어 정보화 협력 연구: 현재 남북 간에 겨레말 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사전 편찬을 기획해 상당수 집필을 끝낸 상태이다. 추가 집필 분야를 완성하여 기념비적 사전이 되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부터 새롭게 전 국민이 사전 표제어를 제안 등재시킬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의 위키피디아형 '한국어 개방형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개발하여 2016년 공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편찬 작업은 국어정보화 차원에서의 협력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

(6) 국어 역사 연구: 남북 간에 비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은 국어의 역사적 연구 분야이다. 음운사, 형태사, 어휘사, 문법사 차원의 국어 발달 상황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차자법(借字法) 연구, 향가 해독, 고려 가요 주석, 중세 근대의 언해본 주석, 국어 어원 연구 등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고영근(1989)에서도 제기한 바 있듯이 훈민정음, 국어학자 주시경(周時經), 향가 해독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공동 연구할 분야이다.

(7) 한자 문제 연구: 차자법 연구를 위해서는 한자 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자 문제의 모든 것, 즉 기초 한자, 교육용 한자, 음훈 획정 문제 등을 공동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자는 동아시아 공통문자의 성격도 강해 중요한 공동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EU가 1+2 언어정책을 채택하는 것처럼 한국도 인접 국가 언어인 중국어나 일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국어 어휘 교육 차원에서도 한자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8) 국어 순화 연구: 남북한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국어 순화 또는 말다듬기라고 부르는 분야이다. 현재 상당한 순화어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나 그 효과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순화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국어정책기관의 책무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국어 순화 대상어 목록을 구축하고 대조 비교하는 사업부터 해야 한다. 또한 순화어의 강력한 홍보 확산 대책도 필요하고 성공적 순화어와 실패한 순화어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9) 국어 전문용어 사업: 남북한의 전문용어는 이질화가 가장 심한 부분이다. 따라서 어려운 전문용어의 순화 정책, 외래 전문용어 표기 통일, 전문용어의 띄어쓰기와 같은 규범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 작업에서는 100만 개 이상의 전문용어를 등재할 예정이라 앞으로 사전은 국어의 전문용어 관리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상의 남북 간 국어 통합을 위한 언어 사업들은 성실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적 교류의 질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류 협력을 이루려면 남북 언어 기관 간에 연구 성과물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언어 교류를 위한 기본 합의서'가 협력기관끼리 맺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언어 연구 기관의 인사들이 상호 방문 교류를 하고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물을 상호 교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장차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필요하다. 이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가 공동연구를 하고 있어 이를 모델로 삼아 다른 언어 교류 사업에서도 공동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문 규범 통일을 위한 공동 연구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위에 기술한 교류 사업들도 모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위 사업들 중에서 공동 연구가 긴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다.

3. 공동 협력 과제

3.1. 통일 어문 규범 연구

남북 언어에서 규범의 통일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한국어의 국제화를 생각하면 한국어 규범의 통일은 당연한 과제이다. 현재 남북 규범 통일을 위해 진일보한 논의는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서 거둔 협력의 일단은 권재일(2008)에서 정리된 바 있어 자모 순서라든가 받침 종류 등에서 절충안이 나왔는데 절충안이 최선안인지는 논란이 있으므로 단순히 협상의 절충안으로 머물러서는 곤란하고 최선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4)]

4) 어문 규범에 대한 논의는 국립국어원의 2010년 10월 일본 오시카에서 열린 '남북언어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졸고(2010)에서 밝힌 내용과 현재도 다른 변화가 없어서 현재 가장 진전된 통일안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안을 어문 규범 통일안 논의의 대상으로 재인용한다.

(1) 자음 순서

한[한글 맞춤법]: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조[조선말 규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ㅇ
겨[겨레말 규범]: ㅇ 위치는 남측, ㄲ, ㄸ...은 북측 순서대로 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통합안인 겨레말큰사전의 자음 배열은 한국식을 따라 ㅇ을 앞으로 보내고 ㄲ, ㄸ, ㅃ… 등 된소리는 북한식으로 맨 뒤로 보내 절묘한 절충안이 나왔다.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절충안이 실용성도 보장할 수 있어 무리한 변개는 아니다.

(2) 모음 순서

한: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겨: 홑모음자를 먼저 배열한 후 겹모음자를 배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ㅐ ㅒ ㅔ ㅖ ㅘ ㅚ ㅙ ㅝ ㅟ ㅞ ㅢ

통합안인 겨레말사전의 모음은 홑모음자를 앞에 위치하는 북한식으로 하고 ㅣ계통 겹모음자는 북한식처럼 뒤로 돌렸다. 결과적으로 홑모음과 겹모음의 ㅐ, ㅒ, ㅔ, ㅖ까지는 북한식을 따른 것이라 모음은 북한식을 거의 따랐다. 그런데 ㅘ ㅚ ㅙ ㅝ ㅟ ㅞ ㅢ 부분은 배열 원리가 무엇인지 복잡하게 보여 국어사전을 찾을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모음 방식은 실용성의 점검이 필요하다.

(3) 받침

한: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조: ㄱ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ㅆ

기존 받침 배열은 한국식이나 북한식이나 겹받침들이 같은 계열의 홑자음 뒤에 들어와 있는데 겨레말큰사전의 통합안은 겹받침을 맨 뒤로 몰았다. 통합안인 겨레말큰사전 방식은 앞에서 찾던 겹받침들을 모두 뒤로 돌려놓았다. 한국식에서는 '닦다'는 '닥나무'의 근접한 뒤의 어디에선가 찾으면 되는데 통합안에서는 한참 뒤 '닿다' 뒤에서 찾아야 하니 익숙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4) 글자 이름

남북 간에 글자 이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홑자음 'ㄱ, ㄷ, ㅅ'과 겹자음 'ㄲ, ㄸ, ㅃ, ㅆ, ㅉ'의 이름이다. 한국식은 '기역, 디귿, 시옷,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 등이고 북한식은 '기윽, 디읃, 시읏, 된기윽, 된비읍 …' 등인데 통합안인 겨레말큰사전안에서는 'ㄱ(기윽), ㄷ(디읃), ㅅ(시읏), ㄲ(쌍기윽), ㄸ(쌍디읃), ㅃ(쌍비읍), ㅆ(쌍시읏), ㅉ(쌍지읒)'으로 하였다. 이는 홑자음은 북한식 '이으' 방식으로 하고, 겹자음은 '된-' 대신 한국식 '쌍-'으로 하여 절묘한 절충안을 만든 것이다. 한국식에서 유지했던 『훈몽자회(訓蒙字會)』 방식의 '기역, 키읔, 디귿, 티읕, 시옷'과 같은 불균형 방식을 청산하였다는 점에서는 발전적 사례라 할 수 있다.

(5) 띄어쓰기

① 의존명사 띄어쓰기

한: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 한 사람, 두 마리
조: 갈바를 알수 없다	**조**: 한사람, 두마리
겨: 갈 바를 알 수 없다	**겨**: 한사람, 두마리

겨레말큰사전안은 한국식처럼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명사는 북한식대로 붙여 절충을 하였다. 결국 의존명사에서 단위명사만 붙여 쓰는 것이 되어 의존명사 전체의 내적 일관성은 지키지 못하였다. 한국의 띄어쓰기 원칙이나 북한의 붙여쓰기 원칙이나 모두 지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 원리를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② 보조용언 띄어쓰기

한: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 버렸다
조: 가고있다, 읽게하였다, 오지않았다, 먹어버렸다
겨: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버렸다

이 경우도 한국의 띄어쓰기 원칙, 북측의 붙여쓰기 원칙이라는 각각의 내적 일관성이 통일안에서는 사라져 의존명사 띄어쓰기의 통일안처럼 되었고 결국은 '먹어버렸다'만 붙이는 방식인데 유독 '-아'계 어미만 붙이는 것이라 한국식에 익숙한 국민은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이다.

③ 명사 연결체 띄어쓰기

한: 통일 대학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국가 건설 방향 설정
조: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방향설정
겨: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 방향설정

통일안인 겨레말큰사전안에서는 한국의 붙여 쓸 수 있다고 한 융통성 조항과 북한식을 거의 혼합한 방식이라 하겠다.

다음 (6), (7)은 권재일(2008)에서 남북 간에 절충 중이라고 밝힌 것들이다.

(6) 사이시옷

한: 나뭇잎, 냇가, 귓병, 전셋집, 학곳길, 장맛비, 북엇국
조: 나무잎, 내가, 귀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한국 제안: 나뭇잎, 냇가, 귓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북한 제안: 나무잎, 냇가, 귀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한국식은 '등굣길, 우윳값, 수돗물'처럼 3음절 이상에 과도한 사이시옷 표기가 많아 불편하다는 비판이 많다. 북한식은 '조선말 규범집'(1966)에서 발음 교육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폐지했다. '조선어 규범집'(1988)에서도 사이시옷 규정이 없지만, '샛별 - 새별(새로운 별)', '비바람(비와 바람) -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처럼 의미상의 혼동이 있으면 이를 막고자 해당 단어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각 제안 항목은 전체적으로 사이시옷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긍정적이다.

사이시옷에 대해 한글 맞춤법 30항의 골격을 유지하되 과도한 사이시옷으로 지목되는 3음절 이상에서의 사이시옷(수돗물, 김칫국, 등굣길, 최댓값, 부싯돌, 머릿기름, 나뭇가지 ...)을 폐지하는 방안처럼 음절수 제한 방식도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당시에 고려된 바 있었다. 가령 ① 고유어 2음절어에서만 사이시옷을 둔다(귓밥, 킷값, 찻집, 샛길, 냇물, 깻잎 ...)[5], ② 한자어에서는 현재의 6개 한자어 사이시옷 규정 대신 동음이의어로 혼동되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한다(곳간 庫間 - 고간 股間, 高干; 셋방 貰房 - 세방 世邦; 숫자 數字 - 수자 守者, 鬚髭, 繡刺; 찻간 車間 - 차간거리 車間距離; 횟수 回數 - 회수 回收; 홋수 戶數, 號數 - 호수 湖水), ③ 고유어나 한자어를 막론하고 3음절 이상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모두 폐지한다는 식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의 반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와 시각적으로 사이시옷을 없앤 경우가(회수, 호수) 사이시옷으로 구별한 경우(횟수 回數 - 회수 回收; 홋수 戶數, 號數 - 호수 湖水)와 비교해 큰 불편함이 없느냐의 인식 판단에 달려 있다.

(7) 두음법칙

권재일(2008)에서는 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② 복수 표기를 인정하여 두 표기형을 올림말로 모두 올리는 방안, ③ 'ㄹ' 두음과 'ㄴ' 두음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으나 절충이 어려웠다고 한다. 북측은 ④ 사회적인 충격이 큰, 빈도수가 높은 단어(약 120개)에만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북한식 발음에서도 두음의 ㄹ 발음이나 ㄴ 발음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상이 있다면 한국식으로의 통일이 편리할 것이다.

(8) 품사

품사 명칭의 통일은 지난한 작업이지만 겨레말큰사전 통합안에서는 문법 형태소

5) 이에 따르면 고유어 3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도 사이시옷을 폐지해야 한다(고랫재 → 고래재; 못자리 → 모자리; 머릿기름 → 머리기름; 부싯돌 → 부시돌).

를 ‘토’라는 범주로 단일화하고 ‘토’의 하위 범주는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뜻풀이에서 ‘조사’ 및 ‘체언토’는 ‘체언 뒤에 붙는 토’, ‘어미’ 및 ‘용언토’는 ‘용언 뒤에 붙는 토’로 뜻풀이를 한다고 한다.

(9) 외래어 표기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단일화한다.

(ㄱ) 한국 것으로[앞 사례]: 뉘앙스/뉴앙스, 마네킹/마네킨, 저널리즘/져널리즘, 라듐/라디움, 매스컴/매스콤, 컨디션/콘디숀
(ㄴ) 북한 것으로[뒷 사례]: 러닝/런닝, 로봇/로보트, 알코올/알콜, 점퍼/잠바, 보닛/본네트
(ㄷ) 복수 표기로: 그룹/그루빠, 토마토/도마도, 에너지/에네르기, 컴퓨터/콤퓨터

위 외래어 표기법 용례는 어느 경우를 한국식이나 북한식으로 하고 어느 경우는 복수 표준어로 할지에 대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해 내적 논리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겨레말큰사전의 통합안은 언중 사용의 실용성 문제를 더 검증해야 할 것이다. 건설적 경청과 토론의 과정에서 최선안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논의 과정이 국어학 연구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언어 통합의 시금석이요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남북 언어의 아름다운 정원이다. 규범 단일화를 성급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공통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사전을 집필해 나가면 어려운 문제는 점진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다.

3.2. 통일 문법 연구

남북 간에는 규범 문법 체계의 이질성이 매우 심각하다. 9품사 체계의 한국 규범 문법이나 8품사 체계의 북한 문법은 각 품사의 세부 분류에서도 차이가 많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 문법 체계의 통일 논의를 상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규범 문법에 대한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규범 문법, 표준 문법, 교육

문법, 학교 문법 등 용어가 다양한데 이들은 개념 구별이 가능하다. 표준 문법은 누가 만드는가에 대해 아직 명료한 개념이 없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고교 문법' 교과서, '중학 국어'의 문법 단원이 규범 문법의 실체이다. 따라서 국어 규범 문법을 심화한 교범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고교 문법' 이상으로 공식화한 것은 없다.

단지 1984년 고교 문법 통일을 기초한 연구자 남기심.고영근(1985)의 '표준국어문법론'이란 교재가 교육기관들에서 연구자들에게 표준 문법의 지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표준 문법이 민간 차원에서 권위가 붙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분류 체계에서 '-거라' 불규칙 설정 문제, 부사형 어미 설정 문제는 논란이 있으며 국정 '고교 문법'(2001)에서는 이들 사항을 개정하였는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는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국어 문법 대계 발간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의 문법 연구를 총정리하고 표준 문법을 구축하려고 한다. 다음은 표준 문법에서 통일이 필요한 쟁점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음운론

가. 단모음을 10개로 설정할 것인가?
나. 이중모음 'ㅢ'를 상향이중모음으로 볼 것인가? 하향이중모음으로 볼 것인가?
다. 장단 현상이 음운론적으로 변별되지 않는 현실 발음의 상태와 표준발음법과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 다음과 같은 상보적(배타적, 결합적, 조건적) 변이음(conditioned variant, complementary distribution. combinative variation, allophone)의 용어와 대응되는 IPA 발음 기호는 어떻게 정확히 기술할 것인가.

<동일 음소의 상보적 변이음 예>

① /ㄹ/

[r] trill 혀떨림소리 = 설전음(舌顫音) '사랑'의 ㄹ을 떨 때(가수 노랫소리)
[ɾ] flap 혀두들김소리 = 설탄음(舌彈音) '사랑'의 ㄹ
[l] lateral 혀옆소리 = 설측음, 유음(流音) '달, 살'의 ㄹ

[ɾ] ㄹ구개음 ‘달력’의 뒤 ㄹ

이들은 음소 /ㄹ/의 조건 변이음(상보적 분포음)이 된다.[6)]

② /ㅎ/
[h] 학교, 한강
[ɦ] 아홉, 분홍색, behaviour. 유성의 h
[ç] 혀, 향가, 효도, 휴가, 힘.(i, j 앞)
[Φ] 회의, 휘파람, 훈풍, 활.(u, w 앞)

③ /ㅓ/: /ㅓ/에도 두 가지 변이음이 나타난다. 중설모음 [ㅡ]에 가까운 [ㅓ]와 후설모음의 [ㅓ]이다. 중설의 [ㅡ]에 가까운 것은 장음을 항상 수반한다.
[ə:] 긴 어 => 없:다 벌: 멀:다(遠) 거:리(距離) 慶事(경:사)
[ʌ] 또는 [ɔ] 짧은 어 => 업다 벌(罰) 멀다(盲) 거리(街) 傾斜(경사)

(2) 형태론

가. 조사의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이다’의 정체를 서술격조사설, 접사설, 의존형용사설, ‘이다’ 동사설 등에서 어느 품사로 볼 것인가?
다. 명사, 대명사, 수사의 구분은 필요한가?
라. 동사, 형용사의 구분 기준은 타당한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조용하세요’와 같은 형용사의 청유 명령형을 타당한 용법으로 설정할 것인가?,
마. 어근, 어간, 어기의 용어 구별과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 ‘거라’ 불규칙의 변화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6) 훈민정음 합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ㄹ/의 대표적 변이음인 종성 [ㄹ]과 초성 [ㄹ]이라는 두 가지 변이음을 ㄹ, ᄅᆞ로 표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이런 변이음에 대한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이를 훈민정음에서 기록한 세종의 치밀한 관찰력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若欲備用 則依脣輕例(반혓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움의 두 소리가 있다. 그러나 韻書의 字母에서는 오직 하나이며, 또한 우리 나랏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움으로 나누지 않으나 모두 말소리가 될 수 있다. 만일 별도로 쓰고자 한다면, 입술가벼운소리의 보기를 따라, ㅇ을 ㄹ 아래 붙여 써 ‘반입술가벼운소리’가 되는데, 혀가 윗잇몸에 잠깐만 붙는다.)

사. 사전에 수록할 접사 목록을 확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아. '오직 너, 바로 너'의 '오직, 바로'는 명사 수식형 부사인가, 관형사로 볼 것인가?

특히 '거라' 활용 현상은 다음과 같이 국내의 대표적 문법서인 최현배(1937, 1975)에서 '거라 불규칙'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고교 문법(2001)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였다.

[최현배, 우리말본(1937, 1975: 344)]

'거라' 벗어난 움직씨란 ... 시킴꼴의 씨끝이 '-아라'나 '-어라'가 아니요, '-거라'인 움직씨를 이름이니라.

(ㄱ) 가다, 나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넘어가다, 물러가다, 장가가다, 시집가다, 엇나가다, 값나가다
(ㄴ) 나다, 축나다, 빛나다, 벋나다, 덧나다, 서슬나다, 탈나다, 혼나다
(ㄷ) 자다

위에서처럼 최현배(1937, 1975)에 따라 학교문법은 '-거라' 명령형을 '가다, 나다, 자다' 등 일부 ㅏ모음 어간의 용언에만 붙는 것이라 하면서 불규칙으로 해 왔고 대부분의 국어학 학문문법서의 기술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위의 최현배의 기술은 비현실적 기술을 하고 있어 근본부터 문제를 보인다(졸고 2002).[7)]

오늘날 언어 현실을 보면 '-거라' 활용형이 모든 동사에 붙어 쓰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거라'가 붙는 모든 동사를 오히려 '거라' 규칙동사로 보아야 하기에 이르렀다. 단지 '오다' 동사만 '-거라'가 붙지 않고 '-너라'만 붙으므로 오히려 '오다'를

7) '우리말본'의 이 용례에는 용례 제시부터 문제가 있다. 동사 명령형으로 잘 쓰이지 않거나 불가능한 자동사류인 '엇나가다(자), 값나가다(자), 축나다(자), 벋나다(자), 덧나다(자), 혼나다(자)'나 관용구인 '서슬나다(구), 탈나다(구)'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가다'와 달리 행위 명령이 불가능하다(졸고 2002).
최현배의 '우리말본' 기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라'가 위 '가다, 나다, 자다' 류 용언 이외의 용언에도 일반화하여 '있거라, 보거라, 먹거라, 사거라, 타거라, 파거라'처럼 잘 쓰인다.
둘째, '-거라'는 노장층이 아래 사람에게 쓰는 보수적 문체의 명령형 어미로 보인다. '게 섰거라, 있거라, 앉거라, 듣거라, 먹거라...'처럼 쓰여 '-거라'는 보수적 문체의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층에서는 쓰지도 않는 '-거라'를 '가다, 나다, 자다' 류에만 써야 한다고 50년 전의 잘못된 기술을 존속한 채 교육을 함은 문제가 있다.
셋째, 고어 자료에서도 '-거라'가 세 유형에만 쓰인 것은 아니다. '뎌 중아 게 잇거라 너 가는 딕 무러 보자(정철 시조), 가마귀 검거라 말고(청구영언)' 등에서처럼 '-거라'의 쓰임새는 위 세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거라 불규칙동사’로 보거나 또는 결과 용어를 써서 ‘너라 불규칙동사’로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통사론

가. 보어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종속접속문, 대등접속문, 부사절의 관계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의 변천에 대해 북한 문법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남기심・고영근(1985, 1993)

① 어말어미
② 전성어미 ┌ 명사형어미
　　└ 관형사형어미
③ 연결어미 ┌ 대등적 연결어미
　　├ 종속적 연결어미
　　└ 보조적 연결어미

이러한 부사형 어미 폐지에 대해 학교문법(2001)에서는 위 연결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총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보였다.

[부사형어미 체계](고교 문법 2001)

국어의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
　　┌ 명사형 어미
　　├ 관형사형 어미
　　└ 부사형 어미

(ㄱ) 문장 수식 부사형 어미
- 대등적으로 수식(대등적 연결어미): 비가 오고, 바람은 안 분다.
- 종속적으로 수식(종속적 연결어미):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졌다.

(ㄴ) 단어 수식 부사형 어미

- 보조 용언 수식(보조적 연결어미):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오게 된다.
- 일반 용언 수식: 비가 지루하게 내린다.

위 분류는 1985년 분류를 포기하지 않고 2001년 분류 속에 포함해 연결어미나 부사형 어미를 넓게 보고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종속적 연결어미만 부사형 어미로 보고 종속절만 부사절로 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3.3. 담화 소통 연구

흔히 남북 간에 언어 이질화를 우려한다. 체제 이념적 대결의 언어 측면에서는 언어적 이질성이 분명히 엄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언어 통합의 측면에서는 이질성의 측면보다 동질성의 측면을 더 탐색해야 한다. 인간의 언어는 긍정과 용서의 언어보다는 부정과 증오의 언어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다. 가령 청소년 성장기의 화법에서도 같은 표현을 해도 부정적 어법이 두드러져 '엄마, 밥 없어요?'와 같은 부정적 질문을 흔히 한다. '엄마 밥 있어요?'라고 해도 되는데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담화 표현을 긍정적 담화 표현으로 전환하는 청소년 대화 지도도 필요하듯이 부정과 증오에 익숙해 온 남북 간의 언어를 긍정과 용서의 언어로 전환시키려면 앞으로 남북 간 언어 연구에서는 기존의 어휘, 문장 중심의 문법적 연구를 넘어 사회언어학, 텍스트언어학, 대화분석, 소통이론 등의 측면에서 남북 언어생활에 대한 담화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담화 소통 연구라 하는데 분단 70년간 나타난 대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해와 편견과 차별과 멸시 등의 모든 부정적 언어 현상의 뿌리를 뽑아내는 처방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국어학자들은 남북 언어의 소소한 차이와 '괜찮다'라는 뜻의 '일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의 '바쁘다' 같은 표현이 주는 담화상에서 나타나는 오해 부분을 예방하도록 세세한 자료까지 관찰 확보하여 교육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속담 같은 것조차 이질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졸고 2010).

- 사돈 남 나무란다.

(북) 알아들을 수 있게 빗대놓고 한 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이 응당 그렇다고 맞장구를 친다는 뜻으로 눈치가 무딘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남) 자기도 같은 잘못을 했으면서 제 잘못은 제쳐 두고 남의 잘못만 나무란다는 말.

- 가는 날이 장날이라.

(북)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을 만나게 된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남)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국에서는 북한 언어자료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이런 오해 예방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였다. 따라서 남북 화해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남북 소통 시 주의할 표현 목록을 학교교육과 방송에서 반복 교육시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 사례는 담화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법적 차이가 상호간에 오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이다(졸고 2010).

(1) 남북 간에 높임법의 차이가 상대에게 오해를 주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 사회는 흔히 경로 화법이 일상화하다 보니 높임법 선택이 대화의 시작 단계에서 필수 선택의 요소이다. 가령 함경도 방언은 '합쇼'체와 '해요'체의 구별을 어려워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그런 구별을 잘하므로 소통의 첫 단계부터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남한에서 높임법 '-시-'를 많이 씀도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질적이다. 남한에서 '식사하셨습니까?' 하는데, 북한에서는 '식사했습니까?'라고 하여 자칫 경로 의식이나 상대에 대한 예의가 부족해 보이기 쉬우나 이는 화법의 차이인 것이다. 북한에서 함경북도 쪽은 특히 '-요'를 안 쓴다고 한다. 아랫사람들이라도 반말하기는 주의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에 익숙하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상대를 높이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대비가 된다.

(2) 북한에서는 윗사람에게도 사용되는 청유문 '-ㅂ시다'가 남한에서는 동료나 동년배에게만 사용되고, 북한에서는 아랫사람에게 쓰는 명령문 '-해라'가 남한에서는 '-해'로 사용된다. 북한어의 표현은 직설적인데 한국에서는 완곡 표

현이 많다. 남한 사람들의 완곡한 거절, 간접 화행의 언어 방식이 북한어에서는 직설적으로 발화되어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이 직설적이라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며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져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나 '죄송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잘못했다'라는 말이 더 잘 나온다고 한다(양수경 2009).

3.4. 전문용어 연구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어보다 전문어에서의 차이가 더 심각하다. 오랜 세월 전문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 전문 분야마다 남북 간에 쓰이는 전문용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남북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 전문용어의 통일은 교육 부문에서는 학술용어의 통일 문제로 나타난다.

한용운(2013)에 따르면 일반어와 전문어의 관점에서 볼 때, ≪표대(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는 192,208개이고 ≪조대(조선말대사전)≫의 전문어는 43,079개이다. ≪표대≫의 전문어 192,208개도 ≪표대≫에만 있는 것은 126,232개이고 ≪조대≫에만 있는 것은 65,976개로 ≪조대≫에도 중복 등재된 것은 60,256개가 되어 47.7%의 일치도를 보인다.

≪조대≫의 전문어 43,079개도 ≪조대≫에만 있는 것은 25,726개이고, ≪표대≫에도 중복으로 있는 것은 17,353개로 40.2%의 일치도를 보인다. 결국 ≪표대≫에만 있는 126,232개나 ≪조대≫에만 있는 25,726개는 남북 전문어의 이질성을 더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문어 영역은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표대(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영역은 53개, ≪조대(조선말대사전)≫의 전문어 영역은 47개로, 두 사전의 전문 영역 분류에는 차이가 있다. ≪표대≫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그리고 '고유명사', '인명', '지명', '책명',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정치' 등의 전문어 46,446개가 ≪조대≫에서는 이들 영역의 어휘를 일반어 9,721개 정도로만 등재하고 있다고 한다(한용운 2013).

전문용어에서 두음법칙, 사이시옷, 자음과 모음과 받침과 같은 표기법의 이질성은 표기법의 통일로 해결할 사항이다. '폐(남) ↔ 페(북)'와 같은 모음의 통일이라든가,

‘탯줄(남) ↔ 태줄(북)’, ‘핏줄(남) ↔ 피줄(북)’, ‘극댓값(남) ↔ 극대값(북)’, ‘극솟값(남) ↔ 극소값(북)’, ‘근삿값(남) ↔ 근사값(북)’, ‘대푯값(남) ↔ 대표값(북)’과 같은 사이시옷 표기의 통일이 그런 대상이다. 가장 큰 전문용어의 문제는 개념적 통일, 순화어 통일, 외래어 표기법 통일의 문제이다. 다음은 국립국어원(2007)에서 드러난 전문용어의 사례를 일부 뽑아 온 것이다.

(ㄱ) 개념적 통일 문제(역사 영역)

남	북
6.10 만세 운동	6.10 만세 시위 투쟁
6.25 전쟁	조국 해방 전쟁
갑신정변	갑신정변 1884년 부르죠아 개혁
갑오개혁	갑오개혁 1894년 부르죠아 개혁
고려청자	고려비색자기
만적의 난	개경노비들의 투쟁

(ㄴ) 순화어 문제(수학, 과학 등)

남	북
가감법	더덜기법
가로	너비
경사각	비탈각
강제진동	강제떨기
강한 상호작용	센호상작용
근친교잡	가까운갈래섞붙임

(ㄷ) 외래어 표기 문제(수학, 과학 등)

남	북
농축우라늄	농축우라니움
뉴턴 역학	뉴톤 력학
뉴턴의 냉각 법칙	뉴톤의 랭각법칙
로렌츠 힘	로렌쯔 힘
뢴트겐	렌트겐
에너지	에네르기

킬로그램	키로그람
트랙터(tractor)	뜨락또르(трактор)
듀엣(duet)	두에토(duetto)

역사의 경우는 체제 이념 문제가 관계된다. 순화어의 경우는 실용의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ㄷ)과 같은 외래어 표기의 통일이므로 남북 협력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ㄴ)의 경우 북한어에서도 무리한 고유어로의 순화어가 정착되지 않아 다시 한자어로 복귀한 다음의 경우도 있으므로 무리한 고유어 순화보다는 실용적 한자어의 통용을 굳이 거부할 일은 아니다(국립국어원 2007).

- 셈따지기(1993년)	→ 검산(2002년, 1학년 9쪽)
- 짝진 복소수(1993년)	→ 공액복소수(2002년, 5학년 20쪽)
- 등진사건(1993년)	→ 배반사건(2002년, 6학년 21쪽)
- 닿이선(1993년)	→ 접선(2002년, 2학년 142쪽)
- 아낙닿이(1993년)	→ 내접(2002년, 3학년 164, 166쪽)
- 꼭두점(1993년)	→ 정점(頂點)(2002년, 5학년 96쪽)
- 무이(1993년)	→ 조합(2002년, 6학년 3쪽)
- 매인변수(1993년)	→ 종속변수(2002년, 5학년 5쪽)
- 어깨수(1993년)	→ 지수(2002년, 1학년 11쪽)
- 모임점(1993년)	→ 초점(2002년, 6학년 48쪽)
- 긴원(1993년)	→ 타원(2002년, 6학년 48쪽)
- 팔매선(1993년)	→ 포물선(2002년, 3학년 147쪽)
- 옹근모임(1993년)	→ 전체모임(2002년, 5학년 79쪽)

이미 북한에서는 '득점'이라는 체육 용어 대신 '꼴인'으로 되돌린 것처럼 쉬운 말 우선의 원칙보다 대중에게 통용되는 용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언어 현실을 고려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국립국어원 2007:87).

전문용어의 문제 중의 하나는 전문용어 띄어쓰기 문제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띄어쓰기는 복잡다단하다. 일반어의 띄어쓰기도 '냇가, 강가 - 건물 가, 한강 가', '손끝 - 가지 끝'을 구별하고, '봄바람, 가을바람, 봄소식'은 붙이지만 '가을 소식'은 아직 합성어

가 아니라 사전에도 오르지 않아 띄어 쓴다는 문법 의식을 이해할 언중은 많지 않다.

특히 '한글 맞춤법'(1988) 총론에서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50항에서는 전문용어를 합성어로 볼 가능성이 높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전문용어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쓸 수 있다고 하여 총론과 충돌을 빚어 더 까다롭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처리에 세 유형이 있다.

(ㄱ)류는 품사 표시 없는 전문용어로 띄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 표시가 붙어 있다.

(ㄱ) 무품사 전문용어

경제^가치(經濟價値) 『경제』 경제 활동에 따라 생겨나는, 재화의 가치.

경제^개발(經濟開發) 『정치』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

경제^개발^오^개년^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 『정치』 우리나라에서 국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행한 경제 계획.[8)]

경험주의^법학(經驗主義法學) 『법률』 경험 과학을 토대로 하여 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을 사회 통제의 기술로 파악하고, 행동 과학과 기호 논리학을 응용하여 재판 과정의 분석과 법조문 따위의 의미론적 연구를 주로 한다.[9)]

그런데 전문용어 표시가 있는데도 ^ 표시가 없이 합성어로 된 (ㄴ)류가 있다. 이들은 품사 표시가 붙어 있다.

(ㄴ) 품사 표시 전문용어

경제-사상(經濟思想) 「명사」 『경제』 인류가 재화를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사상.

경제-생활(經濟生活) 「명사」 『경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

8) '경제 개발, 경제 개발 오개년 계획'은 경제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전은 정치 전문어로 처리하였다. 앞으로 개방형 지식대사전을 만들 때 전문어 개념과 분류는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

9) 다음과 같이 구형(句形) 구성인 무품사 전문용어 중에는 ^ 표시가 없는 (ㄱ)의 변종 유형도 있다.
경험적 확률(經驗的確率) 『수학』 통계적 확률(시행 횟수를 충분히 했을 때에,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집적하는 경향을 보이는 일정한 값).
경험과 자연 (經驗-自然) <책명> 1929년에 미국의 듀이가 자연주의 이론을 밝힌 책.

그런데 다음 (ㄷ)처럼 전문용어로 보이는데도 전문용어 표시가 없는 단순 합성어도 있다.

(ㄷ) 품사 표시 전문용어성 일반어

경제-관념(經濟觀念)「명사」재화나 노력, 시간 따위를 유효하게 쓰려고 하는 생각.

경제-속도(經濟速度)「명사」자동차, 항공기 따위의 탈것이 연료를 되도록 적게 소비하여 가장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속도. ≒경제속력.

경제-평화(經濟平和)「명사」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 국제 경제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와 같이 세 유형을 보이는데 언중은 물론 전문가도 위 세 유형을 구별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으로는 위 (ㄱ), (ㄴ), (ㄷ) 사례들은 모두 전문용어로 보아 50항 규정대로 품사 표시 없이 (ㄱ)으로 하거나 품사 표시를 한 (ㄴ)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관된 처리라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전문용어의 띄어쓰기에는 다음과 같이 구형(句形) 또는 문장형 전문용어류도 있어 이들의 띄어쓰기 문제도 있다.

① 접속 조사 및 접속 부사로 연결되는 구성의 경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② 관형격 조사 '-의'의 수식을 받는 구성의 경우: 패러데이의 법칙
③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꾸밈을 받는 경우:
간단한 도면 그리기,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④ 책 제목이나 예술 작품명: 김 강사와 T 교수, 메밀꽃 필 무렵

위의 구형, 문장형 전문용어는 앞의 (ㄱ)처럼 무품사로 하고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3.5. 역사 말뭉치 구축과 고전 주석 사업

남북 간에 대규모로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국어사 말뭉치 구축과 문헌 작업 주석 사업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고전 주석 작업을 꾸준히 해 온 편이고 국립국어원에서도 부분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어 역사 문헌 자료의 현대어 번역, 정보 디지털화는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령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는 충신, 열녀, 효자 1,587명을 일일이 기록한 대작으로 아직 현대어 번역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2013년에 1차로 추진하였는데 이것을 완역하려면 수년간 소요될 것이다. 다음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현대어 주석 작업의 예이다.

%1 순신역전(舜臣力戰)
%2 동국신속삼강행실도(충신) 권1 90ㄱ
%3 이순신 장군이 힘써 싸우다
%4 [현대어역]
통제사 이순신은 아산현 사람이니 지용(智勇)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임진왜란의 통제사가 되어 구선(龜船,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쳐 여러 번 이겼다. 무술년(戊戌年, 1598) 겨울에 주사를 거느리고 도적으로 더불어 남해 섬 바다 가운데 가 크게 싸워 상승세를 타서 물러가는 적군을 뒤쫓아 따라가다가 날아오는 탄환을 맞아 죽기에 이르러 좌우더러 일러 가로되 “삼가 발상(發喪)치 말고 기(旗)를 두르고 북을 울려 나를 살아 있을 적같이 하라” 하거늘 그 말대로 하여 마침내 크게 이기어 돌아왔다. 소경대왕이 공을 기록하고 증직(贈職)하셨다. 이에 조정에서 표창하여 정문을 세우셨다.

%5 [언해문]
%5-1 통졔ᄉᆞ %5-2 니슌신은 %5-3 아산현 사ᄅᆞᆷ이니 %5-4 디용이 %5-5 사ᄅᆞᆷ의게 %5-6 넘더라 임진왜난의 통졔시 되어 %5-7 구션을 %5-8 밍ᄀᆞ라 %5-9 예ᄅᆞᆯ 텨 여러 번 %5-10 이긔다 %5-11 무슐년 %5-12 겨을히 %5-13 쥬ᄉᆞᄅᆞᆯ 거ᄂᆞ리고 도적으로 더브러 %5-14 남히 셤 %5-15 바닫 가온대 가 %5-16 크기 %5-17 사화 %5-18 이긔기ᄅᆞᆯ 타셔 %5-19 므ᄅᆞ조쳐 %5-20 가ᄂᆞ리ᄅᆞᆯ %5-21 ᄲᅩᆯ오다가 슌신이 %5-22 ᄂᆞᄂᆞᆫ %5-23 텰환의 %5-24 마ᄌᆞᆫ 배 되여 죽기예 %5-

25 님ᄒᆞ여 %5-26 좌우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삼가 %5-27 발상티 마오 %5-28 긔ᄅᆞᆯ %5-29 두ᄅᆞ고 %5-30 붑을 울려 날 %5-31 사라실 적ᄀᆞ티 ᄒᆞ라 ᄒᆞ야ᄂᆞᆯ 그 말대로 ᄒᆞ야 ᄆᆞᄎᆞᆷ내 %5-32 크기 이긔여 %5-33 도라오다 %5-34 쇼경대왕이 %5-35 녹공 %5-36 증직ᄒᆞ시고 %5-37 금 샹됴의 %5-38 졍문ᄒᆞ시니라

%6 [한문]

統制使李舜臣牙山縣人 智勇過人 壬辰倭亂爲統制使 作龜船擊倭累捷 戊戌冬率舟師 與賊大戰于南海洋中乘勝逐北 舜臣爲飛丸所中險絕 謂左右曰 愼勿發喪揚旌鳴鼓 猶我之生如其言 竟大捷而還 昭敬大王錄功贈職令 上朝旌門

%8 [직역문]

통제사 이순신은 아산현 사람이니 지용(智勇)이 사람에게 넘더라 임진왜란의 통제사가 되어 구선(龜船, 거북선)을 만들어 예(왜적)을 쳐 여러 번 이기다. 무술년(戊戌年, 1598) 겨울에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도적으로 더불어 남해 섬 바다 가운데 가 크게 싸워 이기기를 타서 물러나 쫓아 나리(패주하는 적군)를 따르다가 순신이 나는(날아오는) 철환(鐵丸)에 맞은바 되어 죽기에 임하여 좌우더러 일러 가로되 삼가 발상(發喪)치 마오. 기(旗)를 두르고 북을 울려 나를 살아 있을 적 같이 하라 하거늘 그 말대로 하여 마침내 크게 이기어 돌아오다. 소경대왕이 녹공(錄功) 증직(贈職)하시고 금 상조에 정문하시니라

4. 국제화 시대와 남북 언어 통합의 전망

남북은 한국어의 국제화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어에 대한 국제적 기대는 높은데 다음과 같은 것이 미비하다면 한국어의 국제화는 그만큼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 한국어의 입문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모 순서, 표준 발음이 남북이 달라 혼란스럽다.
- 한국어의 품사, 문법 용어가 남북 사전이나 교재에서 달라 혼란스럽다.
- 남북한에서 나온 외래어 표기나 로마자 표기가 남북한이 달라 혼란스럽다.
- 남북한에서 나오는 컴퓨터 자판이나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에서 용법이 달라 혼란스럽다.

위와 같은 불만은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처럼 남북한 양쪽의 언어에 다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특히 높다. 이들 외국 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남북의 언어 규범 표준화 통일 사업은 긴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말의 위상에 걸맞게 통일 한국의 인류사적,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의 위상에 맞는 한국어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 21세기에 한국어가 국제화하여 제 역할을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4.1.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1)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벵갈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이은 13위권의 대국언어이다(남 5천만, 북 2300만, 해외 750만). 전 세계 60%는 다중언어사회에 살고 있고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언어를 익혀야 경제생활을 한다. 한국 내 150만 외국인이 있으며 매년 2만 명이 귀화 신청을 한다.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인원이 120만을 돌파하였다. 영어 산업이 영국의 2위 산업이듯이 21세기는 한국어 산업화, 한국어 문화화가 요구된다(한국어 교육산업,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 한류, 한국학 등).

(2) 유엔 통용어: 유엔의 6대 통용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인데 앞으로 한국어도 들어갈 것이다. 2007년에 유엔에서 10대 실용어를 발표(영어, 일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2039년에는 중국어가 세계통용어가 된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세계 5위의 특허출원국인 한국에 주목하여 한국어를 WIPO 특허 공식 번역 10언어에 포함시켰다. 이는 모든 특허를 등록할 때 이 10대 언어로 번역해 등록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3) 20-50클럽 가입: 언어의 경제적 가치는 국가적 위상과 비례한다. 한국은 20-50 클럽(2만 달러 5천만 인구 달성 국가)에 가입한 일곱 번째 국가이다.[10] 특히 한국은 7개국 중에 최소 인구 5천만으로 도달하였다. 이는 5천만 인구로 2만

10) 1위: 1987년 일본. 2위: 1988년 미국. 3위/4위: 1990년 프랑스/이탈리아. 5위: 1991년 독일. 6위: 1996년 영국. 7위: 2012년 한국.

달러 국민소득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지난한 일임을 보여 준다.

(4) 무역 1조 달러 달성: 한국은 2011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수출 5150억불, 수입 4850억불).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 산업과 중화학 공업, 방위 산업 등의 활성화로 2011년 이래 무역 1조 달러를 연속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한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 이 순위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IT,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은 세계 5위권 이내에 들어 있으며, 1961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7.1%에 이르러 세계 174개국 중 1위를 기록하였다.

4.2. 중국과 조선족 사회의 역할

한국의 고도성장 덕분에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져 한류 문화도 열풍을 일으키고 덩달아 한국문화를 알고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류와 한국어 학습은 뜨겁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이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잇는 세계 최다 경제 인구 공동체가 될 것이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중요도는 더 높아진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를 이중언어 환경으로 배우고 자란 조선족사회는 큰 도약의 시기를 맞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전통적 문화 교린국가이다. 한국은 중국의 문물 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 통일신라 시기까지는 전쟁과 대립의 시기들도 있었지만 676년 통일신라 이후에는 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번영을 이루어 왔는데[11] 1910년 조선 멸망의 시기까지 1200여 년간 이런 교린 관계는 전 세계에서 흔치 않다.

이런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이룸으로써 문화적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그 평화적 공존이 조선 말기까지 이르는데 이런 밀월관계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 유례

11)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당 태종 앞에서 한 다음의 보고는 향후 양국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보고가 되었다.
"신라는 인군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기를 父兄과 같이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 없습니다."(삼국사기, 김유신전)

를 찾아볼 수 없다. 양국의 오랜 공존과 번영의 질서에 도전한 것이 일본의 임진왜란(1592)이요 청일전쟁(1894)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시대에 전통적 우호 국가로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류 협력해 번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세우고 양국이 공동 기념하게 됨은 좋은 일이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작인 '동양평화론'(1910)의 정신에 입각해 한중일 삼국이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공동체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 3개국어를 제2 외국어 필수 수준으로 격상하는 노력도 나타날 것이다.

한편,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조선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립국어원(2013)에서는 재중동포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한족(漢族)과 같이 살다 보니 직접 또는 간접 한어(漢語) 차용도 극심하다. 한어를 조선한자음으로 직접 차용하는 경우인 '생활수평, 공인, 공자, 주숙비, 판공실, 후조/호조(여권), 좌우(전후)' 등이라든가, 한어 발음 그대로 간접 차용하는 '땐쓰, 땐노, 쌍발, 싸발' 등을 들 수 있다. 경운기는 러시아계인 '뜨락또르', 한어계인 '스프트라지'가 같이 쓰인다. 냉장고는 '삥샹, 덴삥샹, 냉장고'가 같이 쓰인다.

재중동포는 모어를 조선어로 생각하는 이가 80%, 중국어로 생각하는 이가 10.3% 수준이라 아직 다수는 조선어를 모어로 생각한다. 일상 제1언어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5.5%, 중국어를 쓰는 비율이 30.7%로 나온다. 가정에서의 언어는 조선어가 75.8%, 중국어가 20.3%로 나온다. 한족어가 가정에서도 20%를 넘어선 것은 앞으로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선어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선어 전승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목할 것은 배우자의 한족 비율이 3.7%이고 점증하고 있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한족 학교에 다니는 조선족이 증가하고 있어 조선어 보전에 부정적이다.

가족 간에도 윗세대에게는 조선어를 쓰고 아랫세대에게는 중국어로 쓰는 경향이 커져서 중국어 사용은 점증할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요령성, 흑룡강성에서는 가족 간에도 조선어 사용이 적어지는 경향이다. 한국 TV 시청은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보지 않는 이가 27.1%라 3/4은 한국 방송을 시청하고 1-2시간 시청자가 48.1%에 달하고 요령성 동포들이 시청률이 높다. 특히 은퇴 후 여유가 있는 노년층일수록 시청률은 높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이중언어 사회로서의 조선족 사회가 조선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족의 번영은 물론 중국의 번영을 종국에는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나라의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바른 인생의 길, 국가가 가야 할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실행할수록 나라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 선진국은 인간 존중의 문화가 뛰어나고 교육 제도가 강한 나라이다. 그 교육의 내용에서 으뜸이 올바른 언어교육이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야말로 성현의 경전을 통한 언어교육을 중시하는 유구한 전통이 있어 왔기에 선진국이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남북은 속히 분단을 종식시키고 갈등과 대립의 언어를 청산해야 한다. '①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정신(자주, 애민, 실용), ② 주시경의 애국 계몽정신, ③ 조선어학회의 국어수호와 항일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남북이 공유한다면 남북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울러 한, 중, 일의 동아시아인들은 갈등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잃어버린 동아시아의 인문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인문정신의 회복은 경전의 교육이다. 경전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의 영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의 인문정신을 보여 준다. 다행히 우리 민족은 불경, 사서삼경, 성경 등 허다한 경전의 번역 수용에 열심이었다.

오늘날 인륜의 파괴나 문명의 야만화는 성현들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을 소홀히 한 탓이다. 인문정신을 잃어버린 때에는 동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쇠락과 망국의 길을 걸었다. 남북의 한국어를 다시 부흥시키는 길은 한국어 경전이나 고전의 연구, 주석 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 남북 통합을 위한 국어 규범의 통일, 문법의 통일,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 및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담화 소통 문제의 해결,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사 자료 주석과 국어정보화 등도 꽃을 피울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더욱 발전하고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한 가족이 만날 수 없는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이런 한반도를 이웃하는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의 통일로 더욱 번영하는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안중근 의사가 추구한 '동양평화론'의 이상이 실현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1989),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2),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고영근(1994), 통일시대 어문문제, 길벗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 출판부

국립국어원(2005, 2010), 국민의 언어의식조사

국립국어원(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2013), 재중동포언어 실태조사

권재일(2008), 남북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4, 녹진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 출판부

김주성(2014), 북한 이탈주민의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민현식(2002),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10, 한국어의미학회

민현식(2010),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표준 한국어의 수립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주최 '남북언어통합과 재일동포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민현식(2013),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언어정책의 방향, 국어국문학 164호, 국어국문학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편(2010),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채륜

양수경(2009), 새터민 언어 적응 문제와 교육 방안,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양수경(2013) 북한 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염돈재(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최경봉(2012), 한글민주주의, 책과 함께

최현배(1930, 1971), 조선 민족 갱생의 도, 정음사

최현배(1937, 1975), 우리말본, 정음사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주최 남북 언어통합(언어접촉과 언어변이) 학술회의 논문집

홍종선(2009), 남과 북의 통합 국어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주 제 발 표

중국 조선족 언어와 언어문화의 전망과 과제

김 영 수
연변대학교

중국 조선족 언어와 언어문화의 전망과 과제

김 영 수 (연변대학교)

1. 들어가기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민족을 중국에서는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조선족으로 통칭하고 한국과 조선에서는 교포, 재중교포 또는 재중동포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의 조선족은 한(조선)반도의 민족과 같은 언어와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는 동시에 중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중화민족의 특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이와 같은 특징은 일조일석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조선족의 이민 역사에 대해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본격적인 이민은 1910년 한일합방 전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은 이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본민족의 고유한 언어문화와 전통을 영위하는 동시에 기타 형제민족들과 함께 중국의 동북 변방을 개간하고 가꾸었으며 반일투쟁과 해방전쟁에 피를 흘리였고 사회주의건설에 땀을 흘리면서 중화민족의 공유한 특징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배려하에 조선민족의 교육기관과 신문 방송, 출판 등 민족언어의 사용과 연구단체들을 세우고 조선언어문자와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중국에서의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하여 왔다.

본문에서는 건국이래 조선족의 인구 분포, 조선언어문자교육과 사용, 연구실태를 고찰함과 아울러 조선언어문자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발전전망에 대해 필자의 미숙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2. 중국 조선족 기본 좌표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 땅에 뿌리를 내려 이미 4,5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 사이에 두 차례의 비교적 큰 인구 유동이 있었는데 한번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광복을 맞이하면서 당시 216만을[1] 헤아리던 조선족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가량 한(조선)반도로 돌아갔고[2] 또 한번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 중한수교를 계기로 동북3성에 집거하던 조선족들 가운데서 무려 24만여명이 산해관 이남으로 이주하였다. 두번째 이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시장화, 세계화의 흐름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더불어 조선족들에게 취직, 생활 등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약 183만여명으로서[3] 중국 총인구의 0.14%를 차지하는데 56개 민족 가운데서 13번째 순위에 있다. 2010년 전국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길림성에 104만여명, 흑룡강성에 32만여명, 요녕성에 23만여명, 산해관이남 즉 북경, 상해, 산동, 광동 등 지역에 24만여명이 분포되어 있다.

교육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정착할 때부터 민족의 언어문자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최초의 서전서숙[4]으로부터도 이미 100여년의 학교교육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60여년래 우리 민족은 당과 정부의 민족정책의 배려 하에 원 조선족의 대집거 또는 소집거구인 동북3성의 여러 지역들에 조선족 중소학교들을 세우고 우리 말과 글로 민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언어문자와 문화전통을 계승하였을뿐만 아니라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였고 소학교, 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에까지 이르는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종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하여 1993년 중국 곤명에서 진행한 중국 최초의 소수민족인구국제연구토론회에서 중국 56개 민족중 문화자질이 가장 높으며 이미 세계선진국가의 수준에 접근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5]

---

1) 《조선년감》 1948년판 참조.
2) 황유복선생의 "조선족정체성에 대한 담론"에서 인용.
3)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조사통계 참조.
4) 서전서숙(瑞甸書塾)은 리상설 등이 1907년 중국 룡정에 세운 최초의 조선민족의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이다.
5) 허명철 등 "연변조선족교육의 실태조사와 대안연구"에서 인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고속적인 발전과 정보화, 세계화 추세는 조선족사회의 의식형태와 구조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향토애, 민족집거 의식이 약화되면서 인구유동이 빈번해지고 원 조선족 집거구의 조선족 인구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조선족의 중소학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의 교육, 보급, 사용은 의연히 살아있다. 조사에 의하면 조선족의 주요한 집거구인 길림성에 조선족 중소학교가 130개 있고 흑룡강성에 48개, 요녕성에 38개 , 내몽골자치구에 3개 있다[6]. 동시에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하는 매체들로 방송국 12개[7], 출판사 6개[8], 신문사 6개[9], 잡지 22종[10]이 있다.

중국땅에서 우리 민족은 불과 0.14%도 못되는 인구지만 상술한 민족교육체계와 합법적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매체들이 있기에 통용어인 한어의 거센 충격속에서도 줄곧 민족의 상징으로 되는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켰으며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3. 조선어와 조선어연구 실태

중국에서의 조선어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한(조선)반도와 한 맥락에서 이어졌고 건국초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오봉협선생의 《한글하토기원설》과 같은 무게 있는 논문들이 가끔 나오긴 하였지만 주로 문법교육보급과 문법체계를 확립하는 시기로서 연변대학교의 조선어강좌에서 편찬한 조선어 《형태론》(1972년), 《어음론》(1973년), 《문장론》(1974년) 등 조선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교과서들이

6) "동북3성중소학교조선어문교재편역협의소조"의 통계.

7)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국제방송국 조선어방송, 흑룡강방송국 조선어방송, 연변인민방송국, 연변인민라지오방송국,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연변라지오방송국, 연길텔레비죤방송국, 요녕환인현방송국 조선어방송, 요녕신빈현방송국 조선어방송, 장백조선족자치현 라지오방송국, 산동성 청도방송국 조선어방송 등.

8) 연변교육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흑룡강민족출판사, 요녕민족출판사, 중앙민족출판사 등.

9) 연변일보사, 중국조선족소년보사, 동북조선족과학기술보사, 길림조선문신문사, 흑룡강조선문신문사, 요녕조선문신문사 등.

10) 중국조선어문, 지부생활, 동북후비군, 대중과학, 동방의학과 건강, 노년세계, 문화시대, 법률과 생활, 소년아동, 소학생한어작문, 아동과학, 아동문학, 연변여성, 연변문학, 연변음악, 예술세계, 중학생, 청년생활, 농가, 도라지, 장백산, 꽃동산

있을뿐 연구분야가 그닥 넓지 못하고 심도 깊은 성과들도 많지 못한 편이였다.[11)]

조선어와 조선어 관련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지난 세기 80년 후부터였다. 이때로부터 개혁개방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방법론들이 도입되고 사상해방이 이루어지면서 학술연구가 일신하게 되었는데 조선어본체론연구, 언어이론과 응용언어학연구, 외국어로서의 조선어(한국어)교육연구, 조선어규범화연구, 사전편찬 등에서 많은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3.1. 조선어본체론연구

조선어본체론연구에서 중국조선어의 문법체계를 확립한 문법서로서는 최윤갑선생의 "어음론, 문법론, 문장론"으로 구성된 《조선어문법》(1980)을 들 수 있다. 이외 조선어문법과 관련된 저서로 《조선어실용문법》, 《현대조선어》, 《조선어어학원론》 등이 있고 어휘론, 의미론 연구에는 최응구선생의 《조선어어휘론》, 전학석선생의 《조선어의성의태어》, 류은종선생의 《조선어의미론연구》 등 저서들이 있으며 문체론, 수사학 방면에는 고대로부터 19세기중엽까지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어 문체론적 수단과 수법의 변화 발전 과정을 기술한 김기종선생의 《조선어 문체론적 수단과 수법의 역사적 발전》과 《조선어문체론》, 《조선어수사학》, 《조선어문체론개설》 등 저서들이 있다. 조선어사연구에는 조선어 어휘와 어음계통에 대한 한어의 영향을 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고 양국에서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 형성된 언어문자의 상호 교류와 상호 영향, 상호 침투의 관계를 분석, 기술한 리득춘선생의 《한중언어문자관계사연구》를 비롯하여 《조선어발달사》, 《중세조선어문법》, 《조선어어휘사》 등 저서들이 있다. 그리고 방언연구에는 조선반도의 동부와 서부 방언을 비교, 분석하고 그 같은점과 차이점을 밝힌 황대화선생의 《동해안방언연구》와 《조선어방언학》, 《함경도 방언의 음조연구》, 《함경북부방언연구》 등 저서들이 있다.

본체론연구에서 보면 현대조선어문법, 중세조선어, 어사 등 면에서 비교적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의미론, 수사학, 방언연구에서는 연구대오, 심도 등 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다.

11) "중국에서의 조선어 연구 현황과 전망" 《중국조선어문》(2014.2) 참조.

3.2. 언어이론과 응용언어학연구

일반언어학과 응용언어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언어이론과 방법론으로 조선어를 조명하는 연구성과들이 적잖게 배출되었다. 우선 일반언어학 이론에 대한 연구로 언어와 언어학의 관계, 언어의 기원과 변화발전, 언어학과 인접과학 등 언어이론의 발전을 통속적으로 다룬 전학석과 김철준선생의 《언어학개론》 외에 《언어학강의》, 《현대언어학》 등 이름으로 나온 저서들이 있고 응용언어학에 속하는 연구로 《언어와 례절》, 《교제언어학》, 《사회언어학》, 《현대응용언어학》, 《사회언어학》, 《조선어연결어미 환경론》, 《현대한국어동사 의미결합관계연구》 등 저서들이 있다.

조선어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언어로서 공용어인 한어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접촉언어학의 시각에서나 대비언어학 시각 또는 번역학의 입장에서 연구한 저서들이 있는데 리득춘선생의 《중조언어문자관계사》를 비롯하여 《조선운서에 반영된 명청 음계연구》, 《조선중세기 한문번역본의 언어사적 연구》, 《조선어와 일본어의 한자비교연구》, 《한영 시태 대비연구》, 《한조번역이론연구》 등 수십편의 연구저서들이 있는데 응용언어학이론을 도입하여 조선어를 연구하는 영역과 번역영역에서 성과가 돌출한 반면에 음성대조연구가 비교적 결핍하다고 할 수 있다.

3.3. 외국어로서의 조선어(한국어)교육연구

중국에서 조선어연구라고 하면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한국어)교육도 빼어놓을 수 없다. 초기에는 주로 교재편찬을 위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제2언어로서의 문법교육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우선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중한수교 전에는 북의 규범을 따르는 조선어교육으로 되었다가 중한수교후부터 한국어교육으로 과도하였다. 따라서 지난 세기 60년대와 80년대에는 주로 《조선어간이회화》(최길원 등 1965), 《조선어자습독본(1,2,3)》(서영섭 등, 1974, 1975, 1980), 《조선어방송강좌(1,2,3)》(리득춘 등, 1981, 1982, 1983) 등 교재들이 출판되었고 중한수교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초급한국어》(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2000), 《초급한국어(상, 하)》(최희수 등, 2000), 《한국어문법》(최윤갑, 2000), 《한국어교육연구》(유춘희, 2001), 《한국어표준문법》(리득춘

등, 2002), 《신편한국어실용문법》(위욱승 등, 2006), 《한국어개론》(전병선, 2007), 《한국어실용문법자전》(허동진 등, 2009) 등 문법저서와 교과서들이 육속 나왔고 지금도 새로운 한국어교과서거나 연구저서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외국어로서어의 한국어교육을 보면 초급단계의 교과서들이 많이 편찬되었고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문법 대조연구에 관한 논문과 교수법을 논의한 논문들이 많은 반면에 고급단계의 교과서거나 외국어로서의 문법연구가 그닥 활성화되지 못한 부족점을 보이고 있다.

3.4. 조선어의 규범화와 사전편찬

중국조선어규범화사업은 1977년 5월의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지도소조》가 성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북의 규범을 따르면서 가끔 한자어휘나 띄어쓰기 같은 것을 규범하는 정도였다. 1977년 8월 흑룡강성 해림에서 열린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1차 실무회의에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어맞춤법, 조선말띄어쓰기, 문장부호법” 4법이 채택되고, 그해 11월에 《조선말규법집》(의견청취고, 초고, 시용방안)이 출판되었고 1983년 8월 할빈에서 열린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6차 실무회의에서 채택되어 1985년 1월에 《조선말규법집》이 정식 출판되었다. 1986년 12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사정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규범화사업이 진행되었고 1988년 7월,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 사업 조례》가 채택되고 1989년 8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조선어문 학습과 사용의 상벌규정》이 반포되면서 중국에서의 조선어문사업은 법적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25차실무회의를 열고 선후로 조선어“4법”규범, 명사, 술어규범원칙, 어휘규범세칙, 방언어휘규범원칙, 자연과학기술용어규범원칙, 한어어휘에 대한 조선어표기법, 외국어표기법, 외래어표기세칙, 지명표기세칙, 법률용어통일안, 정보처리용어통일안, 외국인명표기세칙 등 각항 규범원칙들을 채택하였고 기본어휘를 위주로 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영역의 1만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용어들을 규범하였고 1996년에 《조선말규법집(수정본)》을 출판하였다. 2006년 10월 제19차 실무회의에서는 “4법”을 “4칙”으로 개칭하고 1996년의 《조선말규법집(수정본)》의 부분적 내용을 수정하고 2007년에 중

국조선어사정위원회편《조선말규법집》을 출판하면서 이 규범집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 것이므로 국내 조선어사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규범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전편찬도 활기를 띠게 되어 연변언어연구소편으로 대형《조선말사전(1, 2, 3)》(1992, 1995)을 비롯하여《조선말새말사전》,《조선말속담사전》,《조선말반의어사전》등 사전들이 출판되면서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규범화와 옳바른 사용 및 보급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4. 조선어의 사용 실태와 원인분석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은 상술한 정부의 정책이 있고 조선어를 가르치는 민족학교와 조선어를 사용하는 신문, 방송, 출판과 같은 매체 그리고 조선어를 연구하는 대학교, 연구소 같은 단체들이 있어 법적 보장이 있고 발전할수 있는 조건도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어의 실제 사용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조선언어문자의 교육, 사용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지난 세기 50, 60년대에 이미 중소학교교육이 보급되어 촌마다 소학교, 향마다 중학교가 있었지만 최근년에 들어서서는 학교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9년전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조선족 중소학교가 무려 562개가 있었지만 금년의 통계에 의하면 219개로 347개 학교가 폐교 또는 합병되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는 한어와 조선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되었지만 몇 개 단위 외에는 거의 다 일색 한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에서도 조선족학교보다 한족학교를 더 선호하고 있다. 금년 즉 2014년 대학입시만 보더라도 아주 심각히 제기되는 문제이다. 금년 연변주의 대학입시수험생은 총 1만 812명인데 그중 조선어수험생은 1,941명으로 지난해보다 346명이 줄어들었다.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어수험생이 5,000명을 웃돌았으나 그후부터는 해마다 감소되어 금년에는 2,000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반면에 한어로 시험친 수험생 8,871명 중 조선족이 1,019명으로서 한족학교로 가는 자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12] 이와 같은 수치는 중국에서의 조선어 교육, 사용

공간이 좁혀지고 있으며 조선어의 위치가 하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입말에서 조선어에 한어어휘를 남용하는 현상이 비일비재이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이기에 이중언어사용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이중언어사용자라는 것은 두 언어를 다 능란하게 다루는 것을 말하지 조선어에 한어의 혼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조선족의 입말을 보면 특히 연변지구에서 알게 모르게 한어어휘를 그대로 음차하여 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창(机场), 제짠(接站), 댄차이(点菜), 써우지(手机), 땐츠(电池) , 쓰지(死机), 왠쟐(原件), 뽀우처(包车)" 같은 한어어휘가 대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부 한어어휘들을 즉석에서 대응되는 조선어로 구사할 수 없는 능력의 제한성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한어어휘를 그대로 쓰면 교제에도 편리하다는 이유가 안받침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어어휘를 그대로 음차하는 용법이 계속 지속된다면 중국의 조선어는 한어도 조선어도 아닌 잡종의 글로 되어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한국과 조선과도 소통에서의 언어장애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의 언어, 문화의 전통도 잃을 수 있다.

셋째, 표기법이 혼란하다. 중국의 조선어는 1992년 중한수교하기 전까지는 북의 규범과 비슷한 중국의 조선어규범을 따랐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과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중국의 조선어표기가 혼란해지고 있는데 적지 않은 신문, 방송 등 매체들에서 중국조선어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남과 중국조선어의 규범을 혼용하는 데서 출판도서에 한자혼용이 생기어 약자와 정자를 분별없이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남의 텔레비죤이나 신문, 잡지, 도서,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출판물에 남의 식도, 중국식도 아닌 어휘나 맞춤법들이 틀리게 쓰이는 현상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조선어의 규범에 없는 두음법칙과 사잇소리 표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중국의 인명, 지명을 한국을 따라 한어의 발음으로 표기하거나 외래어를 규범이 없이 쓰는 현상들이 비일비재이다. 중국조선어의 규범이 통제력이 약화되고 부동한 규범들이 혼용되는 현상들은 중국조선어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할 뿐만 아니라 조선어사용자들에게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12) 2014년 6월 9일 "연변일보"를 참조.

조선어사용에서 나타나는 상술한 문제들은 객관적으로 인기된 원인도 있고 주관적인 원인도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소수민족언어로서 조선족사회에서만 쓰이는 약세언어이고 한어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 사회의 통용어로서 강세언어이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강세언어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며 이에 따르는 약세언어의 위기도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강세언어에 기대는 것이 진학, 취직, 진급에 편리한 시점에서 조선족학교보다 한족학교를 선호하는 것을 무리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간다"는 한어의 속담처럼 조선족의 최대집거구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돈벌이를 위하여 연해지구거나 한국으로 가는 바람에 민족인구가 감소되고 따라서 조선어의 교육터전인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강세언어의 영향과 생존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서 생기는 조선어의 영향력 쇠태는 객관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어의 사용에서 한어어휘를 혼용하거나 조선어의 표기법이 혼란해지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관적인 원인들도 있다.

첫째, 학교교육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까지만도 조선족학교교육이 한족학교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주된 원인은 조선족학교의 교원들의 자질과 수준이 낮은데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소학교교원들에 대한 재충전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교원선발, 교원들에 대한 지식구조, 책임감 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여 학교교육에서 익혀야 할 조선어문지식이 결핍하여 순수한 조선어로 구사하고 교류하는 능력이 뒤떨어지고 아울러 조한혼용과 같은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규범화에 대한 선전, 조절, 통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언어와 규범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언어가 없으면 규범화가 있을 수 없고 규범화가 없는 언어는 교제작용을 놀 수 없기에 생존의 가치를 잃는다. 중국조선어에 대한 규범화작업은 이미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민의조사에 의하면 조선어문사업일군 중 지금도 30%이상이 중국조선어의 규범을 잘 모르고 있다.[13] 이는 규범화에 대한 홍

13) 연변주어문사업위원회의 프로젝트 "중국조선어규범화가 직면한 도전 및 대안연구"를 참조.

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는 고정불변할 수 없다. 특히 정보화, 세계화시대에서 언어도 변하기 마련이다. 규범화작업은 온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언어의 발전을 속박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때에 연구하고 토의하여 조절하여야 언어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방면에 대한 조절이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외 한자혼용이거나 외래어 남용 등 표기법의 혼란한 현상에 대한 통제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폐단도 있다.

셋째, 언어연구와 언어사용이 이탈되고 있다. 앞에서 조선어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논의한바 있듯이 조선어의 규범화에 관한 연구들이 적잖게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언어생활과 이탈되고 있는데 특히 언어사용부문과 관리부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는 효과없는 성과로 나가고 언어사용은 제멋대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5. 조선언어문자의 발전 대책

중국에서의 조선어 사용과 연구를 보면 성과도 있고 존재하는 문제점들도 적잖게 안고 있다. 조선언어문자의 올바른 사용과 정확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어의 현실태에 착안하여 조선어의 말과 글을 더 깊게 연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의 조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5.1. 학교교육의 강화

중소학교시절은 모국어습득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높여가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이 시기는 일생동안 소유해야 할 모국어의 어휘들과 표현을 거의 다 배우며 문법을 비롯한 모국어의 모든 사용규범과 규칙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중소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조선어 기본지식을 실속있게 전수하여 든든한 토대를 쌓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족 중소학교 교육과정안과 교수 등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조선민족어교육이 향하여야 할 바른 길과 방법을 제시하여 학교교육에 도입하여야 한다.

대학교교육은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부생과정, 대학원과정에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소유한 고급인재양성과 관련되는 과목들을 설정하여 국가기관, 중소학교, 대학교 및 신문, 방송, 출판 등 조선어와 관련되는 여러 부문에서 수요되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5.2. 언어와 문화에 대한 계승과 연구

조선어에 관한 연구실태를 보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법, 어사, 어휘, 문법대비, 번역 등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방언, 음성학, 수사학 등 연구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중국에서의 조선어연구는 마땅히 중국조선어의 실태에 착안하여 중국특색의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조선어의 사용과 발전에 유리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우선, 조선어의 본체론연구에 모를 박아야 한다. 한국과 조선의 연구성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여 중국조선어의 문법체계를 과학화하는 한편 언어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음성학연구, 방언연구, 수사학연구 등을 실속있게 깊이 진행하여야 하며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조선어의 옳바른 사용과 국제교류에 편리한 언어규범화작업을 다그쳐야 한다.

다음, 조선어와 기타 언어와의 관련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접촉언어학, 대조언어학, 화용론 등 응용언어학의 방법론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통용어인 한어와의 어음, 어휘, 문법 등 면에서의 공성과 차이를 밝히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언어의 내재적 변화규칙을 탐구함으로써 이중언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이론의거와 방법론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조선어의 언어적, 지리적 우세를 활용하여 국제화를 목표로 한 문헌자료, 대조언어자료 등을 망라한 말뭉치를 구축, 완벽화하여야 하며 중국조선어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3. 여러 부문의 협력

조선어의 언어와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중국조선족사회의 종합성적인 공정으로서 어느 한 단위거나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정부의 해당

부서와 조선어문교육과 연구기관, 사용매체들의 밀접한 협력과 협조가 있어야만 조선어의 올바른 사용과 민족의 문화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 이를테면 규범화사업에서 정부의 유력한 정책이거나 조치가 없고 조선어사용매체들의 호응과 지지가 없이 규범화이론만으로는 조선어의 옳바른 사용과 건전한 발전을 운운할 수 없다. 동시에 조선언어문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반 조선족사회의 공동한 인식이 없이 행정수단 또는 어느 한 부문의 힘에만 의거하여서도 조선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우리 말과 글의 정확한 사용과 민족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선족사회의 공동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지도소조, 연변조선어문사업위원회 등 정부의 해당부문과 연변대학, 중앙민족대학의 조선어교육과 연구기관, 조선족중소학교와 조선어문 신문, 방송, 출판 매체들에서 서로 협력, 협조하면서 공통으로 조선족의 민족어문교육과 언어문자의 바른 사용을 홍보하고 보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6. 마무리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숭상하며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시종 교육과 문화수준이 높은 우수한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물론 이 사이에 어려움도 겪었고 현재 민족교육과 언어문자를 살리고 계승하는 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선족사회의 성원들에게 저마다 우리의 민족교육을 살리고 민족의 언어문자와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명감과 의지가 있고 정부, 학교, 연구기관, 사용부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끈질긴 노력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전망은 의연히 밝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립국어연구원편 ≪한국어문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1996년
2) 김광수《중국에서의 조선어 연구 현황과 전망》(중국조선어문) 2014.2년
3) 김동찬《조선어규범리론》(조선어학전서47) 사회과학출판사 2005년
4) 김영수《중국조선어규범원칙과 규범세칙 연구》인민출판사 2012년
5) 남일성, 방학철, 임창길《중국조선어문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5년
6) 전학석《중국에서의 조선어교육 및 조선어사용 상황≫ (조선어연구 5)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년
7) 조선국어사정위원회《조선말규범집》2010년
8)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조선말규범집》연변인민출판사 2007년
9) 차광일《중국에서의 조선어발전문제에 관하여》중국조선족문화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3년
10) 최윤갑《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2년
11) 황유복《조선족정체성에 대한 담론》www.zoglo.net/blog/

주 제 발 표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

이 관 규
고려대학교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

이 관 규 (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한 사회의 문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文과 化라는 한자로 구성된 이유가 다 있다. 사회의 모습이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어 객관화하기 때문이다. '언어문화'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는 것은 문화의 특성이 결국 언어로 표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언어문화는 언어로 표상된 문화라고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언어라고 하면 흔히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몸짓 언어를 들곤 한다. 몸짓 언어가 '보기'라고 하는 분야로 새로이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문자 언어는 문화(文化)의 기록 매개체로 사용되어 오면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제로 인정받아 왔다. 흔히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문자를 들곤 하는데, 이는 문자의 창제로 말미암아 기록으로서의 문화(文化)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음성 언어는 문자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우리들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흔히 언어문화라고 할 때의 언어는 바로 이 음성 언어를 가리키곤 한다.

한국의 언어문화는 한국어로 표상되어 나타난 문화이다. 즉 한국의 문화를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You Tube)에 올리기 때문에 몸짓 언어가 문화로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몸짓 언어의 가치가 증폭되리라 기대해 본다. 이번 발표에서는 몸짓 언어를 통한 한국의 언어문화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그 분야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자로 표현된 한국의 언어는 실로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한국 문화 이해는 문자

로 표상화된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시대인 지금도 문자를 통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그 양이 많다. 인터넷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언어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언어를 통해서 한국의 언어문화를 살피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자 언어가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음성은 인간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문자가 나타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음성은 가치가 있었다. 지금도 우리들 언어생활의 반 이상을 음성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문적으로도 음성 언어, 즉 구어(口語)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사실 문자보다도 언어(言語)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 음성이다. 인터넷 시대는 본래 문자 언어로 그 시작을 열었지만, 최근에는 음성 언어, 곧 구어가 인터넷을 달구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 언어는 구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살아있는 국어생활이라 하면 바로 음성으로 의사소통하는 실제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인터넷 시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특히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의 언어문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해 보도록 한다. 문자 언어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이하 SMS) 문자를 살펴볼 것이고, 음성 언어는 실제 청소년들의 대화를 엿보도록 한다.[1)]

2. 청소년 문화,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

2.1.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서 한국의 언어문화를 들여다본 결과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하나는 어떤 집단이든지 그 나름대

1) SMS는 휴대 전화의 부가 서비스로 짧은 문장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아 통신사에서는 SNS에 특화된 요금 체계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통 문자 서비를 이용하여 보내는 문장을 문자 메시지라고 하며 줄여서 문자라고도 한다.

로의 언어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청소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화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인들이 그 나름대로 언어문화가 있듯이 청소년들에게도 그 나름대로 언어문화가 존재한다는 말이다.[2] 또 하나는 어떤 언어 표현이든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선한 말뿐이 아니라 심지어 악한 말일지라도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긍정적 가치 혹은 부정적 가치라 할지라도 모든 언어 표현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본 발표에서 청소년 언어를 특히 살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이다. 곧 미래와 과거를 잇는 시기라는 말이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기존의 지식이나 가치관을 배우면서도 청소년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특성 혹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동기는 사회의 주체로서 모습이 아직 요원하고, 성인기는 사회의 주체이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엿보기에는 과거에 얽매인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언어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잘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언급하면서 청소년 언어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인터넷 통신 언어를 언급할 때 그것은 곧 청소년 언어라고 하는 등식을 떠올리곤 한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활동을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3]

인터넷과 청소년을 함께 연결하는 것은 그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다. 청소년 언어는 곧 인터넷 통신 언어라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인터넷 통신 언어를 통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사고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다.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이정복 외, 2006)라는 제목으로 나온 저서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학위논문에서 인터넷 언어를 청소년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왔다. 그렇지만 인터넷 언어가 곧 청소년 언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전유물도 아닐뿐더러, 청소년들이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언어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언어 사용에도 특성이 아닌 엄연한 오류가 있고,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에도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민현식(2005)에서는 매체 혹은 매체 언어의 특성을 살피면서 그에 관한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청소년 언어 관련 논저들을 보면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를 등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정복(2009) 등 참조.

인터넷 언어는 청소년 언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언어보다 훨씬 넓은 외연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인터넷 언어 차원에서 청소년 언어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통해서 결국 한국의 언어문화를 추정해 내 보도록 한다.

2.2. 청소년 문화의 특성

청소년 시기는 대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시기를 일컬으면서 흔히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발육 상태가 매우 좋아서 초등학교 고학년생까지 청소년의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다. 2014년에 국가에서 개정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4)]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는 대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흔히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면서, 미숙한 문화, 일탈 문화, 하위 문화, 대항 문화(혹은 반(反) 문화)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곤 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총체적 문화, 새로운 문화라고 하여 긍정적인 점을 부각하여 보는 경우도 있다(박진규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이정복 외 2006 참조). 대개는 청소년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모든 언어 표현이 가치가 있고, 또 각각의 집단이 그 자체로 완결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청소년 문화 역시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흔히 음운, 형태, 통사 측면에서 표기나 소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들어서 청소년 언어문화가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문 규범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 자체 언어 표현도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가 있고, 또 지적하지 않는 대다수(?)의 언어 표현들도 소중한 청소년 언어문화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은 당연하다. 특이한 일부가 일반적인 다수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이한 일부 자체도 해당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부이다.

이 발표에서는 청소년 문화 자체가 일정한 특성을 지닌 완전체라는 시각에서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특성 측면에서 살피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언어문화 모습을 드러내 보도록 한다.

---

4)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제2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인터넷 언어를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3.1. 청소년의 인터넷 언어 공간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 보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가 인터넷 언어에 속할 텐데, 각종 공적 기사는 물론이고 사적인 다양한 글이 모두 인터넷 언어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하여 한 편의 드라마가 몸짓 언어와 함께 제시되기도 하고, 신문 기사나 공공 기관의 안내 글처럼 공적인 내용의 격식적인 글이 등장하기도 하고, 비격식적인 음성 언어가 대화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언어는 모든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은 물론이고 각종 보고서나 글을 과제식으로, 즉 자기들 나름의 공식적인 글을 쓰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대화 공간이 인터넷에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그림이나 동영상을 올리게도 하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공간으로서 소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하 SNS)라고 불린다.[5] 또한 카카오톡(Kakaotalk), 라인(Line)과 같이 단순히 짧은 대화를 하기 위한 공간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소위 SMS(Short Message Service)라고 불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인터넷 소통 공간이 오직 청소년만의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성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해당 인터넷 공간을 회원제로 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청소년들끼리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유사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들이 밴드(Band)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청소년들은 카카오스토리(Kakaostory, 일명 '카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차이도 있다.

SNS가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림, 동영상, 각종 기제들이 사용되고 있음에 비하여 SMS는 짧은 대화만을 담고 있어서 언어 이외의 다른 기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실 의사소통 매개체라고 언어를 정의내리기만 한다면 말과 글 이외의 것들도 그 범주 속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몸짓 언어를 제외하는 본 발표에서는 대화

5)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 혹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이다. 이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개인이 불특정 다수와 문자로 대화를 하는 서비스인데, 넓게 보면 블로그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카카오톡의 경우는 아는 사람과 일대일 대화 서비스이므로 차이가 있다.

자체만을 다루는 SMS에 나타난 청소년의 언어문화 특성을 다루도록 한다. 그중에도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사용 많이 하고 있다는 카카오톡(일명 '카톡')에 나타난 언어 표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2. 인터넷 언어를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인터넷은 어른아이 없이 모두들 사용하는 21세기가 낳은 도구이지만, 성인들보다도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대개 알려져 있다. 특히 언어문화라는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언어 사용 양상은 성인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언어문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인터넷 언어문화 특성

부정적	긍정적
ㄱ. 어문 규범 파괴 ㄴ. 비속어와 욕설 남발 ㄷ. 언어문화의 일탈 ㄹ. 세대 간 의사소통 단절	ㄱ. 경제적 사용 ㄴ. 오락적 언어유희 ㄷ. 유대 강화의 상징 기호 사용 ㄹ. 창조적 언어 사용

인터넷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적 특성은 사실 양면의 칼이다.[6]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존 언어문화를 일탈 혹은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인터넷 언어가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언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서 어긋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기존 언어문화에서 일탈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하는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 언어는 오락성, 경제성, 상징성, 창조성 등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 문화를 독립적인 것으

6) 이정복(2009: 39-40)에서는 통신 언어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언어 파괴의 주범, 자유롭고 창조적인 언어 사용, 새로운 사회 방언의 등장'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이처럼 통신 언어에 대해서는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로 인정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1)의 긍정적 특성이 있기도 하다. 축약어를 사용한다든가 'ㅋㄷ' 같은 자모만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언어유희의 즐거움을 갖기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너그럽게 본다면 성인들의 닫힌 언어 사용 양상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면서 새로운 언어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 청소년 인터넷 언어문화 특성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이정복 외 2006 참조)

ㄱ. 알써알써 ㅋㄷ, 갈게요 ㅋㅋㅋ
ㄴ. 그 샹년은 조질ㄲㅓ야
니가 아다폭격기 라메?
받아요년아 / 졸라 빙시같다
아 ㅅㅂ넘ㅅ바ㅂ바ㅂㅂㅅ바ㅂ바ㅂㅂ
ㄷ. 여러부운여러부운 기쁨이가캐발랄으로도라왔어열.
우리집 거실이 캐 이쁘게 꾸며졌심다♡♥
ㄹ. 남은 기간동안 열공빡공하자구-
ㅁ. 싸이질조 ㅁ하라구

(2)에 제시된 인터넷 언어 표현들은 (1)의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ㄱ)에 있는 '알써알써'는 '알았어 알았어'를 축약한 것이고 'ㅋㄷ'는 '키득'이라는 의미의 의성어를, 'ㅋㅋㅋ'는 'ㅋㅋㅋ'라는 소리의 의성어를 표상한 것이다. 규범 파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줄여 표현함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2ㄴ)에 사용된 비속어나 욕설도 오락적 유희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ㄷ)에 사용된 '캐'는 흔히 '개'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성인 언어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것으로 '매우'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7] 이것들은 일반적인 언어문화를 일탈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유대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7) (2)에 있는 예들은 2006년에 나온 저서의 예들이다. 인터넷 언어는 변화 시기가 매우 짧은데, '캐'는 2014년 현재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개'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개'는 부사와 관형사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본래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개 잘해.' 등에서처럼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ㄹ)의 '열공빡공하자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빡세게 공부하자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ㅁ)의 '싸이질'은 '싸이월드'라고 하는 카페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것을 안 좋게 표현한 것이다.[8] 이들 표현을 성인들은 알기 어렵다. 성인과 청소년의 세대 단절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새로운 언어문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9]

결국 청소년의 인터넷 통신 언어를 그들 나름대로의 일종의 사회 방언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로 나가게 된다. 최근에는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 즉 청소년 사회 방언으로 보자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이정복 외 2006 등).

3.3. 카카오톡 공간을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앞(3.2.)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통신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일종의 사회 방언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부정적 특성이 통신 언어의 모습을 1차적으로 바라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긍정적 특성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2차적 입장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통신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청소년의 언어문화 특성을 (3)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검토와 해석의 대상인 이 자료들은 학급 단위에 속하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들의 대화를 무작위로 수집한 것이다.[10]

8) '싸이월드' 프로그램은 10여 년 전에 한창 유행이었으나 2014년 지금은 별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9) (2ㄷ)의 '캐'는 붙여 쓴 것도 있고 띄어 쓴 것도 있다. 이것은 마음의 촉급 혹은 여유를 나타낸 것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의미가 변한 것은 아니다. (2ㅁ)의 '싸일질조 ㅁ'에서 '좀'을 늘여 쓴 것도 일종의 마음의 여유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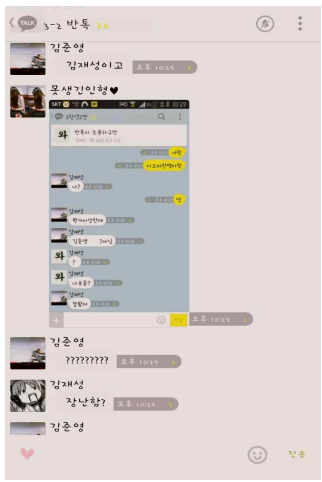
10) 카카오톡(KakaoTalk)은 (주)카카오에서 2010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일종의 대화방이다. 카카오톡은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으며, 줄여서 '카톡'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3) 청소년의 카카오톡(SMS) 대화의 실제

2014년 7월 29일 오후 9: 39, 김○영 : 과학쌤이주신프린트 가지고이는사람?
2014년 7월 29일 오후 9: 40, 김○영 : 있는사람?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4, 유○현 : 난 누구일까 누구임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6, 김○영 : 과학쌤이주신프린트 가지고이는사람?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6, 김○영 : 있는사람?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6, 권○우 : 누사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6, 권○우 : 뉴가들고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6, 권○우 : 다니겟슴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7, 권○우 : 다학교에잇것지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7, 김○영 : 내용이라도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7, 권○우 : 영민이한테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7, 권○우 : 물어보쇼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7, 김○영 : 내용은 알고 안가지고다니는건가요???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17, 김○영 : ,,,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6, 못생긴인형♥ : 왜난 김제성이 두명일까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7, 김○영 : ???!!!!!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7, 못생긴인형♥ : 너랑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7, 못생긴인형♥ : 시스타한명이랑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김○영 : 나?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못생긴인형♥ : 엉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김○영 : 뭔가이상한데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김○영 : 김준영 ?아님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김○성 : ?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김○성 : 나부름?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8, 김○영 : 잘왔어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영 : 아니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영 : 넌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영 : 김재성이고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못생긴인형♥ : <사진>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영 : ??????????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성 : 장난함?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영 : ㅁㅊ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영 : ㄷㄷㄷㄷㅈ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김○성 : 내가왜 김제성임? ㅋㅋㅋ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29, 못생긴인형♥ : 왜이랰ㅋㅋㅋ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0, 김○영 : 나 김준영인데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0, 김○성 : 난 김제성이 아니라 김재성임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0, 김○영 : ....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0, 김○영 : 돌겠다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0, 김○영 : 아오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0, 김○영 : 무섭다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31, 김○영 : 지금도그럴라나?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58, 박○연 : 애드라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58, 박○연 : 버노좀!!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58, 유○현 : ?
2014년 7월 29일 오후 10: 59, 유○현 : 024885464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2, 박○연 : 집버노..?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3, 유○현 : 저장하면톡도가능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3, 유○현 : ㅋㅋ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4, 김○성 : 버노?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4, 김○성 : 나가서 돈버노?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4, 김○성 : ㅈㅅ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4, 유○현 : 노잼인듯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5, 김○성 : 흙흙흙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5, 박○연 : 버노좀줘애드라ㅏ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5, 김○우 : 91171772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5, 김○성 : 112하면 욕하겟지?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6, 박○연 : 니껀알아재성아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6, 김○성 : ㅋ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6, 박○연 : 애드라 보면 번호좀 ㅜ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6, 김○성 : (이모티콘)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6, 김○성 : ㅋㅋㅋㅋㅋ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6, 김○성 : 켠왕
2014년 7월 29일 오후 11: 17, 김○성 : 황혼에서 새벽까지 특집 꿀잼이다 ㅋㄱ

(4) 청소년의 카카오톡(SMS) 대화의 실제 한 부분



(5)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SMS) 대화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일부 예

축약어 사용: ㅁㅊ, ㄷㄷㄷㄷㅈ, ㅈㅅ, ㅋㅋㅋㅋㅋ, 노잼, 꿀잼, 켠왕 ㅋㄱ, 쌤
붙여 쓰기 혹은 발음대로 표기: 니껀알아재성아, 버노좀줘애드라ㅏ
이모티콘 사용:
언어유희: 버노? 나가서 돈버노?
입말 사용: 다학교에잇것지, 니껀알아재성아
과감한 생략: 간단한 언어 표현 -필요한 언어 표현만 사용
의도적 형태주의: 흙흙흙,
연예인 혹은 프로그램: 시스타한명이랑, 켠왕, - '켠김에 왕까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일상적인 구어 표현이 더 많음.

첫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인터넷 언어는 무엇보다 구어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종결 표현에서 문어체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마치 친구에게 면전에서 하듯이 말하는 구어체 표현이 나타난다. 특히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의식 속에서 단순한 단어 나열식의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어 표현을 붙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니껀알아재성아'에서처럼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은 물론이고 '버너좀줘애드라'에서

처럼 글자를 풀어 쓰고 있다. 구어체 표현을 카톡 표현으로 활자화하다 보니까 발음대로 나열해 둔다는 것이다. 물론 '흙흙흙'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의도적으로 형태를 다르게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것은 맞춤법을 몰라서 잘못 썼다기보다는 일정한 의도, 즉 슬프지만 쑥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셋째, 축약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노잼, 꿀잼'은 '재미가 없음, 재미가 꿀처럼 좋음'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음절을 축약해서 사용한 것이다. '켠왕'은 '켠김에 왕까지'라는 일종의 온라임 게임넷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역시 축약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넷째, 축약을 넘어서 일종의 상징어처럼 자모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것도 한 특성이다. 'ㅋㅋㅋ, ㅁㅊ, ㄷㄷㄷㄷ, ㅈㅅ'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들인데, 음절 차원의 축약어라기보다는 자모자 차원의 상징적 표현이다. 'ㅋㅋㅋ'는 'ㅋㅋㅋ' 하면서 웃는 모습, 'ㄷㄷㄷㄷ'은 '덜덜덜덜' 하면서 떠는 모습, 'ㅁㅊ, ㅈㅅ'은 '미친, 죄송'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의성어, 의태어를 비롯하여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자모자라고 볼 수 있다. 'ㅋ, ㄷ'의 숫자는 많을수록 해당 의미를 더 강조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11]

다섯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소위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3), (4)에서 사용된 이모티콘 은 깜짝 놀라면서 뭔가 깨달았다는 의미를 나타내 준다.

카카오톡은 본래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언어는 구어체일 수밖에 없다. 빨리 말하는 대화를 활자화하다 보니까 붙여서 쓰는 것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붙여 씀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타수(打數)를 줄일 수도 있다.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어 형태 하나하나를 신경 쓰지 않고 발음대로 붙여서 쓰는 것도 시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축약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도 당연하다.

'ㅋㅋ'와 같은 자모자 하나하나로 사고를 나타내는 것은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오락적인 언어유희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창조적 언어 사용의 한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모티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이런 특성을 보여 준다.

11) 한편 (3)에서는 'ㄷㄷㄷㄷㅈ'이라 하여 'ㅈ' 표현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통신 언어에서도 올바른 표현과 잘못된 표현이 존재하는 셈이다. 'ㅋㄱ'는 'ㅋㅋ'가 본래 맞는 표기인데, 실수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카카오톡에서 사용된 통신 언어의 이런 성격들은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파괴이고, 성인 언어(혹은 방언)를 기준으로 볼 때 언어문화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심각하게는 세대 간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주범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오락성, 상징성, 창조성 같은 긍정적 기능도 이들 인터넷 통신 언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다. 카카오톡 언어의 특성을 보인 이들 표현들은 대화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 전체 가운데 소수라는 것이다. 물론 맞춤법 등에서 어긋난 언어 표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카카오톡만의 특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1)에서 인터넷 언어에 대해 부정적 특성이라고 보는 소위 비속어나 욕설 사용은 최소한 실제 카카오톡 자료인 (3)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3)의 맥락은 같은 반 남녀 학생들이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대개 동성끼리 있을 때 비속어나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12], (3)은 이성, 그것도 같은 반 학생들이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또 대화이긴 하지만 글자로 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비속어나 욕설이 자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 언어는 부정적 가치가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야말로 부정적 시각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비속어나 욕설은 우리들 일반 언어생활, 특히 성인들의 언어생활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통신 언어니까 비속어나 욕설이 많이 쓰인다는 식의 사고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4. 일상 대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지금까지 인터넷 통신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들 일상적 대화를

12) 여학생들끼리 있을 때보다 남학생들끼리 있을 때 비속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또 남녀 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보다 여학생들끼리 있을 때 비속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기도 하다. 물론 남녀 문제 이외에 어떤 환경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살피도록 한다.

통해서 청소년의 언어문화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과연 통신 언어와는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6) 10대 여학생들의 대화 실제[13)]

J: 김○○ 진짜 쓰레기야. 우리 반에서 난 걔가 제일 싫어., 썸탔다는데?,
S: 난 걔 올해 처음 알았어.
L: 난 1학년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왜 어떤데?
J: 걍 쓰레기야.
L: 헐.
S: 아니 우리 반에 멀쩡한 애가 없는 거 같아.
L: 그럼 전학생 걔는?
J: 걔도 쓰레기야. 난 걔도 싫어.
L: 근데 걔 다리가 나보다 예쁜거 같아.
J: 아 맞아. 걔 팔뚝도 네 번짼가 세 번째로 예뻐. 근데 존나 싫어.
L: 왜 막 쎈 척해?
J: 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혼나.
L: 오○○ 걔는?
J: 둘이 친해. 오○○이 맨날 전학생 데리고 다녀. 존나 싫어.
L: 작년에 오○○ 몇 반이었지?
S: 4반.
L: 어 맞아. 작년에 때 걔가 카스에 대놓고 우리 반 여자애들 개못했다고 욕 개 많이하고 남자애들도 대놓고 싹 다 깠어.
J: 아 진짜 4반 남자애들이 4반 여자애들 완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여자애들을 진짜 많이 깠어. 딴 반 애들은 안 그러거든. 근데 걔네는 진짜 맨날 깠어.
S: 2반도 장난 아니야.
J: 그건 잘 모르겠는데 4반은 유명했어. 진짜 유명할 정도로 심했던 거야.
S: 걔네는 김○○가 주도를 했잖아. 우리 반 애들은 그냥 조용하게 깠는데 이번에는 나대면서 까는거야.

13) 이 자료는 2014년 7월 26일에 피자집에서 이루어진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세 사람이 자유롭게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그 중에 L이라는 여학생이 정리한 것이다. 맞춤법 표기 등도 모두 L 학생이 전사한 그대로이다.

J: 맞아. 작년 4반 애들도 그래. 근데 걔 남자애들도 싹 다 깠을걸? 걔네는 진짜 한 명 한 명 존나 크게 깠어. 상대방이 들릴 정도로. 너무 심했어 걔네는.
S: 작년 우리 반에는 김○○이 심하게 깠지.
J: 아 걔 박○○이랑 사귀잖아.
L: 어 맞아. 걔 맨날 우리 반에 온다고. 점심시간에. 둘이 손 잡고.
J: 개쓰레기야. 아 박○○ 그 누구더라? 석○○이랑 썸탔다는데?
S, L: 헐 진짜?
J: 근데 박○○이 버렸대. 석○○이 맨날 박○○ 옆에 앉아서 떠들고 그랬대.
L: 헐. 난 몰랐네. 석○○은 내가 보기에 적어도 중학교 끝날 때까지는 절대 커플이 될 수 없어.
S: 누가?
J,L: 석○○. 석○○.
J: 나도 걔 별로야.
S: 우리 반에선 김○○가 싫어. 걔 빡치면 눈에 초점을 못 잡아.
J: 맞아. 존나 웃겨.
S: 이수진이 그걸 흉내 내는데 너무 똑같은거야.
L: 막 이래?(흉내 낸다)
J, S: 어 약간 그런거야.
L: 와 어지럽겠다.
S: 근데 막상 화 내고 나면 약간 민망한 듯이 자리 피한다.
<중략>

(3)에서 살펴본 카카오톡의 대화는 문자로 쳐 넣은 것이었으나, (6)에 제시된 청소년들의 대화는 그야말로 음성 언어, 즉 구어일 뿐이다. 따라서 자모자, 이모티콘, 띄어쓰기 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청소년 인터넷 통신 언어와 확연히 차이 나는 점이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어긋난다는 부정적 특성이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상징 기호를 사용한다는 긍정적 특성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다.

(7) 10대 여학생들 대화의 언어문화 특성을 보여 주는 일부 예

비속어: 쓰레기야, 존나, 깠어, 까는거야, 깠을걸, 개못했다고, 개많이하고, 개쓰레기야, 빡치면

축약어: 걔, 걍, 카스
유행어: 헐, 썸탔다는데
외래어 혹은 외국어 사용: 카스[14)]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사용된 언어문화 특성과 인터넷 통신 언어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참고로 자료 (6)은 중학교 여학생 3명의 대화를 전사한 것이다. (7)은 (6) 자료 가운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뽑아본 것들이다.

첫째, 비속어 혹은 욕설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물론 상대적이겠으나 중학교 3학년 한 반의 카카오톡 언어 표현에서의 현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언어 자료인 (3)에서는 비속어나 욕설이 거의 없었었으나, 그냥 일상적인 대화 자료인 (6)에서는 '개쓰레기, 깠어, 빡치면' 등 매우 많은 비속어가 등장한다. 남녀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말을 조심하지만, 여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경제성을 위해서 축약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3)이나 (6)이나 동일한 특성이다. '그애'를 '걔'로, '그냥'을 '걍'으로, '카카오스토리'를 '카스'로 단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셋째, '썸탔다는데, 헐'이라고 하는 유행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넷째, '카카오스토리'라는 유행하는 통신 언어 프로그램을 축약하여 '카스'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구어체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문장을 끊는다고나 할까, 단어를 간략히 나열하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 성분을 도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일종의 부정적 사용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들의 일상적 언어 표현은 특별히 성인 언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청소년 언어라 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청소년 언어는 큰 문젯거리라고 할 것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4) (5) 자료에는 넣지 못했지만, 이들 10대 여학생들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시스루 뱅'이라는 영어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see through bang'(앞머리가 살짝 내려와 이마를 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한 유형)을 뜻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도 일반인으로서는 잘 파악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10대 여학생들은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꿰고 있었다. 이승기, 송중기, 김태희 등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신상까지 모두 파악할 정도였다.

경제성 측면이 통신 언어나 일상 언어에서 모두 중요한 특성이긴 한데, 전자가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오락성이나 창조성 같은 경우는 일반 언어에 비해서 통신 언어가 훨씬 많이 그 특성을 보인다. 특수 기호를 이용하는 인터넷 언어에서 보이는 상징성은 일반 언어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터넷 언어가 보이는 문화 일탈의 정도가 청소년들의 일상적 대화 언어에 비해서 크다. 즉 인터넷 언어가 곧 청소년 언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6)에서 비속어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문화 맥락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3학년 한 반의 공식적인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것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비속어 사용이 자제될 수밖에 없을 테고,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 지극히 비격식적인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속어 사용이 많이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살핀다고 할 때, 극단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기

언어는 민족을 드러내 주는 표상이다.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들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 구성원이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든 조선어이든 korean language이든 그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민족이 한 민족인 것을 드러내 준다.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언어 변화의 정도와 방법이 다르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한국어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 언어는 성인들이 쫓아가기가 벅차다.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파괴한다든지 비속어가 많이 사용된다든지 기존 언어 문화에서 일탈하여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점차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증명해 준다. 생각을 바꾸어보면 축약어나 상징 표현을 사

용하면서 또래 집단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창조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인터넷, 특히 일종의 청소년 대화방인 카카오톡(SMS)에서 사용된 통신 언어라 할지라도 우려할 정도로 기존 문화에서 일탈한 것도 아니고 세대 간 의사소통이 완전히 안 될 정도도 아니다. 사실 구체적인 통신 언어 자료를 통해 보면 80% 이상 일상 언어 사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통신 언어 사용 맥락이 차이가 남에 따라서 그 일탈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도 있긴 할 것이다.

사실 청소년 언어문화를 다룰 때 인터넷 통신 언어보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인터넷은 기계를 통한 간접 대화 방식임에 비해서, 평상시에 나누는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야말로 성인과 청소년의 의사소통 단절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번 발표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의 일상 대화 실태를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다. 비록 통신 언어에 비해서 비속어 사용이 늘긴 했지만, 문자 언어로 쓰이는 통신 언어에 비해서 음성 언어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 언어는 훨씬 성인 언어와 유사한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대화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성인 언어와 청소년 언어의 차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남한과 북한, 또 남한과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의 언어문화 차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남한은 서구어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고 북한은 해당 지역에서만의 한정적인 언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 지역 간의 언어 차이, 또 인터넷 사용 여부에 따른 언어 차이 등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우리 민족의 우리말 우리글을 기억하면서,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는 선현의 말씀을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정・손정희・김현주(2013). 근거 이론에 따른 청소년 언어 특성의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34. 7-25.

김정자(2005). 매체 환경의 변화와 표현의 문제. 새국어생활 15-2. 23-43.

김태경・장경희・김정선・이삼형・이필영・전은진(2011).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사회언어학 19-1. 23-58.

김형중 역(2006). 언어, 문화, 사회. 온누리. (Zdenek Salzman(2004).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Westview Press. USA.)

민현식(2005).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15-2. 75-91.

박동근(2013).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23-1. 18-33.

박용성・박진규(2009).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1. 207-228.

박진규(2003). 청소년문화. 학지사.

양명희(2005).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양명희・김경식・임영학(2005).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국립국어원.

유영석(2002). 청소년의 미래와 언어문화. 기독교언어문화논집 5-1.

이정복(2009).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이정복(2011).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29-69.

이정복(2013). 누리소통망과 새말의 형성. 새국어생활 23-1. 34-52.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이현나・김화수(201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의사소통을 위한 유행어 사용실태 및 사용특성 연구. 언어자료연구 22-4. 271-302.

임영호(2013). 누리소통망 서비스 확산과 소통 문화의 변화. 새국어생활 23-1. 3-17.

정현선(2005).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15-2. 45-58.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주 제 발 표

민족자치에 따른 중국조선족교육현황과 중국조선어교육

윤 윤 진

길림대학교

민족자치에 따른 중국조선족교육현황과 중국조선어교육

윤 윤 진 (길림대학교)

중국에서의 조선어문의 발전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연변대학의 설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집정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족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연변지역도 그러한 자치제도를 실시한 지역으로 되어 민족어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에 따른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중국 조선족전통사회의 붕괴로 조선어교육을 비롯하여 중국조선족교육 전반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중국조선족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중국조선족사회가 처음으로 부딪친 문제로서 교육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지지사들이 그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이것은 중국에서의 중국조선족사회의 기반, 그리고 존속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아래에 이러한 문제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자 연변지역의 민족교육의 발전과 중국조선어문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목전에 부딪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조선족교육의 미래와 조선어문교육의 미래발전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중국조선족교육의 역사와 조선어교육

중국의 조선어문교육은 중국조선족교육과 갈라놓을 수 없는데 중국조선족교육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도 일제시기 용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족교육을 계승,

발전하고 1949년 연변대학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역사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60여년의 발전도로를 걸어왔으니 중국의 조선어문교육도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60여년간 중국조선족교육은 물론 조선어도 해방 후 중국의 정치풍토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오늘 돌이켜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개 발전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66년까지인데 이 시기는 중국조선어와 중국조선족교육의 초기 발전 단계이다. 이 시기는 신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 문화발전을 추진하던 시기라 그 민족교육정책의 혜택에 전국의 민족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이다. 중국에서의 조선어교육은 조선인들이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오던 그 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조선족역사에 의하면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이 땅에 날로 늘어나는 조선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비해 1906년에 용정에서 중국경내의 첫 번째 조선인학교인 "서전의숙(瑞甸义熟)"을[1] 설립하고 조선어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그 뒤로 용정을 중심으로 조선인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 사립학교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16년의 집게에 따르면 연변지역에만 모두 156개[2] 조선인학교가 있었다고 하며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조선인들의 교육은 진일보의 발전을 이룩하여 용정을 중심으로 "대성중학교", "동흥중학교", "은진중학교", "명신중학교" 등 상당한 규모와 수준을 가진 중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그러한 학교를 중심으로 조선어문교육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인 중학교들이 금방 설립되자 일본침략자들은 용정에다 영사관을 설치하고 중국조선인들의 교육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일본은 중국 동북3성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후, 중국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압살하기 위해 조선인학교들에서 식민지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때로부터 중국조선인 교육은 장장 15년에 달하는 암흑기에 들어서게 된다.

광복 후, 중국조선족교육은 새로운 형세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면에서 표현된다.

(1) 기초교육이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기초교육기반이 탄탄해졌다. 중화인민공화국

1) "서전의숙"은 1906년에 이상설(李相卨)이 용정에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용순 외 『중국조선족백년사화』 제1집, 요녕인민출판사 1982년판 참조.

2) 현용순 외 위의 책 123페지 참조.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룡현에 56개, 연길현에 55개, 훈춘현에 32개, 왕청현에 13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성립된 후, 중국에서는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에 민족평등권과 민족자주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성립하여 민족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들어섰는데 이 시기에 중소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이 전에 없는 역사적인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자 국가에서는 "민판공조(民辦公助)"[3]란 형식의 학교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사립학교를 꾸릴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마냥 나타나 신생 공화국이 수요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서 특히 중소학교교육이 큰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조선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이 실시되어 연변에서의 조선족교육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선다. 1949년의 통계에 의하면 길림성에만 해도 622개 조선족학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립학교가 576개로 87%를 점했으며 조선족중학교도 40여개나 되었다.[4] 이것을 기반으로 1952년에 이르러 중국의 조선족 집거지에서는 소학교교육과 초급중학교 교육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고등학교(고급중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것을 발판으로 1958년부터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여러 지역에서 고등학교(고급중학교)교육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1949년에 설립된 연변대학교가 망라되는데 이때에 이르러 중국에는 소학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고급중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벽한 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 학생들은 조선어로 소학교, 중학교는 물론 대학교에까지 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중국조선족교육이 양성운행궤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었다. 조선어문교육도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전면적인 보급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2)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여가시간 교육제도를 실시하여 문맹퇴치운동을 진행하였다. 광복 전의 중국조선족교육은 일제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식민교육이 위주였으며 많은 조선족청년과 장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맹, 반문맹이 상당한 수를 점하고 있었다.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특히는 농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1952년 연변

3) 민판공조(民辦公助)-개인이 학교를 꾸리고 국가에서 도와준다는 뜻인데 자금은 개인이 출자하고 국가에서는 그 학교를 인정해주는 형식의 학교이다.

4) 허청선「중국조선족교육의 특점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관한 재고」국제고려학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편,『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연변대학교출판사, 1995년, 제75쪽.

조선족자치주 성립이후, 연변을 중심으로 성인교육을 비롯한 여가시간 교육제도를 실행하고 문맹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동시에 여러 가지 형식의 성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조선어문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비록 전문적이고 정규화한 교육기관이 아니었지만 문맹을 퇴치하고 조선족의 문화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그들의 노력으로 1958년에 이르러 연변 지역에서는 기본상 문맹을 퇴치하였고 그 결과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국 첫 번째 "문맹퇴치문화주(文盲退治文化州)"로 되어 문화수준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자치주의 하나로 되었고 지금까지 전국 소수민족지역에서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3) 실용적이고 응용성이 강한 직업교육체계를 건립하여 문화수준과 전문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8년, 연변에서는 문맹을 전면적으로 퇴치한 다음, 전일제 중학교와 대학교를 제외하고 신생 중국의 건설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식의 직업교육체제를 건립하였다. 그 결과 연변여명농업대학(延邊黎明農業大學)을 비롯하여 각 현, 시에 직업학교, 직업중학교가 속출하여 직업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어떤 학교는 반공반독(半工半讀),[5] 어떤 학교는 반농반독(半農半讀)[6] 형식으로 학생을 양성했다. 그들은 공업이나 농업실천가운데서 부딪친 문제를 가지고 목적성 있게 공부를 하였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에 더 열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장이나 농촌으로 가지고 가 과감하게 실천하여 공부도 하고 생산도 촉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금방 양호한 발전단계에 들어선 중국조선족교육이 좌절되고 굴곡적으로 발전해오던 시기이다. 특히 조선어문교육이 큰 좌절을 겪던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사회 전체가 이 시기에 전에 없는 동란에 빠져 몸살을 앓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조선족교육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도 동란상태에 빠졌다. "문화대혁명" 초기 연변에서의 "혁명"은 당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운동이 심입됨에 따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

5) 반공반독(半工半讀)은 반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반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뜻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외 여가시간에 공부를 하는 형식을 말한다.

6) 반농반독(半農半讀)은 반은 농촌에 가서 일하고 반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뜻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 여가시간에 공부를 하는 형식을 말한다.

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 기관들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른바 “반란”이 캠퍼스 내의 가장 중요한 유행어로 되었다. 학생들은 “자산계급에 반란한다”, “전문가양성이란 양성방침에 반란하다”는 등등이 어처구니없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교육질서를 파괴하였고 지식이 있는 선생님들을 이른바 “재교육”이란 미명하에 농촌에 내려 보냈으며 거기에 가서 이른바 “빈농, 하중농의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다. 특히 “4인방”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민족언어무용론(民族语言无用论)”을 산포하면서 민족교육을 파괴하였는데 민족교육은 전에 없는 엄중한 파괴를 받았고 특히 조선어문교육이 큰 타격을 받았다. 1972년에 이르러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나 나중에 다시 불어친 등소평의 이른바 “우경번안풍(右倾翻案风)”을 반격한다는 “4인방”공격에 금방 회복세를 보이던 조선족교육은 다시 된서리를 맞게 된다. 그 시기에 중국의 조선어문교육은 조선족교육과 함께 상당한 정도로 퇴보하였으며 전반 교육체제가 파괴되었으며 유사 이래 가장 큰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76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이다. “문화대혁명”이 결속되고 어지러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중국조선족교육도 새봄을 맞이하였다. “문화대혁명”가운데서 파괴되었던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집권자”라고 비난을 받던 유지지사들이 하나, 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권력의 전면에 나서거나 강단에 다시 서면서 정세는 급전변하였고 “자산계급 지식인”이라고 농촌에 쫓겨 갔던 지식인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강단에 올라섰다. “문화대혁명”이 갖다 준 많은 상처가 치유되면서 중국의 조선족교육도 급속도로 회복의 길에 들어섰고 미구에 “문화대혁명”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는 중공“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이후 중국조선족교육은 거듭되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1994년의 집게에 따르면 당시 연변에는 전일제 조선족소학교가 312개로(순수 조선족학교 177개, 기타 민족혼합학교 135개) 급증하였고 재학생은 83,857명, 교사와 직원은 5,681명이었으며(그중 교사 4,791명), 전일제 조선족초급중학교는 77개(그중에 조선족중학교 34개, 혼합학교 43개), 조선족재학생 8,827명, 조선족고등학교(고급중학교) 18개(그중 조선족 고등학교 15개, 혼합고등학교 3개), 재학생은 7,931명, 조선족중학교 교직원은 4,590명(그중 초급중학교 교원 2,853명, 고등학교(고급중학교) 교사 843명)이었다. 그 외에 직업학교 18개, 재학생 8,709명이었으며 기술직업학교 21개 재학생은 5,985명이었으며 일반 중등

전문학교(사범학교를 포함하여) 9개, 재학생은 6,273명이었으며 성인직업중등전문학교 11개, 재학생은 3,133명이었다.[7] 그 밖에 대학교 5개, 유치원 656개, 특수학교 2개, 재학생은 442명, 성인기술 강습학교 1,128개, 재학생 114,947명이었다.

이상의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중공 제11기 제3차 전체위원회의 이후, 특히는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조선족교육은 큰 발전을 가져왔는바 이것은 당시 중국조선족교육이 전국민족교육의 앞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네 번째 시기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중공 제11기 3차 전체위원회의 이후, 중국조선족교육은 점차 회복되면서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아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조선족교육의 상황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이 심입됨에 따라 특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한 이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교육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는 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개혁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은 개혁과 개방 속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목전 중국조선족교육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말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은 또 개혁과 개방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럼 목전 중국조선족교육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떠하며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시해 보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책들을 의논해보고자 한다.

2. 목전 중국조선족교육에 나타난 주요한 문제

목전 중국조선족교육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 수가 급감하고 있

7) 황창주「연변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국제고려학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편,『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연변대학교출판사, 1995년, 제2-3쪽 참조.

는데 이것은 중국조선족교육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이다. 1995년의 집게에 따르면 연변지역에서 새롭게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9,516명인 반면, 2002년에는 4,210명으로 44.2% 줄었으며[8] 농촌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2002년에 집게에 따르면 2001년에 농촌지역에서 새로 입학한 학생은 421명밖에 안 되어 1995년에 비하면 82% 급감되어 재학생수는 4,368명, 1995년에 비해 67% 감소되었다. 더 안타까운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조짐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는 농촌에서 이미 많은 촌에 원래 있던 학교가 없어졌으며 이농한 부분적인 농민들의 자식들은 민족연합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촌의 조선족학교 수도 급감하고 있다. 2001년에 연변에 있는 조선족학교가 모두 43개였는데 이것은 1989년 188개의 23%좌우인데 감소률은 70%이상이며 통화지역의 조선족 중학교는 1980년의 139개로부터 95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문교육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방면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농민들의 이농이다. 특히는 생식적령청년들의 대량적인 이농은 중국 농촌의 조선족교육이 급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변지역은 특히는 연길시를 중심으로 용정, 화룡, 도문 등 지역에는 조선족인구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래 연변지역의 조선족인구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촌청년들은 혹자는 연해지역이나 대도시에서, 혹자는 외국에서 생산노동과 제3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목전의 상황으로 보아 그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시로 귀농한다하더라도 더는 농촌에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대부분 조선족 농촌에는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노인, 또는 기타 원인으로 농촌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농촌의 적령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2) 교사가 부족하여 수준미달의 교사가 수업을 하다 보니 교학수준이 높지 못하다. 젊은이들이 대량 연해지역이나 외국으로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8)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편『1996-2002년교육통계자료』참조.

문제는 수준급 교사가 태반 부족한 것이다.[9] 지금 중국경내 조선족 집거구의 대부분 지역에 교사가 부족한데 특히는 농촌지역에 더 부족하다. 많은 지역에서 합당한 교사가 없어서 수준미달의 교사가 수업을 하게 된다. 집게에 따르면 1995년 연변지역에 소학교 교사가 모두 843명이었는데 2002년에 이르러 523명으로 20%이상이 줄어들었다. 산거지역의 상황은 더욱 엄중한바 교사 1명이 몇 개 반 또는 몇 개 학년을 가르치는 것이 항다반이라고 한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그러한 교사들 대부분이 대리 혹은 대리교사(代职或代办教员)[10]라는데 있다. 그들은 계통적으로 사범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전문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며 교육이론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바 실로 수준은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농촌의 교학수준은 하강되고 있으며 한 대리교사가 다음 세대 대리교사를 양성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집게에 따르면 연변지역의 초급중학교와 고등학교(고급중학교)의 교사가운데 대학본과이상 학력을 가진 교사가 각각 53.2%와 89%라고 한다. 이것은 초급중학교의 경우는 대학본과학력을 가진 교사가 반절정도이며 그 모자라는 기타 부분은 상술한 대리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의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여태껏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조선족교육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로 되는 것은 연변의 우수한 청소년들의 대학입시를 통한 연변이탈현상과 우수한 인재들이 연변을 떠나는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연변은 지역적으로 아무런 우세도 없으며 경쟁력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따라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은 모두 연변을 떠나려고 하며 연해지역이나 대중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창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고 때문에 연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연변을 떠나지 못한 학생들이 남게 된다. 여기에 연변의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한계가 자칫하면 인재양성상의 악성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재가 없고 능력자가 없으면 창조와 도약은 운운할 수조차 없으며 학교를 잘 꾸린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

9) 어떤 학교는 교사가 많으나 수준미달이나 미구에 퇴직할 교사가 많은 경우도 있다.

10) 대리교사(代職或代辦教員)란 민판교사(民瓣教師)라고도 하는데 중학교나 졸업한 학생을 소학교 선생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大計)라고들 한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들이 대량으로 연변을 떠나다보니 이러한 상황은 조선족교육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래 열거한 일련의 수치들이 중국조선족 교육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90년대 중엽부터 연변지역의 조선족학교의 대학입시성적이 한족학교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집게에 따르면 조선족소학교의 평균성적은 60.35점이고 한족학교의 평균성적은 65.81점이였으며 조선족초급중학교의 평균성적은 68.48점, 한족학교의 평균성적은 71.17이었다.[11] 역사적으로 줄곧 이러한 입시시험에서 한족학교를 월등이 앞섰던 조선족학교가 중국인학교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또 그 상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결손가정” 또는 “무부모”학생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도 중국 조선족교육이 부딪친 또 하나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90년대 이후로 중국의 조선족적령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해외나 연해지역으로 갔다. 이런 노무자들의 대량 이동은 학교에도 많은 압력을 주고 있다. 용정시 조선족소학교의 2,253명 학생가운데 부모 한쪽, 혹은 부모 모두가 해외에 간 학생이 93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심양시 소가툰(苏家屯)조선족소학교 4학년의 경우, 199명 학생가운데서 139명의 학생들이 결손가정, 또는 “무부모”학생으로 69.9%를 점하며 길림성 유하(柳河) 조선족중학교 246명 학생 중 “결손가정”, “무부모”학생이 132명으로 53.7%를 점한다.[12] 여기에는 국내, 즉 중국경내 연해지역이나 대중도시에 가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정까지 여기에 포함한다면 실로 더 놀라울 수치일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 대부분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고 있거나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자라고 있으며 어떤 애들은 모 가정집에 기숙하는 식으로 위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돌봐주는 업이 생겨날 정도라고 하니 사정은 심각한 것이다.

중학교, 소학교 시기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발육하는 중요한 시기이

11)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편『1996-2002년 교육통계자료』참조.
12) 양옥금,「연변조선족사회문제: 인구감소현황과 과제」권태환편『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출판부, 2005년, 제95-117쪽.

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아이들의 인격양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미국의 당대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 플라벨(Flavel)은 "아이들은 대체로 그 때 그 시기의 개념으로 현실 문제를 처리한다"[13]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플라벨이 사춘기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이야기할 때 한 말이다. 이 아이들 중에는 아주 어린 시기에 부모의 슬하를 떠난 아이들도 있다. 그들은 가정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춘기에 들어섰고 지어 어떤 아이들은 무엇이 부모의 사랑인지 근본 모르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부모란 자기에게 필요한 돈이나 주는 "도구"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 가운데는 성격이 괴벽한 아이들이 있으며 어떤 애들은 고독이나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울하고 적적한 허구한 나날들을 보내기 위해 그들은 컴퓨터 게임방이나 떠돌아다니며 사회적인 악습에 물들고 있으며 어떤 애들은 싸우거나 강탈을 일삼고 있으며 성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애들도 있다. 우리는 "이 시기의 개념으로 현실문제를 처리하"는 애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어떤 방식으로 중국조선족에게 이중 언어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국조선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목전 중국조선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 용어는 대부분이 조선어이다. 최근에 일부 학교들에서 조선어문을 제한 다른 학과목은 한어로 교학하고 있다. 대학입시도 조선어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면 모두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고급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아주 잘 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는 학습 성적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연변지역에서 전국 각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좌담회의 조사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언어적인 문제로 대학교학업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난 한 시기 어떤 사람들은 조선족 학교의 수업도 중국어로 하자는 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여기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실 중국조선족학생들

13) K · W · Back편『사회심리학』남개대학교(南開大學)출판사, 1986년, 제68쪽.

은 소학교에 입학하여서부터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것은 동년배 중국인 학생들보다 한 학과목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서 부지중 조선족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족학생들은 이렇게 하여서라도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중국조선족학생들의 중국어수준을 제고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조선족학교에서 모든 학과목을 중국어로 강의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전민족의 민족교육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제쳐놓고서라고 이것은 중국조선족학생들의 학습성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중국조선족학생들의 대학입시는 조선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언어적인 우세에 있으며 특히 조선어문 성적이 아주 높다. 그런데 중국어로 시험을 보면 이러한 언어적인 우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문(중국어문)성적도 지금의 조선어문성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민족교육의 발전에 불리하며 대학입시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족교육은 선천적으로 어떻게 이중 언어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5) 조선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과외독물이나 참고서적의 부족도 중국조선족교육을 저애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서점에 가보면 학생들의 과외독물이나 참고서적이 상당히 많다. 특히 고중입학시험이나 대학진학시험과 관련된 참고 서적이나 지도 서적이 의외로 많은데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기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별 참고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선어로 된 참고 서적이나 지도 서적은 정말 얼마 안 된다.

과외독물도 그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자에 각 출판부문에서 한국에서 많은 과외독물을 입수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념의 차이로 어떤 책은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과외도서가 얼마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목전 조선족중학교의 학생들이 늘 피시방

으로 가서 과외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과외독물이 없는 사정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바 이 양자를 갈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 학생 자신들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과외독물의 부족으로 생기는 일부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이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참답게 연구하고 해결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도시 상황은 농촌에 비해 좀 좋은 편이다. 적어도 인재의 대량 유실은 일단 피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이를테면 농촌의 조선족학생들이 대량으로 도시에 몰려들면서 도시 조선족학교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금문제를 비롯하여 교실, 기숙사, 교사 등 일련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3. 중국조선족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자에 중국조선족교육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중국조선교육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것은 중국조선족사회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조선족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을 기본적인 생산단위로 하는 농경생산에 근저를 두고 있다. 『조선족백년사화』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족은 1870년부터 통화현(通化县) 상점자(上甸子)란 곳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을 시작하였다.[14]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조선족이 중국에서 농업생산을 시작해서부터 이미 1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30년래 중국의 조선족은 자기의 근면한 노동으로 동북을 개발하였고 자랑찬 조선족문화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조선족이 종사한 것은 농업생산으로서 그들은 평생 농촌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땅과 씨름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들은 이 "전원적인 농촌공사"에서 매일 동일한 노동을 중복하면서 비바람이 고르고 오곡이 풍성하고 자손이 한구들 가득한 넉넉한 생활을 지내왔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자기의 물질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응한 사회관

14) 현용순 외『중국조선족백년사화』제1집, 요녕인민출판사, 1982년, 52쪽 참조.

계를 건립하며 자기의 사회관계에 의해 상응한 원리와 관념 그리고 범주를 만들어낸다"[15]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관념과 범주는 물질생산방식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인도에 수천년간 지속되어 온 종법제도를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는 또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생산이 존속하는 한 통치계급이 어떻게 변화든지 상관이 없이 이러한 종법제도는 존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관점은 중국조선족 사회에도 적응된다.

개혁개방이전시기, 중국조선족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전근대적인 수공노동과 경험을 위주로 하는 농업생산이었다. 따라서 모든 사회조직과 관념형태는 모두 이러한 생산방식을 기본으로 산생한 것이다. 이를테면 가정을 기본생산단위로 하고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생산방식, 가장이나 연장자의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는 농업생산, 생산과 생활상의 모든 중대한 일은 모두 가장이나 연장자가 결정하는 사회운행시스템, 생산과 생활상에서 반드시 가장이나 연장자에게 효도하는 생활방식은 모두 이러한 생산방식의 산물이다. 백여년래 생산규모와 생산능력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생산과 생활방식과 상응된 의식형태에는 시종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중국조선족사회는 여기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래 중국조선족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가장 선명한 징표는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화의 기반으로 되고 있는 농업생산이 급속히 위축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중국조선족문화도 뒤흔들리게 되었다. 목전 중국조선족농촌에는 도시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노인들 외에 젊은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혁개방이전시기 중국의 조선족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회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이 변하자 조선족교육도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적령아동들은 부모들을 따라 도시에 갔다. 이에 따라 농촌학교의 학생들이 갈수록 적어져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조선족교육, 특히는 농촌교육이 거의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목전 중국조선족부모들은 아이들을 농촌에 두기 싫어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학교의 교육

15) 마르크스「인도에서의 영국의 통치」『마르크스 엥겔스선집』 제2권, 상책, 제67쪽, 인민출판사, 1972년.

수준이 도시에 비해 훨씬 낮고 기반 시설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농간의 차이와 농촌학교의 교사수준의 미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갖은 방법을 대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자 한다. 도시에 가서는 호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비싼 학비와 기타 잡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애들을 도시에 몰아넣고 있는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소박한 염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옛날부터 교육을 중시해온 우리 민족부모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염원이기도 하였다. 누가 자식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겠는가? 중국조선족사회에 팽배하여 있는 이러한 사회심리는 교육열을 부추기고 있으며 농촌과 편벽한 지역의 아이들을 도시로 내몰고 그러한 지역 학교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우수한 교사들이 농촌과 중, 소도시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중국조선족교육가운데 나타난 문제의 하나이다. 인재가 없으면 학교를 잘 꾸릴 수 없다. 교육가운데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과분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중국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집중해 있는 곳에서는 경제적인 원인과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수한 인재를 잡아둘 수 없다. 우수한 인재가 없으면 우수한 교사가 나타날 수 없다. 90년대 중후반으로부터 연변지역에서는 많은 인재가 유실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도 데리고 떠나갔다. 기술만 있으면 외지에서 연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막노동을 하여도 연변보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이러한 인재유실문제를 발견하고 조선족사회와 조선족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주장대로이고 갈 사람은 그냥 떠나가곤 하였다.

4. 중국조선족교육문제의 해결방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교육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는 위대한 역사적인 변혁기의 산물이며 개혁개방가운데서 나타난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개혁가운데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국조선족교육이 당면한 문제와 목전 중국조선족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변화되고 있는 중국조선족의 분포상황, 특히는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시의 조선족학교를 적당히 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목전 중국조선족들은 연해지역이나 대중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생산과 생활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조선족 농촌경제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며 이미 떠나 도시에 간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도시와 연해지역에서는 학교를 신설하여 조선족학생들의 학습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북경의 왕경(望京), 청도, 대련 등 지역에는 수십만에 달하는 새로운 조선족집거구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합당한 학교가 없으므로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필연코 중국조선족의 문화수준을 하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학교를 꾸려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적당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개조하거나 확대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선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상급교육행정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적당한 정책으로 민족의 미래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도시에서는 민족연합학교를 꾸리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다.

(2) 도농간 관계없이 교사들의 대우를 동일하게 해주는 방법도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것이다. 사실 도농간의 차이와 대중도시와 소도시사이의 차이 해소가 가장 좋은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대중소도시사이, 특히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향후 이러한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바 도농지간의 차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일부 사람들은 농촌과 소도시를 버리고 대중도시에 가기 마련이다. 교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도농간의 경제,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임시대안으로 도시든 농촌이든, 대도시든 소도시든 교사들의 대우를 통일

하는 것이 우수한 인재와 교사들을 소도시와 농촌에 인입하는 가장 적합한 대안일 수 있으며 도농간의 교사들의 적당한 한시적인 유통도 한 방법일 수 있다.

(3) 적당한 민족교육 특혜정책이 있어야 한다. 소수민족교육이 상대적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중국조선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목전 중국에는 도농간의 차이 외에 또 민족교육지간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도농간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홀시할 수 없는 현실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민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당한 정책을 제정하여 거시적으로 각 민족교육의 공동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4) 일부 지역에서는 비전일제로 우리 민족 언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를테면 상기 북경, 청도, 대련 등 조선족집거구에서는 구체 상황에 비추어 비전일제로, 과외 학습반을 꾸리는 방식으로 조선어문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업가를 통해서도 실현가능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조선어 사용 확대, 조선어로 된 과외독물 출간, 자치제도를 이용한 학교개설 등등도 조선어교육이 현 상태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며 조선어, 즉 우리 민족 어문에 대한 우리 세대들의 인식도 자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목전 중국조선족교육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생산과 생산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여 중국조선족교육의 문제를 연구하고 적당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교육을 사랑하고 관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답게 사색하고 연구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되고 있다.

▌참고문헌

1. 현용순 외『중국조선족백년사화』제1집, 요녕인민출판사, 1982년.
2. 허청선「중국조선족교육의 특점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국제고려학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편, 연변대학출판사, 1995년.
3. 황창주「연변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국제고려학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편, 연변대학출판사, 1995년.
4.『1996-2002년교육통계자료』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편.
5. 윤성문 외「통화지역조선족교육발전문제」,『민족단결』1999년 제2기.
6. 양옥금「연변조선족사회문제: 인구감소현황과 과제」, 권태환편『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년.

주 제 발 표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

이 길 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

이 길 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1. 머리말

분단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표층문화로 삼은 남북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동과 함께 지난 6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예술, 문학,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질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언어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언어는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언어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어 사실에만 입각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남북 언어 연구는 '남북 언어의 통일 방안'과[1] '남북의 언어 차이'에[2]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1970년 이후 남북 언어 연구는 그 결과물이 수백 편이 넘을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최호철,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남북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3]

---

1) '남북 언어의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이현복(1985), 박선우(1989), 이응백(1989), 남성우(1990), 기세관・최호철(1994), 고영근(1994), 이주행(1996), 김하수(1997), 신석환(1998), 홍종선・최호철(1998), 전수태(2000), 전수태(2001), 남기심(2002), 김민수(2002), 권재일(2004), 홍윤표(2007), 한용운(2007, 2008), 박종갑(2007) 등이 있다.

2)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논의로는 전재호(1985), 고영근(1988, 1989), 곽충구(1989), 이승욱(1989), 전수태・최호철(1989), 이주행(1996, 2004), 하치근(1993), 박갑수(1995), 김민수(1997), 조오현(1997), 허웅(2000), 조재수(2000) 등이 있다.

3) 남북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주행(2006)과 이옥련(2000)을 들 수 있다. 이주행(2006)은 남북의 신문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북측 언어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전투성, 주체성, 규범성, 우상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옥련(2000)은 '남북의 언어 심리, 남북의 언어와 언어 정책, 남북의 언어 예절, 남북 소설의 남녀 호칭어와 지칭어, 남북 언어의 어휘 문화, 남북 언어의 이름 문화, 남북 문학의 언어' 등으로 나누어 남북 언어문화의 특성을 다루고 있지만, 남북의 언어 차이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 간행된 ≪조선말대사전≫(1992)에 '동무'는 '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 ② 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 ③ 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에 쓰이는 말'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반면에 남측에서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❶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❷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❸『광』한 덕대 아래에서 광석을 파는 일꾼'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①과 ❷, ②와 ❶은 뜻바탕은 같다. 다만, ①의 풀이에는 이념적 의미가 녹아들어 있다. ③과 ❸은 각각의 사전에만 있는 뜻풀이이지만, 언어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조선말대사전≫에 '자본'은 '① ≪경제≫ 임금로동자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 ② = 밑천'과 같이 풀이되어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❶ 장사나 사업 따위의 기본이 되는 돈, ❷『경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①과 ❷는 뜻바탕은 같지만, 뜻풀이 속에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의미가 녹아들어 있다.

'동무'와 '자본' ①과 ❷의 뜻풀이에서 이념적 의미를 제거하면 그 뜻은 같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어느 한 시기에 남북의 언어문화는 동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전제가 옳다면 '동무'와 '자본'은 남북 언어사회에서 문화적 특수성과 언어적 보편성을 보여 준다. '동무'와 '자본'은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질적이지만,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동질적이다. 따라서 '동무'와 '자본'의 뜻풀이가 함축하고 있는 '이념성'은 남북 언어문화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지표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한 현상으로서 남북 언어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적 특성과 변동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규명하고, 3장에서는 남북의 언어문화의 유형적 특성인 이념성, 규범성, 인위성,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적 특성을 토대로 그 변동 양상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2. 자료의 성격

본 연구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남측의 '국립국어원'과 북측의 '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되지 않은 미등재어이거나 신어이다.

[자료] 1[4]
(1) ≪표준국어대사전≫(1999) 종이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은 '웹사전' 어휘 자료
(2)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남측에서 조사한 어휘 자료

[자료] 2[5]
(3) ≪조선말대사전≫(1992)에는 수록되지 않은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 어휘 자료
(4)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북측에서 조사한 어휘 자료

[자료] 1과 2는 각각 남북의 언어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논의의 편의상 위의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어
[남] 길고양이, 눈물약,[6] 대리운전, 면요리, 발목양말, 선불제, 유기견, 재택근무, 청소기, 컵라면, 팥빙수, 히트곡 등
[북] 간참쟁이,[7] 눈치살이, 담배뜸, 리별석, 뭉치구름, 비행기배, 새우탕수, 일소리, 잔그늘, 찬물샘, 콩나물서방,[8] 통빨래,[9] 팔삭이,[10] 회견문 등

② 전문어
[남] 가자미근,[11] 산소결핍공기,[12] 압착롤러,[13] 정액뇨,[14] 편도고름집[15] 등

4) [자료] 1의 어휘 수는 130,000여 개임.
5) [자료] 2의 어휘 수는 59,000여 개임.
6) 인공 누액.
7) ≪남이 하는 일이나 말에 끼여들어 간섭하기 잘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8) ≪살이 빠져 빼빼 여윈 남자≫를 콩나물에 비겨 이르는 말.
9) ≪솜옷이나 겹옷 같은것을≫ 뜯지 않고 그대로 빠는 빨래.
10) 팔삭둥이.

[북] 가격제정,[16] 누름아픔점,[17] 덤장걷기,[18] 렬하분출,[19] 할석기[20] 등

③ 흉내말

[남] 거억거억,[21] 넌출넌출,[22] 두둥두둥,[23] 따박따박,[24] 민들민들,[25] 버물버물,[26] 질턱질턱(질척질척), 하하호호[27] 등

[북] 거적거적,[28] 나즉나즉,[29] 덜각덜각,[30] 머물머물,[31] 뱅깃뱅깃,[32] 섬칫섬칫,[33] 어쓸어쓸,[34] 자죽자죽,[35] 철컹,[36] 콰당탕퉁탕,[37] 털퍼덩,[38] 퍼득퍼득,[39] 허척지척[40] 등

④ 지역어

[남] 간풀다(개구지다, 전남), 나마니,[41] 들마꽃(제비꽃, 경북), 붉은살(노을,

11) 정강이 뒤에 있는 장딴지 세 갈래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자미 모양의 근육.
12) 공사장의 땅속 구멍이나 묵은 우물 속에 괴어 있어 산소가 결핍된 공기.
13) 물체를 압착하기 위하여 굴러 돌아가게 되어 있는, 몸통이 둥그스름한 물건.
14) 수음, 과음(過淫), 임질, 포경, 신경 쇠약 따위로 인하여 남자의 오줌에 정액이 섞여 나오는 병.
15) 편도염에 이어 일어나는 고름집.
16) 국가가 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여 값을 정하는 사업.
17) 병이 생겼을 때 누르면 아픔이 오는 반응점.
18)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친 덤장을 걷어올리는것.
19) 지각의 깊은 곳에서 좁고 긴 균렬을 따라 암장이 대량적으로 흘러나오는 화산분출.
20) 원석에 미리 홈을 치고 쪼개는 기계.
21) 숨이 넘어갈 듯이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22) 식물의 줄기가 어지럽게 늘어진 모양을 나태는 말.
23) 큰 북 따위를 잇따라 길게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24) 일일이 말대답을 하며 따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25) 겉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워 윤이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26) 여러 가지를 한데 뒤섞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27) 크게 웃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28) 글을 되는대로 막 써내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29) 여럿이 다 나즉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30) 단단하고 크지 않은 물건이 맞부딪칠 때 토막토막 끊기여 자꾸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31) 말이나 행동을 씨원스럽게 못하고 자꾸 망설이면서 굼뜨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32) 입을 살며시 벌릴듯하면서 소리없이 자꾸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33) 갑자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꾸 느끼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34) (사람이나 짐승이) 느리면서도 힘있게 걸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35) 발을 조금씩 겨우 옮겨디디며 걸어가는 모양을 이르는 말.
36) 좀 큰 쇠붙이 같은것이 부딪칠 때 울리여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37)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부딪치면서 세게 울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38)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주저앉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39) 새가 자꾸 날개를 치는것과 같은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40) 발을 맥없이 헛디디며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41) 나이가 많이 든 사람(전남)

전북), 마수리(우수리, 충남), 바질시럽다(인색하다, 경북), 샛이모(둘째 이모, 제주), 애설다(낯설다, 충북), 지지렝이(둘치, 제주), 히말탱이(힘, 전북) 등

[북] 가그랑머리(고수머리, 함북), 농오라기(노끈, 평북), 당감주(식혜, 황해), 마마콩(땅콩, 함경), 새스럽다(부끄럽다, 평북), 어두크레하다(어둑시근하다, 함경), 즈떵무럽다(밉다, 평북/함남), 힐경눈(사팔뜨기, 평북) 등

⑤ 어근

[남] 각양각이('각양각이하다'의 어근), 달크무레('달크무레하다'의 어근), 무궁번창('무궁번창하다'의 어근), 뻘쭘('뻘쭘하다'의 어근), 야불('야불거리다'의 어근), 재기발랄('재기발랄하다'의 어근), 차곡('차곡하다'의 어근), 파름('파름하다'의 어근), 험색('험색하다'의 어근) 등

[북] 갸우랑('갸우랑대다'의 어근), 당당정대('당당정대하다'의 어근), 텁적지근('텁적지근하다'의 어근) 등

⑥ 미등재어

[남] 가난스럽다, 돈봉투, 무반응, 법대생, 한길가 등

[북] 가시보시,[42] 나무잡이,[43] 답답춘이,[44] 마음싸다,[45] 등

[남북] 도랑가, 선홍빛, 진군가 등

본 연구는 위의 자료의 유형 중 일반어와 미등재어를 제외한 '전문어, 흉내말, 지역어, 어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문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언어라기보다는 전문지식과 개념에 대한 인위적 명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김진용 외, 2003). 다만, 4장에서 언어문화의 이념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어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흉내말은 전문어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사용된다. 하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그 형태만 약간씩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어휘 차이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없다(최경봉,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흉내말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46] 미등재어의 판단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42) 《데리고 사는 계집》을 얕잡아 이르던 말.
43) 나무에 바라오르는 일. 또는 그런 재주.
44) 《몹시 답답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45) 마음에 들거나 맞다.
46) 흉내말은 그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어휘들을 전체적인 체제 속에서 분석해야 그 특성을 기술 할 수 있다. 따라서 흉내말의 남북의 언어 차이에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구축한 말뭉치(corpus)의 검색 결과에 따랐다. 말뭉치 검색에서 [자료] 1은 1989년 이전, [자료] 2는 1982년 이전[47]의 용례가 발견되면 미등재어로 처리하였다.

1) 말뭉치 검색 결과 미등재어

[남] 가난스럽다, 법대생, 한길가 등

- 게딱지같이 야트막하게 군데군데 벌여져 있는 초가집들이 초라하고 {가난스럽게} 바라다 보였을 때.《1959, 김광주, 발광직전, 남》
- 남 다 안 타는 추위 혼자서 타는 것처럼 궁상맞고, {가난스러워} 뵈는 게 없으니까 하는 소리 아녜요.《1977,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남》
- 그 아래서 미술대학생인 김형남 하사와 {법대생} 박상덕 하사는 서로 유일의 친구가 되었다.《1956, 서기원, 암사지도, 남》
- {법대생이} 그쯤은 알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법정에 서는 공부는 못해 봤습니다.《1981, 김홍신, 인간시장, 남》
- {한길가}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들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그 밑을 오가는 사람들이 펄럭이는 옷자락을 여며 쥐고 몸을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1960,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남》

[북] 나무잡이, 답답춘이, 마음싸다 등

- 그의 {나무잡이} 솜씨는 다람쥐처럼 잽쌌습니다.《1980, 고상훈, 날새는 억세여간다, 남》
- 창길이, 동문 정말 {답답춘일세}. 헛고생할 때도 있는거네.《1975, 박학주, 단조공의 앞치마, 북》
- 그랬단다. 그래서 갑산내기는 해병이 된걸 그닥 {마음싸하지} 않았지.《1987, 신종붕, 여름바다, 북》
- 그러나 시어머니는 공장이라는 말이 어쩐지 {마음싸지} 않았다.《1963, 박승극, 크나큰 길, 북》

[남북] 도랑가, 선홍빛, 진군가 등

- 산비탈이라 평지싸지 수도가 나왓대도 물 기러 먹기가 어려울 텐데 저 - 알에 밧 {도랑가로} 한두엇 잇는 움물이나마 이러다가는 말을 지경이니 초식은커녕 산 사람부터 물 간안에 말을 지경이다.《1934, 염상섭, 불똥, 남》

47) 연대 기준은 각 사전의 간행연대에서 10년을 뺀 것으로, 이는 사전 편찬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 그들은 나란히 서서 저희들이 꼬마 시험 포전으로 지목해 둔 길역의 {도랑가로} 향했다.《1975, 리정숙, 지평선, 북》
- 복숭아의 {선홍빛은} 시들어, 베어 먹은 자리는 거무스름하게 수분이 말라가고 있었다.《1976, 오정희, 적요, 남》
- 철산봉의 밤하늘에 이글거리는 {선홍빛} 불노을을 온몸에 후덥게 받아 안으며 철근은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1975, 허여극, 이길우에서, 북》
- 나의 귀에는 경사를 극복하며 부른 척후병의 {진군가가} 계속 들리는듯 하였다.《1976, 리동구, 척후병, 북》

본 연구는 [자료] 1과 2의 일반어와 미등재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되, 어휘의 단어성의 판단은 논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이용한 말뭉치는 다음과 같다.

<표 1> 말뭉치 현황

구분	남측 말뭉치	북측 말뭉치	계
어절 수	250,000,000	53,000,000	303,000,000
파일 수	120,000	49,000	169,000

3.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모형

이 장에서는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을 '이념성, 규범성, 인위성,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 등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 언어문화 특성이 남북 언어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남북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을 통해 보여 주게 될 것이다.

3.1.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

Tyler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로 정의한다. 또한 Rynd는 "동일한 지역

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는 일, 행동방식, 사고방식, 감정, 사용하는 도구, 가치, 상징의 총체"로 정의한다.[48]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Thompson(1990)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Thompson(1990)의 '구조적 개념'은 문화의 상징적 형태가 구체화되는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과 상징적 형태의 총체이다. 언어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는 상징적 총체의 하나이므로, 문화의 한 하위범주로 우리는 '언어문화'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문화는 '언어사회(혹은 언어공동체)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는 문화의 한 유형으로, 언어의 모든 층위에서 발현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어휘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적 특성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이념성

해방 공간 이후 분단과 함께 남북은 사회문화적 변동에 휘말린다. 분단은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체제의 변화는 남북의 언어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제의 변화와 함께 남북 언어사회에서 언어는 체제 종속적인 규범, 가치, 신념을 생성하는 이념적 도구로 전락한다(강광식, 2000). 이념성은 남북 언어사회의 특수성이 갖는 언어문화의 한 유형이다.

(2) 규범성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어문 규범을 제정한다. 남측의 어문 규범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으로 대표되며, 북측의 어문규범은 <조선말규범집>과 <조선어외래어표기법>으로 대표된다. <한글맞춤법>과 <조선말규범집>은 모두 1933년에 제정된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재영(2011)은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의 언어 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리와 같은 표준어 정책을 쓰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표준어 정책을 추구하던 일본은 공용어 정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미국이나 스

48) 오기성(1999)에서 재인용.

페인은 표준어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의 언어사회가 얼마나 규범적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다시 말해서, 어문 규범은 남북의 언어사회에서 언어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규범적 장치이다. 따라서 규범성은 남북 언어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언어문화의 한 유형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위성

해방 후 남북은 체제와 이름을 달리하면서도 남측은 '국어순화', 북측은 '말다듬기'라는 명목으로 우리말의 왜곡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순화어'와 '다듬은말'은 언중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남북의 언어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어이다. 따라서 남북의 언어문화는 인위적 특성을 갖는다.

(4) 타자성[49]

남북 사회에서 외래문화의 기층은 미국과 소련이다.[50] 해방 이후 미군정과 소련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측 사회에서는 미국 문화가 창궐하게 되고, 북측 사회에서는 소련 문화가 유입된다.[51] 그러나 그 수용 과정은 남북이 서로 다르다. 북측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간섭 배제를 일차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측의 언어사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띤다. 반면에 남측 사회는 타자에 대하여 상대적이다. 남측 사회는 타자를 적과 동지로 양분해서 인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임희섭, 2003), 타자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열등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개 선진 국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후진 국가에 대해서는 열등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52]

49) 본 연구에서 '타자성'은 철학적 의미나 사회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타자성'은 '타자에 대한 태도나 입장'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

50)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문화는 이미 한국 사회의 기층문화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51) 임희섭(2003)에 의하면 남측 사회에서 외래문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 문화이다.

52) 임희섭(2003)에 의하면 한국인은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을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준거기준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선진과 후진으로 양분하는 인식구조 속에서 한국인은 미국을 가장 풍요하고 강대한 나라, 가장 민주화되고 평등한 사회라는 미국관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당연히 미국은 한국 근대화의 모델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측은 타자와는 무관하게 '배타적 타자성'을 유지하는 언어사회인 반면, 남측은 타자에 따라 '우호적 타자성'을 갖거나 '배타적 타자성'을 갖는 언어사회이다.[53]

(5) 다양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21세기를 규정하는 하나의 키워드이다. IT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미디어의 다원화, 광대역 네트워크의 출현,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보편화의 경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최양수, 2004),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동시에 다양화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전제 조건이다.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텍스트의 생산 방식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다양화는 일상생활에서 언어표현의 다양성을 배가시켰다. 최근 들어 라디오, 신문, 휴대전화, CMC,[54] E-mail, TV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통신언어나 유행성 신조어들은 남측 언어문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 북측에서도 1988년부터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물공학(BT)'의 발전을 꾀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전영선, 2006), IT 산업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북측의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언어문화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6) 다원성

세계화가 몰고 온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의 변화와 결혼 시장의 확대는 타민족의 유입과 함께 그에 동반된 문화의 유입을 초래하였고, 결국 '다문화'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변동은 비켜갈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화두가 '다문화'이다. 다문화의 이질적 문화요소가 확산되면서 남측은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측 사회는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북측은 오랫동안 자민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과 공존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박명규, 2011). 문화의 접촉에서 나타나

53) 남북의 언어사회는 상호 간 배타적 타자성을 갖는다.
54)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는 남측 언어문화의 다원성은 앞으로 남북 언어의 이질화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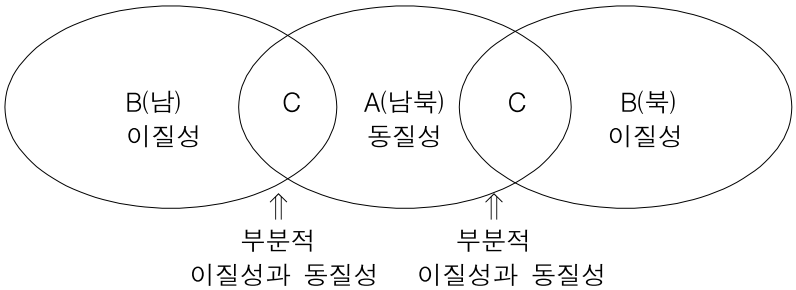
3.2. 남북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

문화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 생성의 시간적 차원에서 '기층문화(전승문화), 중층문화(수용문화), 창조문화(표층문화)'로, 향유 계층에 따라 '민중문화, 엘리트문화, 대중문화'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관련하여 '용구적 문화, 규범적 문화, 가치적 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오기성, 1999). 남북의 언어문화적 특성은 분단의 역사적인 틀 속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차원의 문화 분류법은 남북의 언어문화를 기술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다.

기층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잉태되어 전승되는 관습, 민족성 같은 것으로, 사회 내부에 내재되어 겉으로 표출되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령 남북 언어문화의 기층은 해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면 표층문화는 새로이 유입되는 문화이다. 가령, 분단 이후 남북의 어문 규범은 표층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중층문화는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이다. 가령, '녀자'와 '여자'는 어문 규범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층문화의 한 단면이다.

다음 그림은 시간적 차원에서 본 남북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이다.[55]

55) 이 모형은 오기성(1999)에서 제시한 '남북한 문화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모형'을 남북의 언어문화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타자성	규범성	타자성
다양성	이념성	
다원성	인위성	

A: 남북 언어문화의 동질성
B: 남북 언어문화의 이질성
C: 남북 언어문화의 부분적 이질성과 동질성

<그림 1> 남북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

A는 기층문화의 영역이다. 남북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보여 주는 이 영역은 표층문화와 부분적 이질성을 보여 준다. '규범성', '이념성', '인위성'은 A 영역에 해당하는 문화적 지표이다.

가령, '인민배우'와 '국민배우'는 이념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어휘로 동질성과 이질성을 모두 보여 준다. 두 어휘는 단어구조와 의미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언어적 동질성을 공유하지만, 의미의 생성 과정에서 문화적 이질성을 보여 준다. '인민배우'는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배우에게 당이 주는 칭호'이며, '국민배우'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배우에게 국민이 주는 칭호'이다. '로인'과 '노인'은 규범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어휘로 표기상의 차이를 보일 뿐 같은 말이다. '지은이'와 '지은옷'은 각각 '저자'의 순화어와 '기성복'의 다듬은말로 인위적 특성을 보여주는 어휘이다. 이들은 단어구조뿐만 아니라 의미구조도 일치한다. 두 어휘 중 하나가 남북의 어느 한 사회에만 분포한다는 사실은 이질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념성, 규범성, 인위성은 남북 언어문화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지표들이다. 이념성과 규범성은 남북 언어사회에서 동질성과 함께 부분적 이질성을 보여 주지만, 인위성은 그렇지 않다. 또한 이념성과 규범성이 갖는 부분적 이질성은 그 성격이 다

르다. 이념성이 갖는 부분적 이질성은 문화적인 것이지만(국민배우와 인민배우), 규범성이 갖는 부분적 이질성은 언어적인 것이다(노인과 로인).

B는 표층문화의 영역이다. 남북 언어문화의 이질성을 보여 주는 이 영역은 기층문화와 부분적 동질성을 갖는다.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은 남북 간 이질성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지표로 기층문화와 부분적 동질성을 갖는다. 타자성은 남북의 언어사회에 모두 존재하는 문화적 지표이지만, 다양성과 다원성은 남측의 언어사회에만 존재하는 문화적 지표이다.

가령, '트랙터(남)'와 '뜨락또르(북)'는 남북 언어문화의 타자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어휘로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보여 준다. 전자는 영어에서 후자는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외래어이다. 물론 남북의 외래어가 모두 문화적 이질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버스(남)'와 '뻐스(북)'는 모두 영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표기상의 차이만 보여 줄 뿐이다. 따라서 같은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버스'와 '뻐스'는 규범성과 관련된 어휘이며, '트랙터'와 '뜨락또르'는 타자성과 관련된 어휘이다. '먹튀, 훈남, 얼짱' 등은 다양성과 관련된 어휘로 남측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기존의 조어방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기층문화와 언어적 이질성을 보이며, 남측의 문화적 토양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북측의 언어사회와 문화적 이질성을 보여 준다. 또한 이미 '먹튀, 훈남, 얼짱'은 남측에서 최근 간행된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기층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기층문화와 부분적 동질성을 갖는다.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다원성을 보여주는 어휘로 '다양성'과 함께 남측 언어사회의 한 특성이다.

C는 중층문화의 영역으로 부분적 이질성과 부분적 동질성을 보여 주는 영역이다. C 영역은 A 영역과 관련하여 부분적 이질성을, B 영역과 관련하여 부분적 동질성을 보여 준다. 부분적 이질성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언어적 이질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C 영역에 있는 언어 사실은 기층문화로 흡수되거나, 또 다른 표층문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위의 '남북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질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지표가 A 영역보다 B 영역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의 언어사회의 유동성과 남북 언어의 이질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북측보다 남측의 언어사회가 더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언어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지표가 남측 언어사회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남측 언어사회가 유동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북측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측의 내재적인 논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맹목적인 전체주의적 접근이나 선정주의적 경향을 띤다(오기성, 1999). 다시 말해서, 이질화의 책임을 북측의 획일적 언어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북측도 남측에 이질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김혜영, 2013).

둘째,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어적 사실보다는 문화적 사실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나무군'과 '나무꾼'은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어휘인가. 또한 '나무군'과 '나무꾼'이 이질화의 한 예라면, 이질화를 판단하는 기준 어휘는 '나무군'인가 아니면 '나무꾼'인가. 아니면 '나무군'도 '나무꾼'도 아닌 '나뭇군'인가. 적어도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층 언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해방 이전까지의 한글을 남북의 기층 언어로 본다면, 기준 어휘는 '나뭇군'이다. 그렇다면 '나무군'과 '나무꾼' 기층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이질적이다. 반면 '일군'과 '일꾼'의 경우는 오히려 '일꾼'이 이질적이다.

문영호(2002)는 "아직 우리 말의 문법적 체계와 문장구조가 살아 있고 기본어휘구성이 전승되여 오는것만큼 민족어의 이질화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남기심(2002)은 "남북 언어 이질화에 대한 우려는 높으나 '이질화'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언어 체계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이질화'라 일컫는 것인가에 대해 개념부터 정의가 되어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설 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남북 간에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의 심각한 이질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남기심(200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 언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질화의 기준은 '의사소통의 장애'이다.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행위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은 문화의 산물이고, 역으로 문화는 의사소통의 양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의사소통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다(강길호 외, 1998). 사회적 관점에서 언어 규칙은 처방적인(prescriptive)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descriptive) 것이다. 언어 규칙이 기술적이라는 사실은 그것

이 작동하는 사회의 문화 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어 규칙은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의 문화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남북 언어의 이질화의 기준을 의사소통에 둔다면 이질화는 인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남북에서 발생한 언어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수반할 때 시작된다. <그림 1>의 남북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에서 이질성과 동질성은 문화적 차이에 그 기반을 둔다.

이질화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질화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어휘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음운이나 문법 층위에서는 여전히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함축적 전제이다. 어휘적 층위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 연구는 대개 다음과 같은 범주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

(1) 언어 정책[56]

언어 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개 두 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첫째, 남북이 규범어[57]의 준거 지역 달리 규정함에 따라 문화어에 방언이 유입되어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측의 획일적인 말다듬기 정책으로 인한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방언은 언어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차이이며, 해당 지역 내에서는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언어 변화일 뿐이다. 순화어와 다듬은말은 언어적 보편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말이다. 따라서 순화어나 다듬은말은 해당 언어사회의 언어적 질서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정책은 이질화의 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없다.

(2) 어문 규범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한 남북의 표기 차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어문 규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언어적 이질성은 규범의 합의에 따라 환원될 수 있는 언어 차이에 불과하다. 어문 규범에 의해 남북에서 발생한 언어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언어 규범은 이질화의 요인으로 볼 수 없다.

56) 남북의 언어 정책과 어문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오현 외(2003)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57) 본 연구에서 '규범어'는 '표준어'와 '문화어'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3) 의미 분화

어휘의 의미 분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북 체제의 변화에 따라 남북에서 서로 달라진 의미 차이를 다루고 있다. 의미 분화를 보여주는 어휘를 언어 변화의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의미 분화를 보여 주는 유형과[58] 그러한 의미 분화가 문화적 차이를 수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후자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특수성이다. 따라서 전자는 이질화의 요인으로 볼 수 없지만, 후자는 이질화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신생어

체제의 변화와 함께 서로 달라진 문화적 토대 위에 남북에서 조어된 어휘 차이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생어 또한 조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수반하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의미 분화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자는 이질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이질화의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질화의 기준을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남북의 문화적 차이로 본다면, 어휘적 층위에서 남북 언어의 이질화의 요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60여 년의 분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언어사회는 여전히 동질적 요소가 더 많아야 한다. [자료] 1과 2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남북의 언어사회가 여전히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휘적 층위에서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자료] 2와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어휘가 15,000여 개[59]가 넘었다. 또한 [자료] 1과 2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어휘가 3,400여 개에 달하였다.[60]

58) 가령, '백수'는 남북이 모두 '빈손'이라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남측에서는 '백수건달'의 의미로도 쓰인다.
59) 전문어, 흉내말, 미등재어 등을 포함한 어휘 수이다.
60) 이 장에서 제시하는 어휘들은 분단 이후 남북의 언어 현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950년 이후 만들어진 미등재어를 포함한다.

(1) [자료] 2가 ≪표준국어대사전≫(1999)와 일치하는 어휘

• 가재탕, 놀이방, 달동네, 막국수, 반대표, 수단가 등

- 어서들 오너라. 내 맛있는 {가재탕을} 끓여놨다.《1995, 리태윤, 벼이삭, 북》
-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숙제를 다 끝낸 그들을 따라 우리는 {놀이방으로} 올라갔다.《1991, 리규홍, 나는야 꽃봉오리, 북》
- {달동네인생이} 무슨 고등학교냐고 곱실이쪽에서 반대했으나 천안집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1992, 최태현, 눈물받이, 북》
- {막국수는} 메밀가루로 국수사리를 만들어 김치국물에 말고 김치꾸미를 얹은 다음 고추양념을 쳐서 먹는다.《2002, 서영일, 강원도지방특산음식, 북》
- 자동차 운전칸으로 올라가는 당비서의 립장을 아는 이상 어떻게 또다시 지배인의 대책안에 {반대표를} 던지랴 싶었다.《2003, 윤원삼, 땅의 숨결, 북》
- 김현길이 혹시 {수단가일수는} 있어도 진짜 의미로서의 《활동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뇌리를 집게처럼 문 것이였다.《2010, 정영종, 북방의 노을, 북》

(2) [자료] 1과 [자료] 2에서 서로 일치하는 어휘

• 개인주택, 골패쪽, 대식구, 막내손자, 빙판길, 생땀 등

- 두번째로 걸고든것이 국가자금을 {개인주택건설에} 리용했다는 터무니없는 죄였다. 《2012, 허문길, 승자와 패자, 북》
- 맥콘이 롯크에게 물었다. 롯크는 {골패쪽을} 던지듯 응접탁우에 독뱀을 그린 휘장을 집어던졌다. 《1987, 허종선, 낯선 대위, 북》
- 삼촌 사촌지간이 모두 한지붕아래 모여살던 {대식구가} 지금은 시아버지와 동서들 서넛, 아이들 대여섯명이 이 일가의 대표자로 되였다.《1994, 박혜란, 봄의 축복, 북》
- 그제야 상훈은 지금 말하는 청년이 어제저녁 자기에게 인사를 꾸벅하던 오장서의 {막내손자} 봉손이라는것을 알았다.《1988, 정창도, 귀향, 북》
- 그런 신념으로 굴곡의 {빙판길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렸던것이다.《1994, 박혜란, 봄의 축복, 북》
- {생땀만} 빼면서 헛걸음만 하게…《1998, 리기창, 병사의 숨결, 북》

아래의 (3)과 (4)는 [자료] 1과 [자료2]에서만 조사된 어휘의 일부이다.

(3) [자료] 1에서만 나타나는 어휘

• 가게세, 내연녀, 단팥빵, 모병제, 바탕화면, 솜주먹 등

- 자칫하면 {가게세와} 생활비를 고스란히 운전 자금에서 까먹을 판이었다.《1995, 한석청, 먼 데서 온 손님, 남》
- 꼭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나온 아내의 기분이 들었다.《2012, 이하윤, 지독한 갈망, 남》
- 환타 병 뚜껑에는 검푸른 녹이 슬어 있었고, {단팥빵} 봉지에는 먼지가 허옇게 앉아 있었다.《2001, 박정애, 물의 말, 남》
- 그러니 제 옹졸한 생각으로는 의무병 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2009, 유용주, 어느 잡범에 대한 수사 보고, 남》
- 전원 단추를 누르자 14초 만에 {바탕화면이} 떠올랐다.《2011, 최인석, 연애하는 날, 남》
- 청카바에게서 허풍을 빼면 물살과 {솜주먹밖에} 남는 게 없었으니까.《2006, 성석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남》

(4) [자료] 2에서만 나타나는 어휘

• 곰순대, 떨보, 담배뜸, 막종이, 소름발 등

- 중대장동지, 말씀하십시오. 밸을 가지고 순대를 하잡니까. {곰순대보다는} 못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2006, 김순철, 시어머니, 북》
- 산이 커야 그림자도 크다고 넌 키가 작으니 심장도 작아. 키도 작지, 눈도 작지, 심장도 작지… 그러니 떨수밖에… 얘들아, 우리 이 {떨보를} 혼내주자.《1991, 김은옥, 단발머리, 북》
- 동식은 준호를 깨울가 하다가 {담배뜸에} 한번 놀라보라는 심산으로 지켜보는데 석탄부스레기가 안전모를 두들긴다.《1983, 리룡선, 마음의 구김살을 펴라, 북)
- 벽장안에는 석철이 가져다준 노란 라크칠을 한 장판종이와 초벌바르기를 할 {막종이를} 한데 둘둘 말아 노끈으로 허리를 동여맨 퉁구리와 함께 난데없이 계란빵을 한가득 싼 종이꾸레미가 들어있었다.《1984, 변희근, 뜨거운 심장, 북》
- 기찬이는 {소름발이} 돋으며 몸이 오싹했다.《1976, 김원복, 그들이 가는 길, 북》

(3)과 (4)는 남북의 어느 한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남측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3)의 용례와 북측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4)의 용례를 보고 남북의 언어 사용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어휘는 남측의 언어사회에는 존재하지만, 북측의 언어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러한 언어 현실을 남북 언어의 이질화로 인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두 언어사회에서 어떤 어휘는 어느 한 쪽에서는 실재어로 존재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잠재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5)는 [자료] 1의 어휘 중에서 북측의 용례가 발견되는 예이고, (6)은 [자료] 2의 어휘 중에서 남측 용례가 발견되는 예이다. (5)와 (6)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언어사회의 동질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료] 1의 어휘 중 북측의 용례가 발견되는 예

• 목끈, 보슬눈, 송금액, 욕벼락 등

- 그리하여 아버지는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모든 미련을 힘겹게 털어버리고 떨리는 손에 암송아지 {목끈을} 꼭 쥐게 되였다.《2005, 박성진, 소달구지, 북》
- {보슬눈은}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1984, 김명익, 어머니, 북》
- 빵 한쪽을 위해서도 팔아야 했고 고향에 보낼 {송금액을} 불구기 위해서도 뽑아준 피였다.《1980, 최용규, 시대의 노래, 북》
- 창길이가 아바이의 {욕벼락을} 들쓰면서도 자꾸 도적집게질을 하도록 부추긴것도 대석이였고 오늘아침엔 창길이가 집게를 꽉 부르쥐고 아바이앞에 맞섰을 때 보수주의에 걸리지 말고 맡겨보아야 한다고 내댄것도 대석이였다.《1975, 박학주, 단조공의 앞치마, 북》

(6) [자료] 2의 어휘 중 남측의 용례가 발견되는 예

• 마구라기, 마당개, 붕어탕, 성노리개 등

- 사람들은 그래서 눈썹이 보이지 않게 {마구라기} 깊숙이 눌러쓰고 입성이 추레한 떠돌뱅이를 긴짐승 대하듯 하였는데, 가분재기 늘어난 용천뱅이들이었습니다.《1998, 김성동, 먼곳의 그림내에게, 남》
- 사실은 {마당개가} 진짜 개지…… 그래도 신통한건 이놈이 어릴 때부터 격의없이 대해주니까 자길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야.《2001, 이제하, 뻐꾹아씨, 남》
- 기운 잃은 디는 {붕어탕이} 최고여. 개똥도 약에 쓸 디가 있다드만. 그놈하는 짓이 신통할 때가 다 있구먼.《2003, 이현수, 불두화, 남》
- 쇼메이는 {성노리개라는} 말로 위안부라는 말을 쉬 알아들었다.《2011, 박인식, 첫사랑뿐, 남》

이질성은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동질성을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남북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문화의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한 시인의 성찰은 남북 언어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는 한 지평이 될 것이다.

> "이질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앞서 동질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선행되기 바란다. 아니 이질성과 동질성의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호부정적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새로운 복합개념으로서의 동(同)·이(異)의 '합질(合質)'을 기대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동질성이라는 것이 행여 획일주의와의 내통이 아닌가라는 것, 동질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예리한 의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
> 이럴 경우 이질성이라는 것은 퍽이나 허방일 경우도 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 동질성의 미래는 강조할수록 그 동질성은 만고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의 규범이나 정서와 함께 일어나는 문화내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질성 자체도 불변의 전통이 아니라 시간의 일정한 축을 함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역사서술의 시대구분이 보여주는 여러 전통문화의 특징 자체가 각 시대를 거치는 동질성이기도 하고 각 시대를 거치는 동안의 이질성이라는 차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
> <동질성에 대한 한 발언>(고은, 2006)

4. 남북 언어문화의 변동 양상

3장에서 남북 언어문화의 특성을 이념성, 규범성, 인위성,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언어 변화가 문화적 차이를 수반하는 이념성,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을 중심으로 언어사회의 변동이 남북의 언어문화의 변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4.1. 이념성

남북의 언어문화는 이념적 특성을 갖는다. 해방 공간 이후 남북은 체제 결속을 위해 첨예한 이념적 정쟁을 벌여왔다. 남측은 '발전주의'와 '반북주의' 이데올로기를 주된 구심점으로 삼고 국민 통합 전략을 구사해 왔다(전효관, 1998). 북측은 유일 체제의 결속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의 고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반미반제'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본주의의 병폐와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이호영, 2003; 이무영, 2005).

이러한 언어사회의 변동으로 남북은 체제 지향적인 언어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체제 지향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어휘들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반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①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념성을 갖는 어휘, ② 만들어진 후에 이념성을 획득하는 어휘, ③ 사회적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어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의 예는 남측 언어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①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반공, 멸공/남조선, 반동분자 등을 들 수 있으며, ②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교양, 동무 등이 있다. ③에 해당하는 어휘는 민방위, 반상회/로동당, 천리마운동, 태양절 등이 있다.

(1) 체제 지향적 문화(1990년 이전)
[남] 멸공, 반공, 멸공주의, 민방위, 반상회, 반공주의, 새마을운동, 선거전, 야당, 여당, 예비군, 유신헌법 등
[북] 교시, 교양, 남조선, 당성, 동무, 동요분자, 로동당, 반동분자, 북조선, 천리마운동, 태양절 등

체제 지향적 언어문화의 발생은 남북이 공히 공동체 내부의 통합을 위해서 분단과 전쟁위협의 상존이라는 현실을 이데올로기와 결부하여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집단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이념적 언어문화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분단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남측 사회에서 6.15선언과 함께 이념적 논쟁이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다가, 참여정부 이후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그 소용돌이의 핵심에 있는 어휘는 '친북'

과 종북'이다. 반면 북측 사회의 핵심 어휘는 '선군'이다. 이는 북측의 체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등장한 '선군사상'을 언어사회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자료] 1과 2에서 보여주는 체제 지향적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2) 체제 지향적 문화(1990년 이후)

[남] 국민정부, 문민정부, 보수, 좌빨, 종북, 종북주의, 종북주의자, 진보, 참여정부, 친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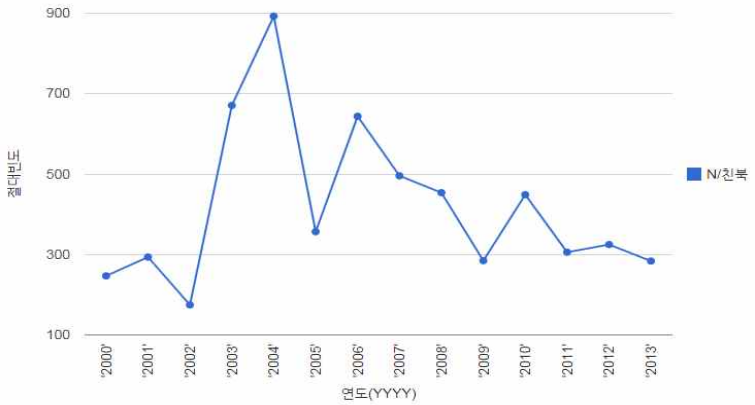
- 설령 남한의 대항 헤게모니 전사들이 북한과 아무런 커넥션 없이 자생한 좌파 지식인들이라 하여도 {친북} 용공의 의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2006, 이문열, 호모 엑세쿠탄스, 남》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지요. 친북, {종북} 세력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2012, 이원호, 질풍시대, 남》
- 반대만 말해도 대운하 반대만 말해도 민영화 반대만 말해도 좌빨이라니, 그들과 함께 걷기만 해도 {좌빨이라니} 어쩔 수없이 n은 본의아니게 좌빨이 되어 걷고 있었다.《2011, 우선덕, 어느 날 갑자기, 남》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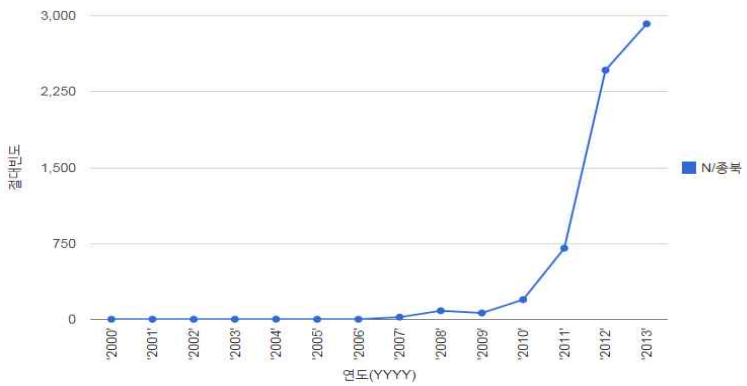
① 강성대국, 선군, 선군사상, 선군정치, 선군혁명령 등

② 관리혁명, 군중투쟁, 기본생산로력, 녀성혁명화, 대중투쟁, 도시자치혁명, 로력투쟁, 민중혁명, 반혁명분자, 부단혁명, 상업로력, 선군혁명, 소득혁명, 적색혁명, 전투과제, 절약투쟁, 주물혁명, 주체혁명, 총력투쟁,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혁명조직, 혁명투사, 홰불투쟁 등

-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을 받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애쓰는데 한쪽에서는 공동질서를 헌신짝처럼 생각하니…《2000, 송병준, 푸른잎, 북》
- 내 조국을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1998. 12. 18.》
- 우리 렬차방송은 려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해설선전하고 …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선전하며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선동사업을 진행하고있다.《2009, 정영식, 렬차방송과 우리 생활, 북》



<그림 2> '친북'의 연대별 출현 빈도수



<그림 3> '종북'의 연대별 출현 빈도수

위의 <그림> 2와 3은 '친북'과 '종북'의 연대별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의 연대별 출현 빈도의 변화가 남측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61]

이 시기 북측은 '우리식 사회주의'[62]를 주창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의 '조선중앙방송'에서 상품 광고가 방송

61) <그림> 2와 3은 고려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62) 북측은 <근로자> 90년 12월호에 실린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 제하의 글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한 차원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호영, 2000).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감지된다.[63]

이러한 북측 사회의 변동은 언어문화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자료] 2에 나타나는 자본주의 문화를 나타내는 어휘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자본주의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

[북] 개인주택, 돈소나기, 돈주, 차압딱지 등

- 두번째로 걸고든것이 국가자금을 {개인주택건설에} 리용했다는 터무니없는 죄였다.《2012, 허문길, 승자와 패자, 북》
- 그 목청이 아깝구만. 이제라도 무대에 나서면 {돈소나기를} 맞고 팔자를 고칠수 있겠소.《2005, 온영수, 밭갈이노래, 북》
- 그땐 형사도 검사도 모자벗고 인사하게 될게다. 이건 {돈주인} 내가 있는 한 당장 될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승이한테 이런저런 말썽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내가 더 세심히 관심해 줘야겠다.《2003, 박찬은, 재부, 북》
- 김춘봉은 사흘안으로 세금을 물지 않으면 보위단원들이 와서 집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내쫓거나 아예 깜장콩알을 먹인다고 을러메고 잔기침을 하며 가버렸다.《2011, 백보흠, 새날을 불러, 북》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에는 ≪표준국어대사전≫(1992)에 실려 있는 '경제비, 경제성장, 사채시장, 주식시장' 등과 같은 자본주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상당수 수록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표방 이후 북측 사회에서 점차 이념적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의 사용 빈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북측 말뭉치를 90년 이전과 90년 이후로 나누어 검색한 단어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보여 준다.

63) 2009년 7월 '대동강 맥주'의 광고가 방송된 이후로 '옥류관 메추리 요리', '휘파람 자동차', '개성 인삼' 등이 차례로 방송되었다.

<표 2> 체제 지향적 어휘의 빈도

검색어	빈도수		백분율		비고
	'90년 이전	'91년 이후	'90년 이전	'91년 이후	
계급	6,900	13,362	0.046	0.037	
교양	3,357	6,752	0.022	0.019	
반동	2,162	4,678	0.014	0.013	
분자	1,624	2,418	0.011	0.007	
부르죠아	205	805	0.001	0.002	
소조	3,001	3,926	0.020	0.011	
주체사상	4,102	4,864	0.027	0,013	
투쟁	11,404	31,825	0,076	0.088	
파쇼	1,640	718	0.011	0.002	
해방	7,457	16,042	0,050	0.045	
혁명	29,991	70,567	0.200	0.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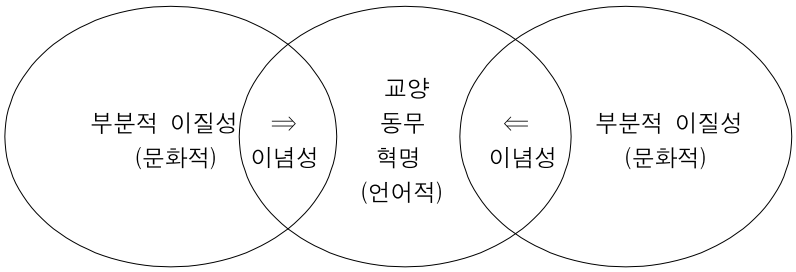
※ 1991년 이후 북한 말뭉치 어절 수: 36,796,259, 약 36,000,000 어절
※ 1990년 이전 북한 말뭉치 어절 수: 15,858,663, 약 15,000,000 어절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르죠아'와 '투쟁'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부르죠아'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에 대한 견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쟁'이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 사기와 협잡,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는 부르죠아사회에서는 참다운 인간의 품성이란 없다.《1987, 전국봉, 인간과 품성, 북》
-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청년조직들은 <구락부>로 전락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썩어 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의 수렁속에 깊이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고 투쟁하기 싫어하면서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 먹고 있습니다.《2002, 백남룡, 계승자, 북》

체제 지향적 어휘들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 사회의 '선택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의 효과가 언어사회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성이 갖는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이념성과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

4.2. 타자성

남북의 언어문화는 배타적 타자성과 우호적 타자성을 갖는데, 남측 사회에서 타자성은 타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타자성이란 타자에 대한 내자의 태도나 입장이다. 북측의 언어사회는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배타적이다. 이러한 언어사회의 배타적 성격은 1964년과 1966년에 발표한 1, 2차 교시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물론 외래어를 다 없앨수는 없습니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것은 피할수 없으며 얼마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용어 외래어를 적지 않게 써야 할것입니다. <뜨락또르>, <선반>, <볼반>, <타닝반>과 같은 말은 다 그냥 쓰는 것이 좋습니다. <뜨락또르> 같은것은 원래 우리 나라에 없었던것이기때문에 외래어를 그냥 쓰는수밖에 없습니다.
>
> <1964년 1차 교시 중에서>

[자료] 2에서 나타나는 외래어 1,300여 개 중 일반어는 아래에 제시한 2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전문어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측의 언어사회에서 1차 교시가 여전히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료] 2에서 전문어가 아닌 외래어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타자성과 외래어(북)

①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

게임, 게이트볼, 나프킨, 누들, 런너, 런닝그, 마뜨, 머스터드, 모텔, 보링, 복스, 싸우나, 싸이트, 싸파리, 이글루, 이젤, 줌렌즈, 키보드, 팍스, 포마트 등

- 동지가 콤퓨터앞에 앉아 {게임에} 빠져 발을 구르며 소리치는게 아니겠어요?《2005, 장순화, 사랑합니다, 북》
- 피묻은 입을 닦는 {나프킨으로} …《2009, 최숙영, 연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풍자시문학, 북》
- <동창회>가 {싸우나탕으로라도} 된가 보지?《2005, 림재성, 북극성, 북》
- 회의장의 한쪽 모퉁이에서 주눅이 들어 오금을 펴지 못하는 불순분자들을 {줌렌즈의} 전진에 의한 빠른 이동으로 포착하였다.《2008, 서재우, 조형적 형상에 비낀 풍만한 정서 화면음악《강선의 노을》을 놓고, 북》
- 따라서 조민하 자신도 텔렉스나 {팍스보다} 자기의 목청을 더 믿는다.《2003, 주유훈, 새벽하늘, 북》

② 러시아어에서 들어온 외래어

까밀라브까, 까프딴, 라구, 보깔, 란게뜨, 까민 등

- 자기 {보깔에도} 절반쯤 채운 다음 말없이 한모금 마시고 나서 원탁우에 놓인 빠삐로쓰를 피워물었다.《1993, 리장후, 전선, 북》

'반제반미'를 모토로 하는 북측 사회에서 미국 문화에 대해 배타적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자료] 2에서 예상과는 달리 영어에서 들어 온 외래어 수가 러시아어보다 월등히 많다.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949개, 러시아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68개에 불과하다. '북측의 외래어는 러시아어를 통해서 들어 온 것들이 많다'는 조오현 외(2003)의 기술은 실제 언어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남측 사회의 외래어 수용은 북측의 실정과는 많이 다르다. 이른바 1997년의 'IMF 사태' 이후 남측 사회는 '국가경쟁력'과 '신자유주의'라는 명목하에 세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외래어의 사용이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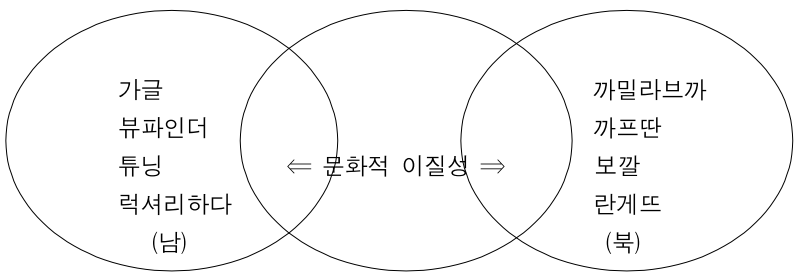
(2) 우호적 타자성과 외래어

[남] 가글, 게임머니, 라운드넥, 롤모델, 미드필드, 뷰파인더, 세레머니, 오일머니, 컵홀더, 튜닝, 네추럴하다, 노블하다, 력셔리하다, 리필하다, 멘트하다, 배팅하다, 샤프하다, 스톱하다, 유니크하다, 캐치하다, 글로벌하다, 터프하다 등

- 제발 {가글} 좀 하라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2004, 강영숙, 빙고의 계절, 남》
- {게임머니가} 충전된 컴퓨터 화면만 빛났다.《2012, 성석제, 위풍당당, 남》
- 나는 {뷰파인더로} 아버지를 들여다보았다.《2010, 윤성희, 구경꾼들, 남》
- 콜라를 두 번이나 {리필해} 와 마신다.《2006, 임정연, 바나나펀, 남》
- 경찰서장은 갑자기 자기 가슴을 {터프하게} 탕탕 쳤다.《2012, 심재천, 나의 토익 만점 수기, 남》
- 초등학교에서 대학사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같은 교육풍토로는, 지금 같은 교사와 교수들의 자세와 태도로는 변화되어가는 {글로벌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2010, 김용택,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 맞추다, 남》

남측 사회에서 외래어는 입말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 같은 문예 작품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지만, 북측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측의 언어사회에서는 어문 규범이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타자성이 갖는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타자성을 갖는 어휘는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만을 보여 줄 뿐 부분적 이질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림 5> 타자성과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

4.3. 다양성

남측의 언어사회는 북측의 언어사회와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언어 표현의 다양성으로 실현되므로, 남측의 언어문화는 표현적 다양성을 갖게 된다. 21세기 남측의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정보기술(IT)의 발달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다원화와 광대역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의사소통의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언어 표현의 다양성도 증가되었다. 개개인의 즉흥적인 언어 표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또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이러한 유행성 신조어[64]들은 마치 은어처럼 은밀히 생겼다가 전체 언중에 의해 빠르게 전파되는가 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리거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가 되기 일쑤다(김혜정, 2013).

유행성 신조어들은 남측의 언어사회 내에서도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할 만큼 그 뜻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도 담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1) 남측 사회의 유행성 신조어

① 간장남, 간지남, 경제력남, 고추장남, 까도남, 까칠남, 느끼남, 된장남, 따도남, 몰상남, 베타남, 부친남, 불륜남, 성공남, 순정남, 순진남, 썸남, 애완남, 엄친남, 온미남, 완벽남, 완소남, 육식남, 인기남, 재고남, 짐승남, 쩍벌남, 초식남, 추접남, 품절남, 훈남 등

② 간지녀, 개똥녀, 건어물녀, 교태녀, 까도녀, 까칠녀, 냉미녀, 냉정녀, 닭살녀, 독설녀, 된장녀, 따도녀, 베이글녀, 불륜녀, 삽질녀, 생강녀, 선수녀, 순진녀, 썸녀, 엄친녀, 완벽녀, 완소녀, 의리녀, 인기녀, 재고녀, 찜녀, 초혼녀, 품절녀, 화떡녀, 훈녀 등

③ 깜놀하다, 야사시하다, 애정하다, 므흣하다 등

④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직딩, 노딩 등

⑤ 돌싱, 돌싱맘, 파파걸, 마마걸, 마마보이 등

⑥ 썩소, 완소 등

⑦ 안습, 케안습 등

⑧ 빠돌이, 척돌이, 척순이 등

64) ‘유행성 신조어’는 매체의 발달과 함께 언어 표현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어휘와 통신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다. 물론 ‘유행성 신조어’와 ‘통신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⑨ 고공족, 공구족, 나토족, 노잡족, 대오족, 도시락족, 동태족, 둥지족, 메뚜기족, 면창족, 문어발족, 배터리족, 베타족, 부엉이족, 새벽닭족, 생태족, 야타족, 어브로드족, 에스컬레이터족, 웰빈족, 유턴족, 자출족, 장미족, 직테크족, 체인지족, 칩거족, 코쿤족, 코피스족, 키덜트족, 펌킨족, 펭귄족, 핑크족, 하비족 등
⑩ 몸짱, 얼짱, 춤짱, 킹왕짱 등
⑪ 건테크, 시테크, 직테크, 차테크, 혼테크 등
⑫ 눈팅, 정팅 등

- 애처녀는 물론 된장녀나 {개똥녀처럼} 김명자에게 붙여진 망상의 이름이었다.《2007, 김남일, 망, 남》
- 지드래곤 겨울 코트 "역시 뭘 입어도 {간지남}"《헤럴드 생생뉴스, 2013. 10. 23》
- 태티서 멤버 외에도 유리가 등장해 폭풍 {간지녀} 대열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경인일보, 2013. 3. 31.》
-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중엔 마마보이, {마마걸이} 의외로 많다.《1994, 김정일,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찢어라, 남》
- 닥쳐. 고리타분한 소리하지 마. 언니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파파걸이잖아}. 아빠한테 집착해서 남자라면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여태 연애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갔잖아.《2011, 이남희, 거미집, 남》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행성 신조어들은 단어 조어 방식도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신조어들의 일부는 최근 간행된 국어사전에 실리기도 하였다.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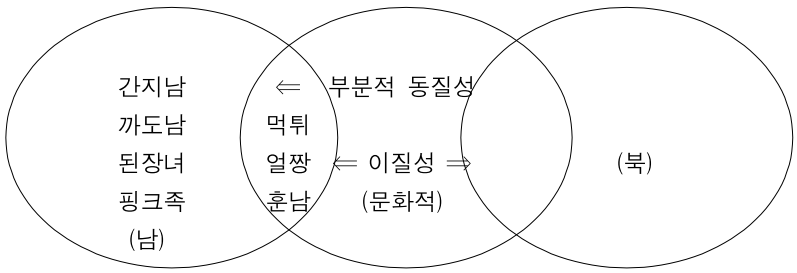
(3) 국어사전에 수록된 유행성 신조어
• 먹튀,[65] 몸짱,[66] 얼짱,[67] 초딩,[68] 훈남[69] 등
- 지금 빨리 답 문자를 보내두지 않으면 그다음 문자는 해요체마저 생략한 너네 {먹튀하는} 사기꾼들이지?《2011, 구병모, 어떤 자장가, 남》
- 팔이 드러나는 반팔 스판 셔츠를 입은 그는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몸짱}

65)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66) 몸매가 아주 늘씬하거나 근육이 보기 좋게 발달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67) 얼굴 생김새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68)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얕잡아 이르는 말.
69)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성품을 지닌 남자를 이르는 말.

청년이었다.《2011, 강영숙, 아령하는 밤, 남》
- 그때 벌써 {얼짱} 각도로 포즈를 취했다.《2007, 권현숙, 순장, 남》
- {초딩} 때 애련은 총명하고 노래 잘하는 아이였다.《2007, 박어진, 나이 먹는 즐거움, 남》
- 어쩌다 이런 {훈남이}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을까? 정말 사람 인연이란 게 있나 봐. 인연이 되려고 그렇게 같은 곳에서 밥을 먹었던 거야.《2011, 고예나, 클릭 미, 남》

이러한 유행성 신조어들이 남측의 언어사회에서 얼마나 살아남아 단어로서 생명력을 갖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유행성 신조어들은 북측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요소이다.

다양성이 갖는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다양성과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

4.4. 다원성

남측의 언어문화는 북측 언어사회와는 상대적으로 다원성을 갖는다. 21세기 남측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다문화이다. 다문화와 관련하여 북측은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을 거세하고 ‘다민족, 다인종사회화’를 추구하는 괴이한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노동신문, 2006. 4. 27.)”며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다. 북측의 입장에서 다문화는 ‘민족 해체’인 셈이다.

문화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문화의 변화는 대체로 과학 기술의 발전, 정신적인 개혁, 새로운 정책개발,

인구의 증가와 같은 내부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외국문화의 수용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오기성, 1999).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유입은 단순히 인구의 유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유입과 함께 문화의 유입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측 사회에 태국, 필리핀, 몽골 등의 문화가 유입되어 상존하고 있다. 선험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남측 사회는 '열등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 타자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림(2012)은 다문화 성장 소설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가 권력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제3세계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외국인, 비국민이라는 타자성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측의 언어사회에 이러한 문화적 변동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의 예들은 남측 사회에서 소수 문화의 변동 과정을 잘 보여주는 어휘들이다.

(1) 베트남 음식 어휘: 쌀종이, 월남쌈, 쌀국수 등
- 바싹 말라 딱딱한 쌀종이를 쌈으로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슬쩍 담그면 책받침처럼 굳은 {쌀종이가} 물을 먹으며 신통하게도 금세 흐물흐물해진다.《2006, 유재현, 메콩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남》
- 베트남 아내와 {월남쌈을} 먹는 정섭 씨를 상상하자 흐뭇했지만 더 이상 그와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슬펐다.《2011, 하재영, 같이 밥 먹을래요, 남》
- 저녁 때 이들과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을 나눠먹고 싶지는 않았다.《2010, 서준환,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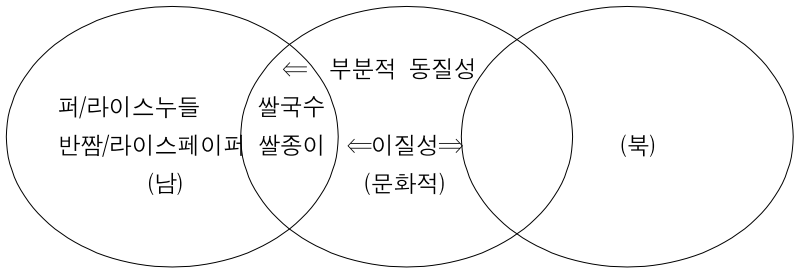
(2) 태국 음식 어휘: 게카레, 볶음국수 등
- 그녀는 근처 백화점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로 내려가 {볶음국수와} 딤섬과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2011, 윤대녕, 통영 홍콩 간, 남》

쌀종이는 베트남어로 '반짬'이다. 남측의 언어사회에서 '열등적 지위'로 낙인 찍힌 '반짬'이 그대로 수용될 리는 없다. '반짬'은 수용 과정에서 '라이스페이퍼'라는 문화적 변용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 '라이스페이퍼'는 남측 사회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문

제는 ‘쌀종이’이다. 아직 ‘라이스페이퍼’보다는 우세하지는 않지만 점점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쌀국수’는 베트남어로 ‘퍼’이다. ‘퍼’는 ‘라이스누들’이라는 문화적 변용 과정을 거쳐 이미 ‘쌀국수’로 정착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부 문화의 수용과정에 나타나는 남측 사회의 언어문화는 북측의 언어사회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남측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은 남북의 언어 이질화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다원성이 갖는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다원성과 언어문화의 구조적 모형

5. 맺음말

본 연구는 1990년을 전후로 남북의 언어문화의 변동 양상을 실제 언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을 ‘이념성, 규범성, 인위성,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이 남북 언어문화 구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또한 남북 언어의 이질화의 한 기준을 ‘의사소통 장애’로 보고, 이질화는 인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남북에서 발생한 언어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수반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4장에서는 언어 변화가 문화적 차이를 수반하는 이념성, 타자성, 다양성, 다원성을 중심으로 언어사회의 변동이 남북의 언어문화의 변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① 이념성: 남북 언어문화의 이념성은 남북 체제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참여정부 이후 남측 언어사회에서는 이념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북한 언어사회에서는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② 타자성: 남북 언어문화의 타자성은 남북의 대외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어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북측 언어사회는 타자와 관계없이 배타적 타당성을, 남측 언어사회는 타자에 따라 상대성을 보였다. 남측에 유입된 소수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며, 주류문화에서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③ 다양성: 남북 언어문화의 다양성은 언어 사용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사소통의 채널의 급속한 증가는 남측 언어사회 언중들의 언어 표현 방식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다원성: 남북 언어문화의 다원성은 외부 문화의 유입에서 비로된 것으로 남측 언어사회에만 해당된다. 다원성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남북 언어문화의 이질화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본 연구가 “언어 규범의 차이와 국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어휘.문체의 차이는 그 깊이와 폭이 어는 정도나 되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어야 할까?(고영근, 1999)”라는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 데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광식(2000),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그 연구의 방향과 과제”,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교육인적자원부.

강길호 외(1998),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강미옥(2014),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은(2006), “동질성에 대한 한 발언”, 『통일의 조건, 민족문화 동질성』, 한국국학진흥원, pp. 17-24.

곽충구(2001), “남북한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원, pp. 5-27.

길은배(2005), “북한의 사회문화 변동과 북한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학연구』 12-2, pp. 208-228.

김혜정(2013),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 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한말연구』 33, pp. 121-163.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pp. 7-12.

남기심.김하수(1989),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문영호(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pp. 13-21.

박명규(2011), “문화의 다양성과 남북문화통합: 쟁점과 전망”, 『문화 다양성과 남북문화통합』, 문화체육관광부, pp. 3-18.

방영심(2005), “≪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 처리와 문제점”,『한국사전학』 6, pp. 145-169.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이순영(2010), 『한국인의 자아정체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옥란(2000), “남북의 언어 문화”, 『국어교육』 102, pp. 279-332.

이주행(2006),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에 관한 고찰”,『국어교육』 121, pp. 215-244.

이호영(2000), “해방후 남북한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 ‘타자성’의 사회학”,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교육인적자원부.

전미영(2006), “남북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의 과제”, 『통일문제연구』 46, pp. 89-115.

전영선(2006), 『북한의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역락.

전영선(2013), 『북한의 언어 -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에스에이치미디어.

전효관(1998),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 담론의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제30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문.

조오현 외(2003), 『남북한 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최용기(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pp. 199-228.

최호철(2001),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원, pp. 62-72.
한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제11차 남북 언어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한재영(2011), “외국의 표준어 정책”,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pp.37-58.
Tyler, E(1924), Primitive Culture, Gloucester, MA: Smith.
Thompson, John, B.(1990),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사전류]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2006),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주 제 발 표

중국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

최 희 수

청도 빈해학원

중국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

최 희 수 (청도 빈해학원)

일제의 침략으로 시달림을 받아온 우리 민족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받기는 하였으나 냉전의 희생물로 되어 남북으로 갈라진지 어언간 70년 세월이 다 되어간다. 이 사이에 우리말에도 지역에 따르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민족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인 언어의 통합이 민족통일의 기초임은 주지의 사실로 모두가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차이를 밝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의 일부를 비교하면서 필자의 소견도 밝히고자 한다.

1. 어문규범의 비교

어문규범은 언어문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우리말 규범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일제통치 시기였던 1933년에 민간단체인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하였다. 1945년 분단 이후 남과 북에서 제각기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일부분 조항들을 수정하면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 세 나라의 어문규범에서 나타난 차이의 몇 가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1.1. 표준어 비교

표준어란 어느 한 언어에서 표준으로 제정된 말이다. 표준어는 방언의 차이로 하여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지정한 공용어로 어느 한 방언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의 방언을 표준어로 한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줄곧 이 원칙이 견지되어 1988년에 제정한 규범에서도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오늘에까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조선과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조선에서 1954년에 제정한 “조선어철자법”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수정하여 “표준어는 조선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에서 이를 정한다”고 하였다. 1966년도 규범집 표준발음법에서도 “표준발음법은 현대조선말의 여러 가지 발음들 가운데에서 조선말 발달에 맞는 것을 가려잡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 후 1988년도 규범집의 발음법 총칙에서는 “조선말 발음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초한다”고 평양말이 표준어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중국 조선어 규범화의 시작은 해방직후부터이나 정부적 차원에서 전개된 것은 1975년 국무원 49호 문건이 제정되고 1977년에 동북3성조선어협의소조가 설립된 후부터이다. 중국에서 제정한 규범들의 기본은 조선의 규범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국조선어 표준발음법 총칙에서 “조선말 표준발음법은 우리나라 조선족인민들에게 널리 쓰이고 조선말 발달법칙에 맞는 발음을 가려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1966년 규범과 일맥상통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나라에서 제정한 표준어가 다르다. 이는 언어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 폐쇄된 환경에서 이러한 분단이 영구히 고착되고 내왕이 완전히 단절되면 남북의 언어는 제각기 발전하여 다른 언어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남북의 통일은 꼭 이루지고 말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그때에 가서 정해지는 수도의 방언이 우리말 표준어로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표준어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기타의 규범들을 협상을 통해 통일시키는 것이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1993년 중국 장춘에서 열린 세 나라 협의회의에서 남과 북이 더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말기로 구두(口頭)로나마 합의한 것이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언하게 된다.

1.2. 맞춤법 비교

맞춤법을 “철자법(綴字法)” 또는 “정서법(正書法)”이라고도 한다. 맞춤법은 글자를 일정한 규칙에 맞게 쓰도록 규정한 서사 법칙으로 맞춤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맞춤법은 어문 규범에서 중요시되는 규범이다. 세 나라의 규범 가운데에서 서로가 차이가 나는 몇 가지에 대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맞춤법 원리의 비교

우리말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는 표음주의(表音主義)와 표의주의(表意主義)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표음주의 원리는 단어를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고, 표의주의 원리를 형태주의(形態主義) 원리라고도 하는데 단어의 형태소를 그대로 밝혀 적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어 “몇”과 “일(日)”이 합쳐져 합성어를 이룰 경우 “몇일”이라고 두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면 표의주의 표기가 되고 “며칠”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음주의 표기가 된다.

아래에서 세 나라 맞춤법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1933년도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원리와 일치한다.

조선에서는 1966년 규범에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1988년 규범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같게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위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나라의 원리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꼭 같지 않다. 한국에서는 표음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조선과 중국에서는 형태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결과 구체 단어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자웅(雌雄)을 나타내는 접두사 "수"와 "암"이 역사적으로 "ㅎ"음을 갖고 있었기에 뒤에 "개, 닭, 돼지" 등이 올 때의 발음이 "수캐, 수탉, 수퇘지, 암캐, 암탉, 암퇘지"로 된다. 이들의 표기를 한국에서는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뒤의 음절을 거센소리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형태주의 원리에 따라 이들을 "수개, 수닭, 수돼지, 암개, 암닭, 암돼지"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발음 표기에서 "암닭"만은 "암탁"으로 읽으라고 하였다. 이 몇몇 단어를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게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표기하였다. 그러나 단어 "안팎"의 경우에는 세 나라가 꼭같이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안팍"으로 표기하였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 맞춤법의 기본원리는 같으나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구체 단어처리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2) 자모수와 자모배열순서 비교

세 나라에서 쓰이는 우리말 자모의 수에 대한 해석과 자모를 배열하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자모의 수 해석 및 배열이 조선과 중국의 것과 다르다. 중국의 것은 역사적으로 조선의 규범을 따르면서 나타난 일치로 사실상에서는 한국과 조선의 차이이다.

자모의 수에서 한국에서는 우리말 자모의 수를 24자라 하고, 조선에서는 40자라 한다. 우리말 표기에서 쓰이는 자모음의 수량은 꼭같은 40개인데 왜서 24자라 하는지가 이해하기 어렵다. 하물며 한국의 "표준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의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라 하고 "제3항 표준어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ㅐ ㅑ ㅒ ㅓ ㅔ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라고 하여 한국어 자모음이 40개임을 인정하였고 각기 다른 자모로 이들의 음을 표기함을 명확히 밝히었다.

자모란 소리를 기록하는 낱낱의 글자이다. 우리말은 확연히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형태가 다른 자모들도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 자모의 숫자를 40개로 함이 합리하다고 느껴진다.

자모의 배열순서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에서 고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조선에

서 1954년에 제정한 철자법에서 자모의 수와 배열 순서를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것과 달리 하면서 한국과 조선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1996년 8월 중국에서 개최된 컴퓨터용 우리말 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 컴퓨터용 자모배열순서가 합의를 보았다. 이는 1992년 한글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이 합의를 본 다음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통일안이었다.

(3) 두음법칙의 비교

이른바 두음법칙이란 우리말의 어두에 자음 “ㄹ”가 오지 않고 어두에서 자음 “ㄴ”가 모음 “ㅑ, ㅕ, ㅛ, ㅠ, ㅣ”와 결합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이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밝혀진 것으로 조선에서도 분단 초기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8월, 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정당 로동당을 건립하면서 당의 명칭을 “로동당”이라 표기하느냐 아니면 “노동당”이라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논쟁을 거쳐 “로동당”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로동당”으로의 표기는 그 시기에 조선에서도 준수해 오던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모순되므로 “로동당”으로의 표기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밝혀주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 임무를 수행한 첫 논문이 바로 김수경 선생의 논문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 중에서 개정할 몇 가지, 그 하나로서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두음 ㄴ 및 ㄹ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은 “로동신문” 1947년 6월 6, 7, 8, 10일 호에 실리었다. 논문에서는 통일안의 두음법칙의 제한성에 대해 아래의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표음주의 경향, 둘째는 비체계성, 셋째는 다른 외래음표기와의 모순성, 넷째는 언어음 발전을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이다. 그 이후 조선에서 이른바 두음법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중국 조선어에서도 조선의 기준에 따라 두음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앞으로의 통일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우리말에 이른바 두음법칙이 존재한다는 이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으로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말 고어에서 “라발, 락시, 란간, 란초, 래년, 략간, 량식, 량태, 려다, 렴통, 령지, 레졀, 롤애, 료화, 룡드레, 류리, 류월, 리를다, 링금”, “냑간, 냥식, 냥쥬,

녀가다, 녀느, 녀다, 녀름, 녀인, 녁이다, 녘, 녯, 뇨강, 뉴월, 뉵노, 니기다, 니다, 니르다" 등과 같은 단어들이 수두룩이 쓰이었다. 만약 우리말에 이른바 두음법칙이 확실히 존재했다면 고어에서 상술한 단어들이 쓰일 수 없다. 그런데 엄연히 두음법칙에 배치되는 단어들이 쓰이었다는 사실은 두음법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만약 우리말에 두음법칙이 확실히 존재했다면 한자어나 외래어의 어두자음 "ㄹ"를 발음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외래어 어두의 "ㄹ"(예를 들면 "라디오, 라면, 라일락")를 너무나도 정확히 잘 발음한다. 이점은 필자가 관찰한 중국어 일부 방언의 실태와 괴리된다. 중국어에서 자음 [l]가 없는 방언의 소유자들이 소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표준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자음 [l]음을 발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모든 방언에서 외래어 어두자음 "ㄹ"를 아주 정확히 잘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른바 알타이어의 공동특징설을 주장한다. 즉 어두에 자음 "ㄹ"가 오지 않는 것이 알타이어의 공동 특징이라는 이론이다. 이 역시 설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왜냐하면 알타이어에 속한다는 일부 언어의 어두에 자음 "ㄹ"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른바 두음법칙은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에서 방대한 양을 차지하는 한자어표기에 막대한 혼란을 갖다 주고 있음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즉 한자어에서 자음 "ㄹ"가 "ㄴ, ㄹ, ㅇ" 세 가지로 표기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장악하고 헤아려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타민족이 우리말 공부에서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통일안에서는 두음법칙을 취소하고 원형대로 표기하되 발음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르는 발음을 허용발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별적인 상용 단어는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 형태를 고정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예절(禮節), 여권(旅券)" 같은 단어들이다.

(4) 사잇소리 표기의 비교

우리말은 음절수가 많고 어음변화가 매우 복잡한 언어이다. 그 가운데에서 제일 큰 골칫거리의 하나가 사잇소리의 표기이다. 이것이 또한 세 나라의 규범에서 해결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잇소리 표기에서 한국은 “ㅅ”으로 사잇소리를 표기하고 조선과 중국의 현행 규범에서는 사잇소리표기가 없다.

조선에서 1954년 철자법에서 사잇소리 부호 <’>를 제정하여 합성어 두 단어 사이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사잇소리를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기’발, 날’짐승, 낮’일, 물’약, 수’자, 호’수” 등이다. 이것이 1966년도 규범에서 취소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중국에서도 조선의 규범을 따라왔다.

우리말 발음의 실제로부터 볼 때 사잇소리 표기의 취소는 잘못된 것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잇소리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는 좀 더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사잇소리 표기는 “ㅅ”을 첨가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깃발(기+발), 냇가(내+가), 빗물(비+물)” 등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ㅅ”을 첨가한 결과 단어의 형태가 변하게 된다. 즉 “기”와 “깃”, “내”와 “냇”, “비”와 “빗”과 같이 하나의 어근이 두 가지 형태로 되는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둘째, “ㅅ”의 첨가가 개음절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ㄴ, ㄹ, ㅁ, ㅇ”으로 끝난 어근 뒤에서는 “ㅅ”의 첨가가 불가능하여 사잇소리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논바닥, 날짐승, 그믐달, 강가, 논일, 들일, 담요” 등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선에서 50년대에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사잇소리 표시 부호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기’발, 내’가, 비’물, 논’바닥, 날’짐승, 그믐’달, 강’가” 등과 같이 표기할 경우 어근의 형태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받침 뒤에서 나는 사잇소리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을 발음교육 단계에 국한시킬 수도 있다.

사잇소리의 표기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함은 우리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교육의 객관적 수요로부터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 후대들을 위한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타민족을 위한 우리말 교육에서 절실히 소요된다. 지금 우리말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 그것이 모국어로의 교육이든 외국어로의 교육이든 간

에 우리말 사잇소리를 정확히 다 장악했다고 자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낭독 교수를 위해서는 매번 사전을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것마저도 사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게 되니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5) 모음의 표기 또는 한자말 적기의 비교

한국의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가운데의 “제4절 모음” 제8항에서 음절 “계, 례, 몌, 폐, 혜”의 모음 표기, 제9항에서 모음 “의”의 표기를 다루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조선의 규범에서는 “제7장 한자말의 적기”를 설정하고 제25항에서는 한자말 적기의 원칙을 밝히고 제26항에서 한자말에서 모음 “ㅖ”가 들어간 음절 “계, 례, 혜, 예”의 표기를, 제27항에서 한자말의 모음 “의”가 들어간 음절 “희, 의”의 표기를 다루었다.

중국의 규범에서는 조선의 규범과 같게 “제7장 한자어의 적기”를 설정하고 제24항은 한자어표기의 원칙을 밝히고, 제25항에서는 한자 “不”의 “부, 불” 두 가지 발음을, 제25항에서는 모음 “ㅖ”가 들어간 음절 “계, 례, 혜, 예”의 표기를, 제26항에서는 한자어의 모음 “ㅢ”가 들어간 음절 “희, 의”의 표기를 다루었다.

이 조항들의 핵심은 모음 “ㅖ”와 “ㅢ”가 들어간 음절의 발음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주요하게 한자어표기에 쓰이고 있다. 세 나라의 현행규칙에서는 어느 하나의 제목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여 제목은 제쳐놓고 문제의 핵심인 모음 “ㅖ”와 “ㅢ”가 들어간 음절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음 “ㅖ”와 “ㅢ”가 들어간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의 절대 다수가 한자어이다.

둘째, 이들은 제한된 자음과 결합되어 쓰인다. 모음 “ㅖ”의 경우 한국에서는 “계, 례, 몌, 폐, 혜”의 다섯 개 음절을 인정하고 조선과 중국에서는 “계, 례, 혜” 세 개의 음절만 인정하고 있다. 모음 “ㅢ”의 경우 “늬, 늴, 늉, 띄, 씌, 틔, 희” 등이다. 여기에서 “띄, 씌, 틔”가 “뜨이다, 쓰이다, 트이다”의 축약형태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늬, 늴, 늉, 희” 네 개 음절이지만 실질은 모음 “ㅢ”와 자음 “ㄴ, ㅎ”와의 결합이다.

셋째, 발음의 불확정성이다. 모음 “ㅖ”가 오직 모음 “예”로 발음될 때만이 그 자체의 음가를 나타내고 자음과 결합될 때에는 모음 “ㅔ”로 발음된다. 모음 “ㅢ”가 대중의 언어행위에서는 모음 “ㅡ, ㅣ, ㅔ, ㅢ” 네 가지 음으로 발음되는 가장 불확정적인 음이다.

상술한 사실은 우리말 모음 "ㅖ"와 "ㅢ"가 사실상에서는 사멸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음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이 사멸되어 가는 음을 고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버려야 하는가, 혹은 사용범위를 좁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모음 "ㅖ"의 사용을 모음 "예"를 첫소리로 하는 고유어 표기와 일부분 한자어의 표기 및 외래어의 표기에 쓰도록 제한하고 자음과 결합된 음절 "계, 몌, 폐, 혜"는 모두 "게, 메, 페, 헤"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음절 "례"는 경우에 따라 "예"나 "레"로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느껴진다.

다음으로 모음 "ㅢ"의 처리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가운데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음 "ㅢ"를 완전히 버리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서는 단어에서의 처리와 문법형태에서의 처리 두 가지가 연구되어야 한다.

단어처리에서는 어두에서 자음 "ㄴ", "ㅎ"와 결합된 음절의 "ㅢ"는 지금의 발음과 같게 모음 "ㅣ"로 표기한다. 즉 "늬큼"을 "닝큼"으로, "희망"을 "히망"으로 표기한다. 어두 모음 "의"는 모음 "ㅡ"나 "ㅣ"로 표기한다. 즉 "의사"를 "으사" 혹은 "이사"로, "의견"은 "으견" 또는 "이견"으로 표기한다. 어중이나 어말의 "의"는 지금의 발음대로 "이"로 표기한다. 즉 "주의보"를 "주이보"로, "자본주의"를 "자본주이"로 표기한다. 그리고 지금의 축약된 형태 "띄다, 씌다, 틔다"는 자연스럽게 취소되고 "뜨이다, 쓰이다, 트이다"로 표기하게 된다.

문법형태, 즉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의"를 지금의 허용발음에 따라 "에"로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가 격조사 "에"의 의미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1)"과 "에(2)"로 나누어 놓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음 "ㅢ"의 사용범위를 좁히는 방안이다. 이 경우도 아래의 두 가지 방안 가운데의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단어의 형태에서는 모음 "ㅢ"를 사용하지 않고, 문법형태의 관형격 조사 "의"만 사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단어 사용에서 어두의 "의"만 보류하고 이와 함께 문법형태의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음 "ㅢ"의 처리에 신경 쓰게 되는 까닭은 그것이 조만간에 사멸될 아주 불확정한 상태의 음이고, 발음에 혼란을 가져와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며 타민족을 대상으로 한 우리말 교육에 어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이다.

1.3. 발음법 비교

발음법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할 발음의 규칙이다. 세 나라의 발음법에서 제시된 자모음의 발음, 어음변화 등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두음법칙과 사잇소리표기에서 표기 자체가 다르고 개별 단어의 발음 처리가 차이가 있을 뿐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 다만 일부분 허용발음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홑모음 "ㅚ, ㅟ"의 발음을 한국과 중국에서는 겹모음 "ㅞ, ㅟㅣ"로의 발음을 허용하였으나 조선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받침 "ㄹ"(한자어와 고유어 관형형) 뒤의 예사소리를 된소리로의 발음을 한국에서는 법칙으로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국한하여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표음주의를 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형태주의를 위주로 하는가에 의해 나타난 차이이다.

발음법 비교에서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 어조(語調)의 표기이다.

한국의 발음법에서는 "제3장 소리의 길이"라는 장을 설정하고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의 발음법에서는 "제1장 모음의 발음"이라는 장의 "제1항.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높은 소리와 길고 낮은 소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발음법에서는 어조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위의 대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어조에서 음의 장단만 인정하고 고저는 인정하지 않고 조선에서는 고저와 장단을 다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조사(調査)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차이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우선 서울말과 평양말이 부동한 방언에 속하고 어조에서 차이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평양말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 서울말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어의 장음은 첫음절에 온다고 하고 합성어에서는 다른 음절에 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합성어가 아닌 다음절 단어의 경우는 어떠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조선에서 1992년에 편찬한 “조선말 대사전”에 수록된 단어 가운데의 일부분은 고저장단을 표시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이 표시는 고성능 의기로 측정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한 결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편찬한 사전들에서는 장단만 표시하였다. 남북에서 편찬한 이러한 사전들이 우리말 단어의 어조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어로서의 우리말 교육의 수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어교육의 초기 단계, 즉 자모를 배우고 단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 개개의 단어를 어떤 어조로 읽는 것이 합리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이 외국어 교육의 초기에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교과서에는 단어의 어조를 표시한 책이 없다. 외국어로서의 우리말 교육의 객관적 수요로부터 볼 때 가장 상용적인 우리말 단어들의 어조를 조사해줄 것이 기대된다. 특히 한국어의 정확한 어조 조사 자료가 없는 것이 아쉽다. 사실상 한국에서 하려고만 하면 제한된 수량의 상용 단어 어조 조사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1.4. 중국어 표기법 비교

중국어 표기법이란 중국어를 우리글로 표기하는 규칙이다. 한국, 조선, 중국 세 나라의 우리말 규범에는 중국어 표기법이 다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넣고 조선에서는 “외국말 적기법”에 넣은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외국어표기법’통일안”에 넣지 않고 따로 “한어단어의 조선말표기법”이라는 규정을 설정하고 중국어 표기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표기법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가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것 같다.

(1) 표기 대상의 비교

외래어 표기란 다른 언어의 단어를 뜻풀이가 아닌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대응되는 단어가 있을 수 없기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게 되고 일반단어라 할지라도 그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거나 원어의 민족적 특색이나 지방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번역에서 목적어에 그에 대

응되는 단어가 있더라도 원어의 발음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 우리말의 "진달래", "어머니"에 대응되는 단어 "杜鵑", "映山紅", "媽媽", "母親"이 있으나 "金達萊", "阿媽尼"로 우리말 단어 "진달래", "어머니"를 표기한 것이 이러한 실례에 속한다.

우리가 중국어 표기법에서 표기의 대상에 대해 신경을 쓰고 논의하게 되는 것은 중국 조선어가 1950년대에 중국의 좌적인 정치노선의 영향으로 이른바 "한어(중국어) 대약진"을 부르짖으며 소수민족 언어에서 중국어를 중국어의 발음대로 표기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결과 소수민족 언어들이 자기의 순결성을 잃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중국 조선어가 받은 피해도 엄중하였다. 1960년대 초에 이 그릇된 노선이 숙청되면서부터 중국조선어가 비교적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중국 조선어가 다시는 이러한 재난을 받지 않게 하고 우리말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말에서의 중국어 표기법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우리말에서 한자로 표기된 중국어 단어를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합리한가, 아니면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한가를 냉정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말이 불필요한 혼란에 봉착하게 된다.

세 나라에서 제정한 중국어 표기법에서 표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의 규범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선의 규범에서는 "총칙"의 "1.《외국말적기법》은 다른 나라 말의 단어 특히 고유명사를 그 나라 말의 발음대로 적는데 적용한다.", "3.《외국말적기법》은 우리말에 들어와 쓰이는 외래어의 적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표기의 대상이 주로 고유명사이며 앞으로 받아들일 단어임을 지적하였다. 중국의《외국어표기법》통일안 "설명"의 제1조항에서 "《외국어표기법》은 외국의 인명, 지명과 기타의 고유명사를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적용한다."고 밝히었다. 그러나 "한어단어의 조선말표기법"에서는 구체 대상을 밝히지 않았다.

위의 대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과 중국에서는 외래어 고유명사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한국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표기의 대상에 대해서도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근 연간 한국 매체에서 보도되는 중국 관련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의 고유명사를 중국어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일반단어도 간혹 중국어 발

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가오카오” 같은 단어이다. 이는 대학입시를 나타내는 중국어 “高考”를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중국어 표기의 대상을 일반단어에까지 확대하면 한국이나 조선에서 사용되는 우리말에서는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국 조선어가 받게 될 영향은 너무나도 엄청나 몇 년 사이에 중국어에 동화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어 원음대로의 표기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2) 표기 원칙의 비교

세 나라의 규범에는 통일된 표기의 원칙이 없다. 표기 원칙의 비교에 앞서 우리말과 중국어의 역사적 관계 및 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말과 중국어 사이에는 다른 나라의 말과 다른 특수한 역사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가 일찍부터 동양문화권의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 문화권에서 많은 단어를 차용해 쓰는 과정에서 우리말 한자음이라는 특수한 한자음 체계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중국어의 한자음과 다른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자로 표기된 중국어 단어를 우리말에 옮겨 놓을 때 한자의 중국어 현실음과 우리말의 한자음에서 어느 음을 택하는가가 참답게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의 “외래어표기법”은 모두 4개의 장으로 되었는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일람표”, “제3장 표기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이다. 여기에 중국어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제3장 제7절 중국어의 표기” 세칙에는 “제1항 성조는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제2항 ‘ㅈ, ㅉ,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ㄐ, ㄓ, ㄗ, ㄑ, ㄔ, ㄘ) 뒤의 ‘ㅑ, ㅖ, ㅛ, ㅠ’음은 ‘ㅏ, ㅔ, ㅗ, ㅜ’로 적는다. <보기> ㄐㄧㄚ 쟈 → 자, ㄐㄧㄝ 졔 → 제”라 하고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보기> 東京 도쿄 동경, 京都 교토 경도, 上海 상하이 상해, 臺灣 타이완 대만, 黃河 황허 황하"

조선에서는 중국어표기의 구체적인 원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 한어 단어는 그것을 적은 한어 병음자모를 조선글자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적는다. 2. 한어의 성조는 표기하지 않는다."로 표기 원칙에 대해 밝히었다.

위의 대비에서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 제일 많이 고심한 것이 한국임을 역력히 보아낼 수 있다. 고심에 고심이 거듭된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한자로 표기된 중국과 일본의 인명, 지명을 중국어나 일본어의 현실음으로 표기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한자음으로 표기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제4항에서 양자의 표기를 다 허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매체에서의 표기는 한자의 중국어 원음으로의 표기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물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외국어의 고유명사를 원어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언어학의 일반적 원리이기에 중국어도 원어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이다. 이것이 일반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일반도 있고 특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는 함께 동북아시아 한자문화권을 형성시키었고 오늘까지 발전시켜온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문화권의 매체는 한자이다. 이 한자가 오랫동안 세 나라 공동의 서사도구로 사용돼왔고 이를 매체로 한자문화권이라는 세계에서 특유한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화권에서 한자는 공용의 문자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문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자 특유의 독음이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형성된 한자문화권의 모든 문화는 한자라는 문자를 매체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서로 간에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문화권에서 한자의

독특한 지위 및 이에 대한 각자의 역사적인 표기법의 존중은 역사의 계승이며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되어왔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한자문화권의 특성과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한자의 현실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곧바로 한자문화권의 역사, 자기 언어문화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되고,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게 될 뿐이다.

한국의 표기법에서 동방 한자문화권의 이러한 특수성을 느끼고, 제4장의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의 절을 설정하고, 중국과 일본의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을 제정하였으나, 우리의 한자음으로의 표기의 정당성을 논하고 견지하지 못하고, 제4항에서 두 가지로 다 표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말 언어문화 역사에 대한 부정이다.

한자의 우리말 독음, 즉 우리말 한자음은 우리의 언어문화이다. 한자음의 형성이 어느 한 역사시기 중국어에서 쓰이던 한자의 독음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그것이 우리말에서 굳어지고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변화하면서 같은 한자의 음이 언어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한자음은 우리의 언어문화로 고착되었기에 그것이 중국의 문화나 일본의 문화가 아니다. 일본어나 베트남어에서의 한자독음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이 한자의 우리말 독음이 우리의 언어문화로 고착되었기에 그것이 오늘에까지 보존되어 왔고 수많은 한자어를 만들어냈다. 때문에 한자로 표기된 중국어 단어를 우리의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문화의 계승이며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역으로 고찰하는 것도 한자문화권내에서 한자로 표기된 대방의 단어를 그들의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자기의 한자음으로의 표기가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즉 꼭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한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한자로 표기된 상대방의 고유명사를 한자의 상대방의 독음을 택하여 표기하는가, 아니면 그 글자의 자기의 독음으로 표기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 우리말이나 일본어에서 한자로 표기한 고유명사를 상대방 언어의 음으로 표기하겠는가? 예를 들어 우리말의 지명 "설악산(雪嶽山)"을

중국에서 우리말 원음 “설악산”에 가깝게 표기하려면 중국어에는 “설”이나 “악”이라는 음절을 표기할 한자가 없으니 부득이 다른 글자를 선택하여 “瑟拉可山”과 비슷이 표기해야 원음에 가깝게 된다. 중국에서 과연 이렇게 표기할까?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선은 중국어는 음절이 제한되어 있기에 한국 한자어의 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없고, 다음으로는 한국한자어가 지니고 있던 단어의 의미를 전부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이다. 즉 “雪嶽山”으로 표기할 때에는 눈에 덮인 산의 뜻이 안겨오나 “瑟拉可山”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마치 서방나라의 지명과도 같은 감을 느끼게 하고 “설경(雪景)”의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중국어에서 일본의 한자로 표기된 고유명사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해당 글자의 중국어 음으로 발음하지 그 글자의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도 “東京”의 일본어 이름이 “도쿄”이나 중국에서 그것을 절대 일본어의 발음 “도쿄”에 가깝게 표기하지 않고 해당 한자의 중국어 발음대로 “둥징”이라고 발음한다.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자로 표기된 우리말의 고유명사 “韓國”을 “한국”으로 표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한자독음 “간고꾸”로 표기하고 부르고 있다.

꼭같은 한자문화권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대방의 한자로 표기된 고유명사를 자기의 한자독음으로 쓰고 읽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한자로 적힌 상대방의 고유명사를 우리의 한자독음이 아닌 대방의 한자독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설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언어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바는 우리와 함께 한자문화권을 형성시키고 발전시켜온 중국이나 일본이 한자로 적힌 한국이나 조선의 고유명사를 우리말의 발음대로 표기하는 역사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왜서 우리만이 자기의 언어문화 유산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가?

셋째, 한자문화권의 특성을 홀시하였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자문화권은 한자를 매체로 하여 형성된 문화이다. 그렇다면 왜서 한자가 매체의 기능을 할 수 있었는가? 이는 한자의 특성 때문이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형(形), 음(音), 의(義)로 이루어지었다. 이 삼자의 관계에서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글자의 형태이지 음이 아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가 말이 다르고 한자의 독음도 다른 중국사람과 한국사람, 일본사람 사이, 지어는 베트남사람과 한국사람 사이에서 한자를 이용한 필담(筆談)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자로의 필담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원칙에서 밝힌 "한자를 병기한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의 뜻이 어느 한 음과 연계되고 그것이 오랫동안의 사용과정에서 고착되었을 경우, 뜻과 음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계가 형성되어 해당 글자의 음을 들으면 글자를 연상하게 되고, 연상된 글자를 통해 뜻을 이해하게 된다. 한자의 음은 그것을 쓰는 언어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기에 중국어 한자음, 한국어 한자음, 일본어 한자음의 구별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핵심인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교류가 이루어진 문화가 바로 한자문화권이다. 그러므로 한자문화권에서 한자의 음으로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한자의 형태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이렇게 한자의 자형에 의해 나타나는 뜻을 음대로 표기할 경우, "雪嶽山"이 "瑟拉可山"으로 되니 원래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자문화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로 표기된 대방의 고유명사를 대방의 한자음으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는 것이 한자문화권의 공인(公認)으로 매우 합리적이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상대방이 쓴 한자어의 한자를 그대로 쓰고 다른 한자로 대방의 발음에 맞게 고쳐 표기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창조한 한자문화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만약 "雪嶽山"을 "瑟拉可山"으로 고쳐 한국어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면 이는 마치 우리 문화에서 대방의 이름 "金永豪"를 음이 같은 한자 "金獰狐"로 적어놓거나, 중국 한나라 때 왕망(王莽)이 "高句麗"를 "下句麗"라 한 것처럼 상대방 문화에 대한 멸시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문화권에서 서로가 한자로 창조한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여 원래의 한자형태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하고 그것을 대방의 한자독음으로 발음할 수 없으니 자기의 한자독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한자문화권내에 속한 여러 형태의 문화가 한자문화의 핵심을 계승하면서 서로가 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기본 태도로 되어왔다.

넷째, 우리 언어문화의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한자의 중국어 발음으로의 표기가 우리의 언어문화에 막대한 혼란을 갖다 주게 된다. 왜냐하면 한자의 중국어 발음으로의 표기가 종국적으로는 중국어 현실음에 기초한 새로운 한자음체계를 형성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즉 "上海"를 "상하이"로 표기할 경우 한자 "海"의 독음이 기존의 한자음 "해"와 새로운 한자음 "하이"가 병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자의 중국어 현실음 표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한자음 자전(字典)이나 옥편이 편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한자음 표기로 교육받은 세대들이 전통한자음으로 표기된 문헌자료를 읽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게 됨은 명약관화이다. 이것이 우리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는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이다. 언어문자 표기법의 변화가 민족문화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은 이미 타민족들의 역사에서 증명된 철칙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중국어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어음체계가 바뀌고 이에 따르는 한자의 독음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그때의 중국어 발음에 맞는 또 다른 새로운 한자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언어문화 발전에 유리한가?

이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1447년에 훈민정음의 탄생과 함께 탄생한 교정한자음 운서 "동국정운"이 왜서 제정된지 80년이 되는 해인 1527년에 최세진의 전통한자음 자서 "훈몽자회"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겠는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정한자음이란 한자의 음을 그 당시 중국어의 발음대로의 표기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한자의 중국어음대로의 표기와 꼭 같다. 교정한자음의 확립과 보급을 위해 세종대왕이 왕권(王權)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것이 그 시기 우리민족의 언어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왜서 80년 만에 폐지되었겠는가는 참답게 연구해 볼 과제이다.

다섯째, 중국조선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중국어 현실음으로의 한자음 표기가 실시되면 중국 조선어는 빠른 기간에 중국어에 동화되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기에 약하기로 한다.

상술한 몇 가지로부터 볼 때, 한자로 표기된 중국어 단어를 한자의 중국어 현실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원칙은 매우 불합리한 그릇된 것으로 우리의 언어문화의 건전

한 발전을 저애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나온 수백 년의 역사가 우리말 한자음으로의 중국어 표기가 우리민족 문화의 발전 및 주변 민족들과의 문화교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론 중국문화와의 교류과정에는 우리 한자음 표기로는 불합리하여 부득이 중국어 원음대로 표기해야 할 단어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중국어 원음대로의 표기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소수민족 "壯族"을 우리의 한자음으로 표기할 경우 "장족"으로 되는데 이 이름이 또 다른 민족인 "藏族"과 동음어가 되기에 "壯族"을 중국어 원음대로 "쫭족"이라 표기하게 되었다. 이같이 중국어 원음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만 중국어 원음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민족 문화의 계승과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나온 역사시기에도 꼭 같이 있었고 개별 한자의 중국어 현실 발음이 우리 한자음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3) 표기 방법의 비교

표기의 방법이란 중국어 자모음과 우리말 자모음을 어떻게 대조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세 나라의 규범에 차이가 있다.

첫째, 대조 자모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음자모와 대조하고 조선과 중국에서는 병음자모와 대조하였다. 물론 한국의 규범에 병음자모도 병기해 놓았으나 원칙적으로는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병음자모와의 대조표를 만드는 것이 합리하다. 그리고 한국의 주음자모표가 중국에서 1957년에 제정한 주음자모표와도 다르다. 성모는 같으나 운모에서 차이가 있어 중국의 운모표에는 35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의 운모표에는 "ㄦ, ㄧㄢ, ㄧㄥ" 세 개가 더 있어 38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중국어 음절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표기된 음절수가 중국어의 실제음절 수와 차이가 난다. 중국어 음절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400여개(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405개 좌우다)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에서 밝힌 음절의 개수는 397개로 차이가 있다.

둘째, 어음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세 나라의 중국어 성모(聲母)표기는 대동소이하나 운모(韻母)표기에는 차이가 있다. 세 나라의 표기에서 공동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중국어 어음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중국어 모음 "i"에 대한 표기이다. 중국어 모음 "i"가 쓰이는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소리로 발음된다. 이것이 자음 "b, d, l, m, n, p, t, j, q, x" 뒤에서는 모음[i]로 발음되는데 이 경우의 발음은 우리말 모음 " ㅣ "와 대응된다. 그러나 자음 "z, c, s" 뒤에서는 모음[ɿ]로 발음되고, 자음 "zh, ch, sh, ɾ"뒤에서는 모음[ʅ]로 발음되는데 이 두 경우의 발음이 우리말 모음 "ㅡ"에 가깝다. 그런데 세 나라의 중국어 표기법에서 이러한 차이를 밝혀준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이러한 도리를 모르기에 한국과 중국에서 제정한 중국어 자모의 발음 표기에서 중국어 자음자모 "zh, ch, sh, r, z, c, s"를 우리말 자모 "ㅈ, ㅊ, ㅅ, ㄹ, ㅉ, ㅊ, ㅆ"와 음절 "즈, 츠, 스, 르, 쯔, 츠, 쯔"를 병기해 놓는 과오를 범하였다. 외래어 표기에서 겹자음을 표기할 경우에 그중의 하나를 음절로 표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모와 자모를 대응시키지 자모와 음절을 대응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음절 표기에서도 차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병음 "yan"을 "옌", "얜"으로의 표기, "jia"를 "쟈", "자"로의 표기, "jiang"을 "쟝", "장"으로의 표기, "bo, po, mo"를 "보, 포, 모", "붜, 풔, 뭐", "버, 퍼, 머"로의 표기 등등의 구체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언어에 대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참답게 연구하면 쉬이 해결될 문제라 생각된다.

셋째, 중국어 표기법 구체 설명이 없다.

세 나라에서 제정한 중국어 표기법을 다른 나라말 표기법과 대조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다른 언어 표기법들에서는 같은 자모가 부동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어떻게 표기하여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중국어 표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사실상 중국어에서 제정한 병음 자모로의 중국어 발음 표기에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모음 "i"와 "a"가 결합된 "ia"의 경우에는 "야"로 발음하지만 그 뒤에 자음 "n"을 첨가하여 "ian"으로 표기되었을 때에는 "얀"으로 읽지 않고 "옌" 또는 "얜"으

로 읽는다. 모음 “i”와 모음 “e”가 결합된 형태 “ie”의 발음 역시 철음(綴音)법칙에 따르면 “여”로 발음되어야 하겠는데 중국어에서는 “예”로 발음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모 “u”가 모음[u]와 [y] 두 가지 음을 표기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어 모음 “o”가 운미(韻尾) “ng”과 결합되어 음절 “ong”, “iong”을 이룰 때의 발음은 [ung], [iung]으로 하기로 되었으니 모음 [o]가 [u]로 되었다. 이같이 하나의 자모가 두 가지 음을 표기한 것 자체가 배우는 사람에게 혼란을 조성시켜준다.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철음법칙에서의 모순으로 하여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유학생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우리말 자모로 중국어의 음을 표시할 때, 어느 경우에는 어느 음으로 적게 된다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넷째, 표기의 구체 방법이 바르지 못하다.

중국어 표기의 구체 방법에 대해 중국어 원음대로 적느냐 아니면 글자대로 적느냐 하는 표기에서의 구체 원칙이 제정되고 구체 방법이 제정되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다. 이 문제에서 외래어 표기의 주요 원칙은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ㅈ, ㅉ, ㅊ’으로 표기되는 자음(ㅐ, ㅛ, ㅠ, ㅑ, ㅔ, ㅘ) 뒤의 ‘ㅑ, ㅖ, ㅛ, ㅠ’음은 ‘ㅏ, ㅔ, ㅗ, ㅜ’로 적는다. <보기> ㅐㅣㅚ 쟈 → 자, ㅐㅣㅝ 졔 → 제”로 표기하라 하고, 중국에서 “한어 단어는 그것을 적은 한어 병음자모를 조선글자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적는다.”고 한 표기의 방법은 원어에 가깝게 적는다는 원칙과 배치된다. 왜냐하면 언어에 따라 자모의 발음 표기와 언어의 발음이 불일치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 하나의 자모가 두 가지 이상의 음을 표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힌 중국어 모음 “i” 하나가 중국어의 세 가지 음운 [i], [ɿ], [ʅ]를 대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 실례이다. 하여 중국어를 한국어 자모로 표기할 때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국어 모음 “o”를 원순모음 [o]라고는 하나 실제 발음은 원순도가 약한 원순모음으로 우리말 “어”와 “오” 사이의 음이다. 이것이 자음과 결합될 때에는 사실상 우리말 “어”음으로 발음된다. 이를 자모의 대조대로 표기하면서 “오”로 표기하니 언어 실제에서의 발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중국어 겹모음에는 이중모음도 있고 3중모음도 있는데 이들의 발음표기가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경우도 있고 우리글 자모를 중국어 병음표기대로 대조시켜 놓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 “xiao(小)”를 우리말로 표기할 경우 “시아오”, “샤오”, “쇼” 세 가지로의 표기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시아오”는 자모를 대응시킨 표기이고 “쇼”는 원음에 가깝게 한 표기이다. 그리고 자모를 대응시키면 중국어 한 음절을 우리말 두 음절 또는 세 음절로 표기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 “tian(天)”의 발음을 지금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 조선에서는 우리말 “티옌”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발음은 “턘”에 더 가깝다. 또 일례로 중국어 “juan(娟)”을 남과 북에서는 “쥐엔” 두 음절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발음은 우리말의 “좬”이 더 가깝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기와 발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자모음 표기대로 대조시킬 경우 표기된 음과 실제 음 사이에 필연적으로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자모를 대응시킬 것이 아니라 될수록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어 표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이 더 있으나 약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총적으로 볼 때 세 나라에서 제정한 중국어 표기의 구체 방법에는 미흡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하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 느껴진다.

2. 문법의 비교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학자에 따라, 의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언어도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법칙은 하나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써낸 문법이 다른 원인은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인식의 차이가 주요하게는 무슨 이론에 기초하여 어떤 사유방법으로 사고하는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세 나라에서 쓰이는 우리말 문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결국은 한국과 조선의 차이이다. 아래에 문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차이만 몇 가지 지적하려 한다.

2.1. 문법술어의 비교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의존명사”를 조선에서 “불완전명사”라고 하는 것이다. 문법술어의 차이는 잘 알려진 사실로 통일시키는데 큰 힘이 들지 않으리라 느껴진다.

2.2. 품사분류의 비교

품사분류에서의 차이는 주로 품사분류의 기준의 차이와 품사의 설정 및 하위분류에서 나타난다. 품사분류의 기준에서의 차이는 주로 단어조성의 특성을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 보느냐에 있다. 조선에서는 기준으로 삼고 한국에서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품사의 설정에서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견해가 많았다. 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을 편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이냐 아니면 타민족의 우리말 공부를 위해 편찬하는 문법이냐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의 경우도 제각기 학습자 모국어의 품사분류에 대응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은 품사분류뿐만 아니라 문법 서술의 기타영역에서도 학습자 모국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한국의 문법에서 조사를 품사로 보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쟁론되던 문제로 조사의 의미, 기능, 형태론적 특성 등으로 보아 단어로 볼 것이 아니라 문법적 형태로 보는 것이 합리하다고 느껴진다.

이 밖에 개별단어의 품사소속 문제에서 이중성을 부여하는 것도 잘 연구되어야 한다고 느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전에서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 품사라 하고 “없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로도 쓰인다고는 하였으나 “죽다”를 완곡적으로 표현할 때만으로 국한하였다.)와 “아니다”는 형용사라 하였는데 이는 모순되는 것이다. “없다”, “아니다” 뒤에도 동사에 쓰이는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없는 것이 없다”의 “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의 “라고”가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문법에서 하나의 단어를 “관형사”와 “수사”, “대명사”의 이중성을 띄게 한 것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말 관형사의 수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에는 이롭다. 이렇게 하려면 수사와 관형사, 대명사와 관형사 이중 품사로 표기된 단어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3. “들”에 대한 견해의 비교

한국어에서는 복수를 나타내는 형태소 “들”을 접미사로 보고 조선에서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토로 보았다.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미사”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선생님’의 ‘님’, ‘모가지’의 ‘아지’, ‘지우개’의 ‘개’, ‘먹히다’의 ‘히’ 따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매우 정확한 이론이다. 접미사는 파생어의 구성요소로 단어에서 떼어낼 수 없고 일단 접미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으면 그 단어가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야 한다. 한국어에서 접미사로 보는 “들”이 한국어에서 수많은 체언 뒤에 쓰일 뿐만 아니라 부사 뒤, 지어는 동사 뒤에도 활발히 쓰이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집들, 차들, 나무들, 자네들, 너희들, 우리들, 저희들, 잘들, 어서들, 너무들, 빨리들, 그렇게들, 들어오시게들, 가시게들, 자고들 있나, 먹고들 놀아라……” 등이다. 한국의 문법이론에 따르면 이것들을 다 파생어로 보아야 하고 사전에 표제어로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사전에 표제어로 올린 단어는 하나도 없다. 또 한국의 어떤 사전에서는 접미사를 “낱말 뒤에 붙어서 뜻을 보태거나 품사를 바꾸는 노릇을 하는 접사”라고 해석하였는데 여기서의 이른바 “뜻을 보태는”의 기능이라고 할는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나 이렇게 접미사를 광의적 의미의 후치사적 형태로 해석할 경우 이른바 모든 조사가 다 접미사로 되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보아 한국문법에서 “들”을 접미사로의 처리는 잘못된 처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4. 영형태소 기능의 비교

한국에서는 그것이 기능은 있으나 형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선에서는 형태가 없으면 기능도 없는 것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2.5. 단어결합의 비교

조선에서 단어결합에 대해 중시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큰 중시를 돌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느끼건대 단어결합은 주요한 문법단위의 하나로 마땅히 참답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느껴진다. 특히 우리말의 단어결합과 합성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것이 기대된다.

2.6. 문장성분과 종류의 비교

우리말 문장성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글의 이해와 쓰기에 더 유리한가가 좀 더 참답게 연구될 것이 기대된다.

문장의 갈래에서 이야기의 목적에 따르는 문장의 갈래는 기본상 일치하다. 그러나 조선에서 분류한 “짜임의 특성에 따르는 문장의 갈래”와 “상에 따르는 문장의 갈래”가 한국의 문법에는 없다. 조선에서 짜임의 특성에 따라 두 구성문과 외구성문, 단순문과 확대문, 완전문과 불완전문,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세분하였고, 상에 따르는 갈래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 따라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으로 나누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문법에서 “아니”, “못”에 의한 부정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변형생성문법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에서의 차이가 어휘에서의 차이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다. 이는 문법의 보수성과 어휘의 개방성에서 초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문법비교에서 우리는 한국과 조선 및 중국에서의 우리말 연구에서 도외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첫째, 우리말 문법단위를 몇 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한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형태소, 단어, 단어결합, 문장의 네 개 단위로 나누었는데 이 외에 다른 단위가 없는가?

둘째, 우리말 단어의 구조에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는 접요사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셋째, 우리말 단어의 표식은 무엇인가?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가?

넷째, 우리말 형용사에 급(級)의 범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등의 문제도 연구하고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느끼건대 일반언어학의 이론과 개념으로 우리말의 실제를 잘 조명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공부하면 할수록 문법이란 무엇이고, 왜서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맴돌이치면서 사라지지 않아 번뇌할 때도 있다. 그 원인의 하나가 우리말 연구의 실태라고 느껴지어 지금까지 세 나라에서 진행한 문법 연구에서 부족했던 점을 몇 가지 돌이켜보고자 한다.

첫째, 선진적인 새 언어이론의 장점을 우리말 연구에 잘 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같은 나라의 연구 성과를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전통문법, 구조주의 문법, 변형생성문법 등이 모두 자체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 문법이론의 장점을 우리말 연구에 응용하겠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이면에서 우리가 중국학자들에 뒤지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문법이론의 장점을 받아들여 “세 개 평면 문법” 이론을 창조했고, 이 이론으로 중국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느끼건대 “세 개 평면 문법”이론은 우리말 연구에서도 참고할 만한 이론이라 생각된다. 이 밖에 “결합가 문법이론”, “단어문법”이론 등에 의해 연구된 구체적인 성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말 교육에 큰 도움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우리의 문법 연구에서 대비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말 연구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고 있다.

대비연구가 뒤지게 된 데는 한국이나 조선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객관적인 원인도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목적의식적으로 필요한 언어사이의 대비연구를 해야 한다. 대비연구는 어느 한 사물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자기의 연구에서 미흡했거나 주의하지 못하였던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인력, 물력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비연구 대오의 건설에 힘을 기울이어 주기를 바란다.

대비연구에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공시적인 대비연구와 통시적인 대비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는 우리말의 역사연구와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비연구가 기대된다. 지난시기 우리말 역사 연구를 위한 대비연구에서

알타이어에 속한 언어들과의 대비에만 중시를 돌리고 중국어와의 대비는 계통이 다른 언어라고 도외시하였다.

우리가 보건대 이는 잘못된 것 같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비록 계통은 다르지만 서로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민족은 일찍부터 동이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동이문화의 영역이 조선반도, 요동반도, 산동반도였음을 감안하면 아득히 먼 옛날부터 공존하면서 적지 않은 어휘들은 서로가 차용했을 수도 있다. 하물며 중국 한나라 때의 양웅(楊雄)이 편찬한 "방언(方言)"에 "朝鮮列水之間"의 단어라고 밝힌 것들도 있다. 여기에서의 조선은 고조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자로 기록된 문헌을 이용한 우리말 고대어 연구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한자의 상고음 연구 성과이다. 예를 들어 역사인물 "朱蒙"이라는 인물이 그 시기의 고구려 말로 재구하면 어떻게 발음되었겠는가를 밝히려면 그 시기에 그것을 적은 한자들이 어떻게 발음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상고시기에 한자로 적어놓은 자료를 지금의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중국 학계에서도 상고시기의 한자음 재구를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 즉 한자의 상고음 재구를 위해 중국의 어떤 학자들이 우리말 고유어의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고유어와 중국어 상고시기 어휘의 대비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중국 고대문헌에 나오는 난해(難解)한 단어를 역대의 주석과 달리 우리말로 해석하니 의사가 완전히 잘 소통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고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단어를 차용해 썼고 우리말의 단어가 중국어에도 유전(流傳)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춘추전국시기의 문헌에 동이어의 단어뿐만 아니라 서역의 단어들도 씌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말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말과 상고시기 중국어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연구에서 이외의 좋은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중국어와의 대비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고대중국어와 우리말의 대비 연구는 중국학자들이 농단하고 말게 될 것이니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직의 어려움 등으로 하여 우리말 고대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연구 성과도 줄어들고 있

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에서 투자하여 필요한 연구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셋째, 우리말의 정태(靜態)연구가 많고 동태(動態)연구가 적었다.

주지하다시피 공시적 문법연구의 목적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문법의 법칙을 밝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잘 배우게 하고 정확히 쓰게 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음, 어휘, 문법의 동태연구가 참답게 되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우리말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말의 동태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목적, 의식적으로 우리말의 문법구조와 의미가 언어행위에서의 실태를 밝혀준 성과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우리말 교육, 특히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우리말의 문법구조로부터 미시적으로는 형태소에 이르기까지의 동태연구를 참답게 해 줄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가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완성되기는 어려우므로 나라에서 계획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가장 상용적인 법칙, 형태소에 대한 연구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꼭 성공하리라 믿어지며 연구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들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느껴진다.

우리말의 동태연구를 위해 한국과 조선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우리말의 동태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널리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3. 어휘의 비교

어휘는 언어의 제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개방적이며 변화가 많은 부분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차이로 서로 간에 낯선 단어들과 부딪치게 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현상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와 60년대에 한국과 조선에서 어휘정리를 주요한 과제로 하였는

데 진행한 어휘정리의 기본방향은 일치했다고 느껴진다. 즉 고유어를 살려 쓰고 외래어, 특히는 일본제국주의 식민 통치시기에 우리말에 침투된 일본어 잔재의 숙청은 공동의 과제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 중국조선어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를 제거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중국어의 영향에서 우리말의 순결성을 확보하겠는가가 주요한 과제로 되어 규범화사업에서의 주요한 정력을 어휘규범화에 기울이었다.

70년대 이후에는 어휘규범화가 주요한 과제로 되었는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학술용어 등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조선에서 “조선말 대사전”을, 중국에서 “조선말사전”을 편집 출판하였다.

지금까지 부동한 지역에서 우리말에 써온 단어들을 수집 정리한 자료집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것들이 다 정리되면 그 수량이 방대하리라 생각된다. 그 가운데의 적지 않은 단어가 이미 사어(死語)로 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우리민족이 창조한 언어문화 유산임에는 틀림이 없는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정리 사업도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어휘연구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교육용 우리말 기초어휘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선정한 기초어휘 자료는 있으나 정부적 차원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과제가 중국어에서는 1988년에 이미 끝냈다. 기초어휘 자료의 작성이 외국어로서의 우리말 교육에서는 너무나도 박절히 소요되는 자료이므로 이러한 연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휘 연구에서도 대비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의 어휘연구에서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한자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한중수교이후 양국의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한자어와 중국어 대비를 논문 제목으로 하여 많은 논문들을 썼다. 한자어와 중국어 대비연구가 언어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과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심도 있게 쓴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아쉬움이 많다. 특히 의미의 세심한 대비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동(異同) 및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언어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성과로 될 것이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중국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를 비교해보았다. 지금까지의 우리말 연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역에 따르는 차이, 시대에 따르는 차이, 연구 흐름에 따르는 차이 등이 존재함을 보아낼 수 있다. 지난 세기 60년대 이후 대체로 한국에서는 서구의 현대이론에 기초한 연구가 많이 되었고 조선에서는 전통문법에 기초한 연구가 위주로 되면서 현대 언어이론의 성과도 도입되었던 것으로 느껴진다. 어느 편이든 간에 지난 역사시기에 우리말의 법칙을 탐색하고 새로운 이론을 탐구하기 위해 고심초사해 왔고 제각기 나름대로의 훌륭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바라건대 우리 언어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들을 통틀어 놓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일반어어학의 이론으로 보아 어느 이론이 합리하고 어느 이론이 불합리한가를 판단한 다음 더 합리적인 이론을 택하여 통일의 기초로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작업이 거족적(擧族的)으로 이루어지면 실효는 배가 되리라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어느 쪽의 것이 더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도 없고 미흡한 문제는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 분단 70년이 다 되는 오늘까지 아옹다옹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성숙된 자세로 서로가 성찰하며 상대의 성과를 존중해 주는 아량이 기대된다.

끝으로 글의 3분의 1의 지면을 중국어 표기법에 할애한 까닭은 우리말이 우리 언어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건전히 발전해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임을 부언하면서, 앞으로의 통일안에서는 이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국어연구소《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해설》KBS한국어연구회 1989
조선국어사정위원회《조선말규범집》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조선말규범집》연변인민출판사 1996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조선말어휘규범집》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東亞出版社 1990
김민수《現代語文政策論》한국문화사 2007
김영환, 권승모 편《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1996
최윤갑 주필《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1992
고영근 등《國語學研究百年史》一潮閣 1992
이주행《한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보고사 2005
김승곤《한국어의 기원》건국대학교 출판부 1984

종 합 토 론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하여

| 마 금 선 (연변대학교)

<민족 자치에 따른 중국 조선족 교육 현황과 중국 조선어 교육>에 대하여

|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에 대하여

| 김 일 (연변대학교)

<중국 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에 대하여

| 이 대 성 (국립국어원)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를 통해 본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하여

마 금 선 (연변대학교)

언어는 단순한 의사 전달 이상의 수단으로서 특정 문화의 특성을 반영해 줍니다. 한 공동체 사회에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삶과 인격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언어공동체에서 인터넷 통신 언어가 1990년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후 이미 20여 년이 흘러 이제는 대부분 한국말 화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한국말의 중요한 '사회방언'으로 자리 잡음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언어라면 자연스럽게 청소년 언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최대 수혜자로서 청소년들이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언어는 청소년 커뮤니티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청소년 언어에 대해 기존 언어문화를 일탈 혹은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에서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도 많습니다.

이관규 교수님의 연구는 인터넷 시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자 언어(SMS)와 음성 언어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의 언어문화 특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로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경제성, 오락성, 상징성, 창조성 등 긍정적 기능으로 제시했다는 점, 일상 대화 전사를 통해 대화의 언어문화 특성을 밝히고 이를 청소년 인터넷 통신 언어의 특성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비록 인터넷 청소년 언어가 일정한 부정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가 청소년 언어 일탈과 규칙의 파괴라는 단순히 도식화된 관념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청소년 세대의 언어 특성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수용하고 고찰하여 그들의 언어양상을 문화로써 이해하고 의미를 찾아 청소년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토론자라기보다는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하였던 점 몇 가지를 여쭈어 보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사용된 분석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자 언어 자료와 3명의 10대 여학생들의 음성 언어 전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근거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 않은지, 분석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정한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그들의 SMS 대화와 일상 대화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집하여 그것으로 텍스트를 구축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설복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인터넷 문자 언어를 고찰함에 있어서 '인터넷 언어'와 '카카오톡 공간'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고찰하였는데 '카카오톡'은 '인터넷'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지, '인터넷'과 '카카오톡'으로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카카오톡에서의 대화를 문자 언어로 간주하시고 분석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논문에서 밝히셨듯이 카카오톡은 특성상 구어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구와 면전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단어 나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화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지니기보다는 단어나 구 형식의 짧은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문자로 실현되지만 실제로 쓰이는 언어는 음성으로 발화되는 언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이 문자 언어를 대변할 수 있는지, 카카오톡과 일상 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신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카카오톡 대화의 특성에서 자모자를 사용하여 의성어나 의태어 등으로 감정 형태를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한국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교수님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청소년을 더 이상 문제와 치료의 대상이 아닌 급변하는 시대에 동반자로서, 기성세대와 함께 할 세대로서 인식하고 청소년세대의 삶의 방식과 모습을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한 접근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족 자치에 따른 중국 조선족 교육 현황과 중국 조선어 교육>에 대하여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조선족교육과 조선어교육의 역사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개혁과 개방이라는 물결 속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조선족 전통사회의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지역의 민족교육 변화 양상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고찰하면서 진단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집니다. 중국조선족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토론자는 이 연구를 통해 중국조선족교육에 관한 큰 물줄기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만 토론자가 이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조선족교육 및 조선어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수준 미달의 교사를 꼽고 있는데, 토론자 또한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교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와 농촌이라는 차이가 없이 교사들의 대우를 동일하게 해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받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욱이 공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용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만 학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의 임용 고시에 합격해야만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교사들은 가르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교사로서 그 신분에 대한 대우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지적한 문제를 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교사 임용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우 또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족자치주의 교사 임용 방법과 그 문제점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 언어는 한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그리고 문화를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국조선족 학생들이 중국어와 조선어라는 두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민족교육의 측면에서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문에는 중국조선족교육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일부도시에서는 민족연합학교를 꾸리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족연합학교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조선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 발전해야하는 연구 분야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중국 학생들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4년 7월 기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총 77,775명(유학생 56,480명, 한국어 연수 21,295명)이고 이 중에서 중국에서 온 학생은 총 50,974명(유학생 37,318명, 한국어 연수 13,656명)입니다. 한국어 연수생 중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4%에 이릅니다. 이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중국인 학습자가 많아지면서 한국어교육에서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대상은 한족이 주를 이룹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비해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는 중국조선족 학생들은 조선어를 모국어로 배우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도 유창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조선족을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단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에서도 조선어교육이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조선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조선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바랍니다.

<분단 이후 남북 언어문화의 유형과 변동 양상>에 대하여

김 일 (연변대학교)

* 자료 별첨

<중국 조선족과 한국, 조선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에 대하여

이 대 성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및 문법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언어 소통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신 최희수 교수님의 논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1. 자모수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자모의 숫자를 자모음의 숫자에 맞추어 40개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글맞춤법에서 자모(字母)의 수를 24개라 한 것은 글자의 차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고, 표준발음법에서 자모음(子母音)의 수를 40개라 한 것은 소리의 차원에서 그러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맞춤법 제4항의 [붙임1]에서는 이 24개의 자모로 적을 수 없는 나머지 16개의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하고 이것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이 글자들을 어울러서 적도록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모의 수와 관련해서는, 글자와 소리의 차원을 구분한 것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취지가 아니었나 합니다.

자모의 숫자를 40개로 하게 될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 두음법칙에 대하여

우선, 통일 맞춤법에서 두음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발표자께서는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칙이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만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 예로 드신 '녀느, 녀름, 니르다' 등을 보건대 중세시기에는 두음법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들은 지금 남북에서 모두 '여느, 여름, 이르다' 등과 같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대시기 이후에는 두음법칙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국어에서 'ㄹ', 또는 'ㅑ, ㅕ, ㅛ, ㅠ' 앞의 'ㄴ'이 두음인 고유어가 매우 드문 것도 두음법칙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3. 사잇소리 표기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어근 형태 변화 문제 해결과 발음교육의 효율을 위하여 "기′발, 내′가, 비′물, 논′바닥, 날′짐승, 그믐′달, 강′가" 등과 같이 사잇소리 표시 부호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현행 방식으로 사이시옷을 적을 경우에는 어근 형태가 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의가 높은 방안이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내과(內科), 개수(個數), 헌법(憲法)' 등과 같은 한자어에서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내′과, 개′수, 헌′법'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4. 중국어 표기법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중국어 표기를 한국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원음주의 표기가 한자라는 문자를 매체로 한 한자문화권의 전통과 우리말 한자음이라는 언어문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중국어 외래어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의 언어문화를 계승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우리말에 들어와 정착한 수많은 한자어는 모두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고 있으며, 이는 언어생활 안에서 우리말 한자음이라는 전통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뜻글자인 한자와 소리글자인 한글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그 운용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합니다. 낱낱의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살려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현지음을 반영하는 것이 '한자로는 할 수 없는' 한글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상하이'로 적더라도 한자로는 '上海'로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인과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려면 아무래도 [상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음에 가까운 [상하이]라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필담을 나눌 때는 소리보다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중요하므로 '上海'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는 한자를 교육할 때는 우리말 한자음으로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상하이'로 적더라도 '上海'를 [상해]로 읽는 것은 한자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교육할 때는 중국 현지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上海'로 적힌 것을 [Shànghǎi]로 읽는 것은 중국어 교육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언어문화에서 중국어 표기법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는 그리 크지 않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혹 잘못 이해하고 토론에 올린 내용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남북·조선족 언어문화의 변화와 전망 –

발 행 인 민현식
발 행 일 2014. 9. 18.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http://www.korean.go.kr
인 쇄 (주)계문사 (02-725-5216)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